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 buddhanews.com |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2월 6일(음력 12월 30일) 수요일 (주간) | 제665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해외에 불서 보내기 '활발'

현지언어 번역 불서 보급 중요성 대두
불학연구소 등 외국어 번역사업 활발

2005년 10월 대한불교진흥원은 두 명의 간부급 직원을 미국에 2주간 파견했다. 목적은 미주 지역 한국사찰들을 둘러보고 해외포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는 것이었다. 이들은 LA관음사, 정혜사 등 10여개 사찰을 둘러본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다. 영어로 된 한국불서가 거의 없어 현지인들에게 문서 포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은 2006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국제포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서 발간된 영문판 한국불서 <WHAT IS KOREAN BUDDHISM?> 600부를 미주지역에 보냈다. 이 책은 곧 미국 뉴욕사원연합회와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를 통해 회원 사찰 40여 곳에 전달됐다.

이처럼 올해 들어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한국불서를 해외로 보내 포교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 문서 포교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지관 스님 취임 이후 '한국불교 세계화 및 국제포교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불서번역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의 '한국전통사상서 간행' 계획에 따르면, 3년 내에 고승문집 등 총 11권의 전통사상서를 영역(英譯)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해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첫 결과물로 오는 6월경 <원효> <선어록> <삼국유사> 영문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한국 간화선 수행법 전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간화선> 영문판을 펴낼 계획이다. 불학연구소는 최근 2005년 발간된 <간화선>의 인용문을 한국 조사스님들의 선어록으로 교체해 개정판을 내고, 이를 토대로 영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종 스님은 "간화선 수행법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간화선>의 영역본 발간은 선(禪)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50대 문화유산>을 영문과 독어 불어판으로 9만부를 펴낸 금강경독송회도 상반기중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등지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이 책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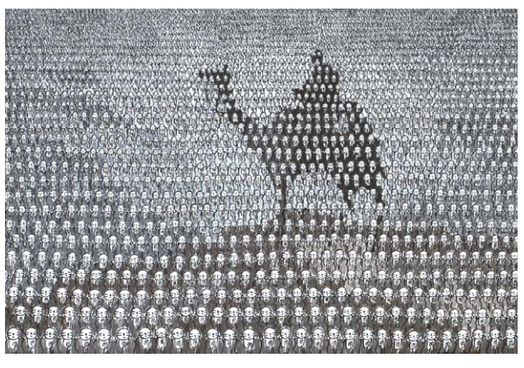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 발간하는 <불교와 문화> 고영인 편집장은 "진흥원은 해외불서 보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진흥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후원금 모금에 동참하면 불자들도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달마야, 날자 1월 30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에서 제6회 달마 오픈 국제 스노보드 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이 주최하고 봉선사 봉은사 월정사 안국선원 낙산사 등이 협찬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주니어, 아마추어, 프로 등 총 97명의 보더들이 참가해 1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홍천/글·사진 =박재완 기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 **순례자** 내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 아무런 할 일없이 오고 갔었네.
지금 길을 멈추고 생각 해보니 /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네.
몸을 굽혀 앞을 보니 / 왼발은 뜨고 오른 발은 닿네.

동국대 로스쿨 예비선정 탈락

학교·종단 "유감" 표명…강력 대응 방침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월 30일 법학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25곳 로스쿨 선정 대학에서 탈락했다.

오영교 총장과 교무위원 일행은 1월 31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어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탈락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지관 스님은 "동국대가 로스쿨 예비선정에 탈락된 것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한 뒤 "차후라도 선정 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방문에 앞서 가진 긴급 교무회의에서 동국대는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심사 정보를 공개하라"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영교 총장은 "만해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마련은 물론 교원확보 등 학교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했던 상태였다. 예비인가 선정 배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진수 부총장은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결과다. 최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예비 선정 문제점에 대해 우선 지역안배의 불균형을 지적한 한 부총장은 "고르게 지역안배를 했다고 하지만 경기 · 강원 등을 수도권에 포함시킨 것은 지역분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총장은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다른 종교사학들은 다 포함됐는데 불교계 종립학교가 빠진 것은 종교적 형평성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성토했다.

1월 31일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스님은 "동국대의 문제는 곧 조계종의 문제고, 불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종단과 재단 · 동국대가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월 31일 오전 발표하기로 한 선정 발표를 2월 4일로 미뤘다.

조동섭기자

종교인 비과세 논란 재점화

시사 프로그램서 잇단 방영

종교인들의 납세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월 26일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가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 문제를 다룬데 이어, 31일에는 MBC 100분토론이 '종교인 과세논란'을 주제로 방송해 논란을 재점화했다.

조계종 재무국장 원철 스님은 100분 토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종교 본연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정당하며, 일정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 후 뉴스후와 100분토론 게시판에서는 네티즌들의 종교인 과세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올 연등축제 5월 4일 동국대 운동장서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펼쳐지는 연등축제가 올해는 5월 4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게 된다.

그동안 봉축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이 치러진 동대문운동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의 공원화 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장소 문제로 고민해 온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이 같이 결정하고, 1월 29일 연등축제 행사 계획안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같은 날 치러지던 어울림마당과 불교문화마당 · 제등행렬 행사가 분리 개최된다. 어울림마당은 4월 27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불교문화마당과 제등행렬은 5월 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진행된다.

<4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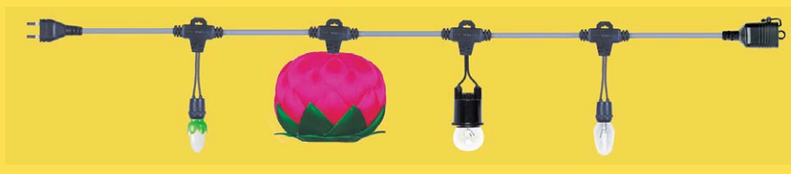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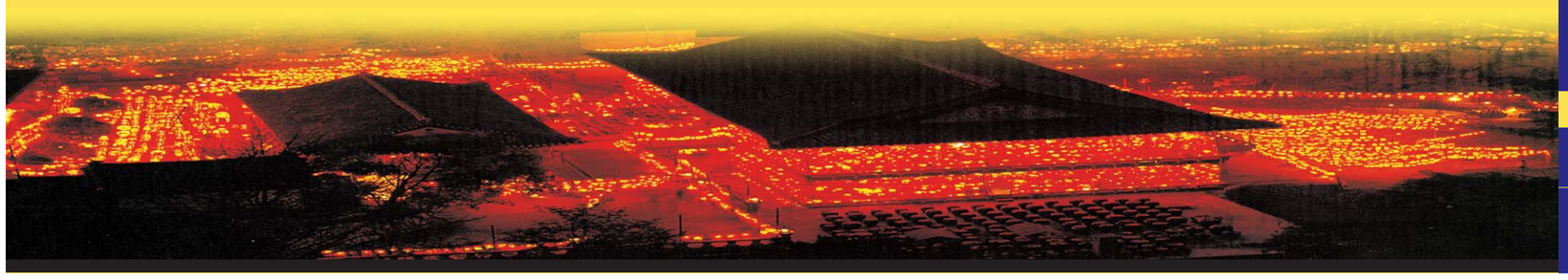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100% 순수 우리콩으로 만든 전통사찰메주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황토집에서 띄워 장맛이 좋습니다.
마음 닦으며 수행 정진과 정성으로 빚은 수공메주
메주 1말 75,000원
※ 토종 항아리에서 숙성된 장류 및 청국장 안내
된장/막장, 국간장/조림간장, 고추장(보리/찹쌀), 참기름, 들기름, 3회죽염, 9회죽염, 청국장(분말, 환, 말린, 짜개용, 무염)

제조원 : 포항 금강정사 福 공공기관 복식품
포항금강정사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대구 053)425-3063
부산 051)514-3566 대전 042)862-5539 울산 052)211-2161 강릉 033)644-9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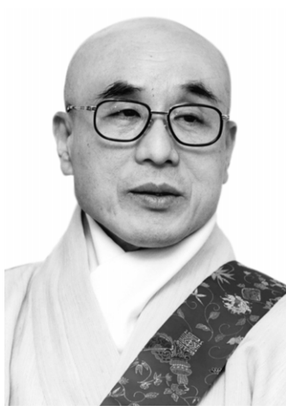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신년 기자간담회

"종도의 종단 참여제도 개선"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종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스님만이 간부가 될 수 있도록 종헌종법에 엄격히 규정해 놓아 애종심 있는 종도들이 종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구니스님들의 종무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비구니스님을 총무원 문화국장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교임 국장 등에 임명했습니다."

1월 30일 신년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애종심 있는 종도 육성만이 종단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올해는 종도 교육 강화와 종무 행정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에 운산 스님은 올해 안에 서울 경기 지역에 상설 교육원을 건립해 종단의 종지종풍을 다시 종도들에게 알리며, 사찰에서 효율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운산 스님은 또한 최근 신설된 사격조정위원회를 통해 전국 3000여 종단 산하의 사찰을 연원적으로 분류해 재산 문제로 종단과 분쟁이 없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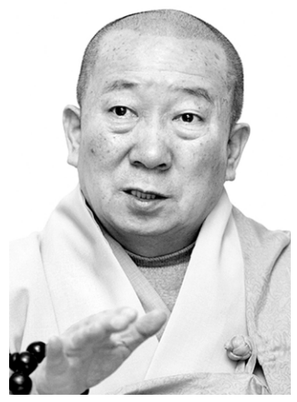
운산 스님은 "분담금 제도도 올해 대폭 개선해 현행 분담금을 지방교구 분담금으로 되돌려 주고, 종단은 승려 의무금을 종단 의무금으로 바꿔 종단예산으로 활용하며, 승려 관리를 직접 총무원에서 맡아 승려의 자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운산 스님은 ▲1사찰 1선행을 통한 사회복지 증대 활동 ▲신도회를 신행회로 재편해 조직 강화 및 활성화 사업 시행 ▲전통불교문화 창달 활동 ▲영산재 파리(3월) 및 중국(10월) 시연 ▲태고총림 선암사 성역화 및 종도 구심사찰 도량화 사업 추진 ▲일본 및 미주 특별종무원 거점으로 해외 포교활동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종헌종법 합리적 개편할 것"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지난 2003년 개정 공포됐던 종헌 종법에 대한 개정 작업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에 올해 초 종헌종법 개정 작업은 종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총무원장, 호법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정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애매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잡아 시시비비를 없애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1월 29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새해 계획을 밝혔다. 홍파 스님은 삼보정재를 투명하게 하고 수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헌종법이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종단 중진스님들의 여론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홍파 스님은 "군포교 강화를 위해 논산 훈련소 훈련병 수계 법회도 올해부터 정례화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파 스님은 "관음종이 올해 야심 있게 추진할 사업이 두 가지 더 있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각 사찰마다 서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의식을 통일하기 위해 통일 불교성전 및 의식 법요집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상반기중에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관음종은 각 사찰 불교의식에 대한 실태파악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고 종단의 종지종풍에 맞는 통일된 의식집을 발간해 통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홍파 스님은 "하반기 중에 일본, 인도 등의 해외 석학을 초청해 '법화사상'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도 개최해 한국 불교를 학문적으로 해외에 알리는 작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음종은 1월 18일 총본산 묘각사에서 45차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새해 예산을 53억25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주일 기자

'전통사찰보호법'으로 규제 일원화

조계종-인수위 1차 실무협의회

전통사찰의 중첩규제 법령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불교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의 실무위원회는 1월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2층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23일 인수위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불교규제법령 일원화 ▲(가)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템플스테이 사업예산 지원 ▲폐사지 관리 복원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대통령비서실 전통문화담당 비서관 신설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었다.

실무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현재의 사찰규제 제반 법령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 종무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종단 차원의 불교규제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조계종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축소통합 방안에 따른 문화관광부 종무실 존치 여부에 대한 우려 입장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석굴암의 '10대 국가브랜드' 삭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종단과 인수위의 실무협의회는 전통문화를 보존해 온 불교계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교계의 정당한 권리를 협상을 통해 찾기 위한 것이지, '정경유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2월 13일 오후 4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지사 : (062)268-150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한·일불교문화교류協 올 예산 2억9210만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예산을 2억9210여만원으로 책정하고 신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주요 사업으로 통과시킨 것은 ▲2월, 제29차 일본대회준비회의 및 30주년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일본 일한불교사무국) ▲4월, 제29차 일본대회 최종회의 및 30주년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한국 한일불교사무국) ▲5월, 제2회 여성부 만발공양(부산) ▲6월 9일~13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29차 대회(일본 조동종 중앙사) ▲10월, 제4차 한일 양국 여성부교류대회(제주도) ▲상반기중, 위령사업(일본 정토종 우천사) 등이다.

김주일 기자

"직능대표 전문가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상정

조계종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3월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는 1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중 직능대표선출 조항 세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법제분과위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능대표 선출을 입법취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출해야 한다'는 선원수좌회와 강원교직자연합회 등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직능대표 후보자의 해당 전문분야 자격기준을 신설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

특위는 지난 2차, 3차 회의를 통해 율원·선원·강원·교육·포교·사회·복지·문화·행정·법제 등 10개 직능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했다.

정휴 스님은 "직능대표 선출기준안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는 종도들은 언제든 특위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대상 중덕·정덕 품수식 봉행

올해 시행되는 3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중덕·정덕 법계 품수식이 봉행되고, 사미사미니 수계 대상자에게는 만5의가 제작·배포된다. 또한 법계법 시행령에 법계 품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명시된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보성)는 1월 30일 제4기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법계위원들은 이날 ▲사미사미니 수계 대상자에게 만5의 제작·배포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대상 중덕·정덕 법계 품수식 개최 ▲법계법 시행령에 법계품수 신청 구비서류 반영 등을 결의했다.

여수령 기자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보우승가대학)

본교는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사찰운영과 신도포교에 꼭 필요한 실제적 이론과 기초의식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2년제 교육기관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종단승려의 추천에 의하여 누구나 입학가능하며 기초에서 부터 전문으로 완성해드리는 보우승가대학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입학안내

◆모집학과 및 정원
· 범패학과 30명 / · 불교문화예술학과 30명 / · 전통강원반 40명/ · 교임교육과 30명
◆응모자격 : 신입생 : 승려 및 재가자
· 편입생 : 지원학과에 맞는 실력을 갖춘 자(2학년으로 편입가능)
· 전통강원반 : 일반불교교양대학 이수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 이수자
· 교임교육과 : 희망자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
· 장소 : 본교 교학처 · 기간 : 2월 1일 ~ 2월 15일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 에서 다운 받거나 팩스 747-9290로 제출.
2)주민등록초본 1부
3)반명함판 사진 3매
4)전 형 료 5만원

2. 입학전형일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3. 합격자발표 : 2008년 2월 23일(토)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게재

4. 교 과 목

학 과	목 표	교 과 목
범패학과	의식의 기초인 목탁 잡는 법 에서부터 49재의식까지 봉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의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기초불교교리. 상주권공. 호적
불교문화 예술학과	불교교리 및 법당관리.사찰운영에 꼭 필요한 모든장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함	기초불교교리.재설비 (도량장엄.고임새.지화.서예등).생활역학
전통강원반	선암사 강주를 역임하신 운범스님께서 경전을 전통 강원식으로 집중 교육하는 전문자과정임	사미.사집과 : 치문.도서.선요.서장.절요 사 교 과 : 능엄경.기신론.금강경.원각경
교임교육과	6개월 과정으로 교임 또는 승려의 권속이나 신도회간부. 사찰운영의 초보자들에게 승려를 보좌하고 준 성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위상을 정립토록 교육함	기초불교교리.불교의식.생활역학. 사찰경영학.재설비(도량장엄.지화.고임새. 금은전).습의학.다도.꽃꽂이.참선실수

연락처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GB 내 전통사찰 규제 완화

〈그린벨트〉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330㎡ 이상 사찰 2배까지 증축可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건축물 증·개축 등 불사에 제한을 받아 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1월 29일 국무회의 법안이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330㎡(100평) 미만의 사찰은 660㎡(200평)까지, 330㎡ 이상의 사찰은 연면적의 2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사찰의 연면적 산출은 건축물대장이 아닌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일명 GB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GB관리대장에는 1972년 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누락됐던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간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건물까지 구제받게 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산 범어사 보제루의 경우 1827년에 지어졌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그간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대성사의 경우 330㎡(100평), 부산 범어사는 18546㎡(562평)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그간 이들 사찰은 불가피한 불사에 대해서도 수천~수억원의 개발훼손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들은 그간 수행과 신행, 전법을 위한 건축물 불사도 제한받는 등 사찰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대부분 사찰의 불사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대형사찰에 대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 화계사와 진관사 등 개정안의 증축규모를 초과하는 사찰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당초 조계종은 특례조항을 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전통사찰의 수행과 교화를 위해 필요하며 ▲건폐율·용적률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증축규모를 초과해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조계종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분별한 불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찰마다 '불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사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여수령 기자

교단자정센터 신임 원장 경력 논란

보안사 근무 이력 놓고 "부적절 인사" 비판 여론

최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원장에 취임한 최경춘 원장의 보안사 경력이 논란을 빚고 있다.

1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경춘 원장은 "공직생활을 33년간 했고, 그중에 불교정책 지원업무를 13년간 했다"며 "특히 군과 불교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군불교 발전 등 불교계에 큰 도움을 줬는데 불교계에서 이력을 문제 삼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 원장은 "보안사에 있다고 모두 사찰을 한 것은 아니며 사찰은 보통 대공방첩 분야에서 담당한다"며 "내가 불교계에 큰 해를 입혔고 부정적인 인물로 비쳤다면 교단자정센터에서 왜 추천을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원장의 임명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서동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의장은 "이번 인사는 최원장의 군 정보기관 근무 능력을 교단 모니터링 업무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최 원장이 불교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도 군부독재 시절 보안사 경력은 자정센터장을 맡는데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중앙신도회 이지범 기획실장도 "불교 NGO 단체의 인재 검증 시스템 부재가 현실로 드러나 안타깝다"며 "불교계를 감시했던 사람이 아무리 참회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부적절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번 인사는 재가연대 설립목적과 본래 의미는 물론 한국불교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의 한 관계자는 "최 원장의 군 경력을 통해 체득한 행정 처리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교단자정센터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업무의 실용성을 따져 볼 때 실보다는 득이 많다" 고 경력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교단의 자정과 청정을 위해 발족된 자정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이번 인사는 분명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주일 기자

기자수첩 김강진 기자

복지시설 관리와 언론의 태도

'알몸체벌 어린이집'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제는 1월 28일 한 인터넷 언론매체가 단독 입수한 5세 여아의 알몸체벌 사진을 게재, 기사화하면서 시작됐다.

기자는 사건이 알려진 당일 서울 이태원동의 해당 어린이집을 찾았다. 이 어린이집은 용산구청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한 시설이다. 기자가 찾아가자 원장은 "불자들에게 송구스럽고 낯을 들 수 없다"고 거듭 사과하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어린이집이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시설은 아니었다. 이 동네 통장 김모씨는 "원장 내외가 아이들에게 정성을 많이 쏟았다"고 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를 넘은 체벌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 운영법인 모두에게 있다. 1월 31일 현재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해당 보육교사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위탁운영권을 용산구청에 반환한 상태다.

이 사건을 통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챙겨야 할 일이 있다. 재단은 수탁기관이 110여 곳에 달하는 불교사회복지의 '대표선수'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 기능이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단에서도 앞으로 시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며 전담직원을 두고 산하시설 종자사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언론의 '마녀사냥'이다. 인터넷 매체에서 사건이 알려진 당일 오후 해당 어린이집에 방송·신문 등 주요 언론사가 모두 들이닥쳤다. 모니터링 결과 취재 내용은 인터넷 매체에서 올린 기사내용과 대동소이했다. 같은 사건을 같은 시각에서 재탕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부정적 시각만 계속 덧칠될 뿐이었다.

'외눈'으로 바라본 언론의 보도 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실 개소

조계종 직할교구(의장 지관)는 직할교구 활성화를 위한 사무처를 설치하고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직할교구는 이날 제1차 교구종회를 열고 올해 사업예산과 사무처 운영방안,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수령 기자

'간화선' 상징 BI 개발

조계종 포교연구실, 심벌마크·이름 홍보 나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이 간화선을 상징하는 '나를 찾는 선' 심벌마크를 개발해 보급에 나선다.

포교연구실은 최근 간화선에 대한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BI(Brand Identity) 및 네이밍(naming) 작업을 통해 '나를 찾는 선'이라는 이름과 심벌마크(사진)를 개발했다. BI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하는 작업을, 네이밍은 상품이나 서비스·캠페인 등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심벌마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좌선하는 수행자의 모습에 녹색의 원형을 배치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포교연구실은 "원형의 녹색은 나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간화선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마음 안정과 평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간화선'이라는 용어 대신 간화선 수행의 핵심을 쉽게 풀이한 '나를 찾는 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간화선을 좀 더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포교연구실은 해당 심벌마크와 네이밍을 교육용 자료로 상표출원한 상태다. 여수령 기자



진각복지재단 올 사업 발표

진각복지재단(사무처장 장용철)이 1월 25일 법인설립 10주년을 맞은 올해 주요사업안을 발표했다.

진각복지재단은 올해 4대 중점사업으로 ▲진각복지센터 건립 ▲진각복지비전 확립 ▲법인 조직정비 및 시설관리 내실화 ▲종사자 3성(전문성·인성·불성) 강화를 내걸었다.

신규시설사업에서는 진각미혼모자가정 '달빛둥지'가 눈에 띈다. 12월 말에 설치 신고를 마친 이 시설에는 현재 1가정이 생활하고 있으며 총 8가정을 입소시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여 정림사지로 예정된 전국폐사지투어 콘서트, 문화소외계층 문화공연지원사업, 만월회·특별후원회 조직 등의 수익사업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국제구호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지원, 스리랑카 JGO센터 확대, 국제긴급구호사업 역시 꾸준히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강진 기자

민추본 남북교류 사업 강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는 1월 30일 2008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민추본은 올해의 사업기조를 '종단의 남북교류 사업기구로서의 역할강화' '대중참여형 통일사업 전형창출' '안정적 조직운영 기반마련' 등 세 가지로 정했다.

우선 '남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사업'으로는 ▲대북지원사업장 건립 ▲북측사찰 연등달기 사업 추진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펼친다. 또한 통일사업으로는 ▲분단선 통일기행 운영(5월~7월, 연 5회) ▲북녘 통일순례(3월 개성, 10월 평양) ▲통일 정토 한마당 개최 (10월 7~9일) 등을 전개한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첫 외국인 불자 채용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 불자를 채용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은 영문 원고 번역 및 통역, 영문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할 영어 원어민 불자 직원 1명을 모집한다. 계약직 형태로 오는 12월까지 근무하며, 주 2~3일 일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2월 14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02)2011-1823 여수령 기자



어울림마당·제등행렬 분리 개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올해 연등축제 행사 계획안 발표

불교계 최대의 축제인 연등축제가 '동대문운동장시대'를 마감하고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새 마당을 펼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 중 어울림마당을 분리 · 개최하고, 제등행렬 출발 장소를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연등축제 행사 계획안을 1월 29일 발표했다.

우선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던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은 각각 분리 ·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등행렬의 사전 행사 형식으로 치러졌던 어울림마당을 연등축제 준비행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4월 27일 잠실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어울림마당은 1만50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규모로, 참가자들의 화합과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봉축위는 "그동안 불교문화마당과 제등행렬 준비로 어울림마당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흥겨운 행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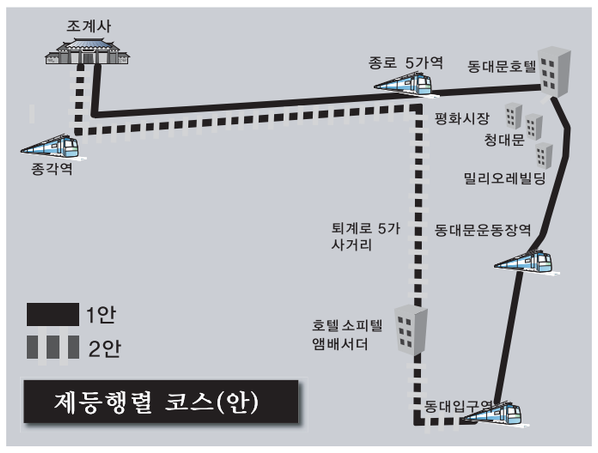
제등행렬은 5월 4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집결해 출발한다. 현재 봉축위는 동국대에 1만5000~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의 시설보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전체 제등행렬 참가자가 집결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일부 참가자들과 봉축 장엄등은 동대문운동장 앞이나 퇴계로 등에서 제등행렬에 합류하게 된다.

제등행렬 코스는 현재 두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동국대운동장을 출발해 장충단공원→동대문운동장→종로5가→종로→조계사에 도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동국대운동장→앰배서더호텔 앞→퇴계로사거리→종로5가→종로→조계사를 경유하는 코스다. 봉축위는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측과 협의한 후 제등행렬 코스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봉축위 박상희 총괄팀장은 "1970년대 연등축제가 태동할 당시 재학생 모두가 제등행렬에 참가하는 등 동국대가 연등축제를 주도적으로 치른 역사가 있다"며 "동국대 앞 퇴계로가 제등행렬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점도 장소 선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연등축제는 3만여 명이 넘는 불자와 시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일 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만도 1만여 명에 가까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다. 하지만 올해 연등축제가 한 주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 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일정이 겹치게 된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어울림마당 장소의 대안으로 꼽혔던 서울시청 앞 광장도 하이서울페스티벌 때문에 사용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청 앞 봉축장엄등 점등식도 페스티벌과 일정이 겹친다.

박 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 사업 후 연등축제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장소문제는 차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동국대운동장과 잠실체조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치루는 만큼 호응도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장소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대전경찰청 불교회 창립

혜총 스님 등 200여명 참석 창립법회 개최

대전지방경찰청 경찰불교회(회장 태경환)가 2월 1일 창립했다.

2월 1일 대전지방경찰청 3층 회의실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대전지방경찰청 경승 내정자인 철웅 스님(고산사 주지)), 대전지방경찰청 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충남지방경찰청과 분청(分廳)된 대전지방경찰청은 현재 신규청사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종교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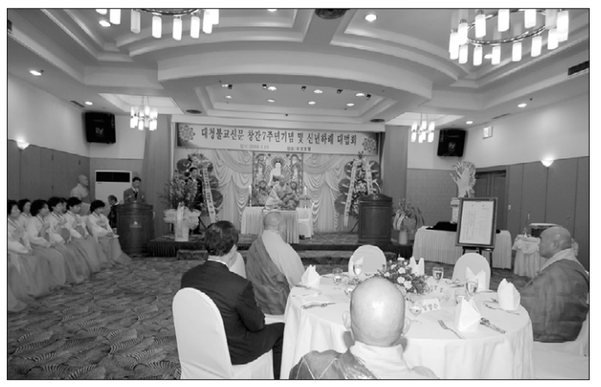
경불회는 신청사 신축 후 법당을 개원할 예정이다. 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경불회는 앞으로 조직을 정비한 후 인근 지역 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청불교신문 7주년 법회

대청불교신문(회장 법정, 향천사 주지) 창간 7주년 기념 및 신년하례법회가 1월 25일 오후 6시 유성관광호텔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 월해 스님, 안심정사 주지 법안 스님, 박성효 대전시장,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염향순 대청불교 사장은 "창간 7주년을 맞이해 대전충청 불자의 신문이라는 선언을 한다"며 "창간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혜정 스님은 "바르고 거짓 없는 맑은 신문이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정법이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전남 4대 교구본사 협의회는 1월 28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충북 종평회 신임 임원선출

충북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김정웅)는 2월 15일 오전 11시 청주향교 대회의실에서 신임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사무국장, 대변인을 선출하게 된다.

충북종교인평화회의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종교평화국제사업단 지부 등록 ▲충북종교문화제 및 문화협력 세미나 개최 ▲종교인 자원봉사학교 운영 ▲종교청년 평화캠프 참가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종교평화 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단법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에 지부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종교간 교류와 이해를 위한 문화제도 11월 중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고창 선운사 교구종회 개최 조사전 건립 등 7대사업 확정

조계종 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월 26일 말사주지와 교구종회의원, 실국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종회와 말사주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종무행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 문화 · 복지 · 생태환경 · 포교 · 지역사회연대 등 7개 분야의 세부 계획을 심의했다. 회의결과 ▲조사전 건립 및 학술대회와 연구 활성화 ▲포살과 결계를 통한 수행종풍 진작 및 기본교육 강화 ▲선운사 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민과의 유대 강화 ▲고창사회복지관을 통한 사회복지 강화 ▲노인 및 승려복지타운 건립 ▲고창읍내 어린이유치원과 포교원 건립 등을 포함한 중 · 단기 계획이 확정됐다.

이 중에서도 조사전 건립과 승려복지타운 건립이 중점 사업으로 논의됐다. 선운사 내에 조사전을 건립하는 한편, 조사스님들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해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잇겠다는 것이다. 또한 각 말사에 산재돼 있는 조사스님들의 유품을 한 곳에 모아 '유물전시관'도 개관하고, 부도전을 정비하는 불사도 추진된다.

또한 11월중에는 실비로 운영되는 전문요양시설을 수탁하고 고창군과 함께 석상마을에 노인 및 승려복지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종무행정상은 재덕스님(강천사)이, 포교부문상은 월공 스님(광주 덕림사)이, 불사부문상은 성수 스님(유선사)이 각각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는 1월 26일 교구종회와 말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태안 주민에 도움의 손길을"

전남4대 교구본사, 전남도지사에 성금 전달

전남4대교구본사협의회(회장 성우, 백양사 주지)가 1월 28일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민을 돕기 위한 성금 1500만원을 전라남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열린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건설을 위한 기원 신년하례법회'는 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다.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여수 흥국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전남지역 불자 모두의 일심발원으로 올한해는 세상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화평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문수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으로 어우러지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자"고 설했다. 성오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08년은 광주 · 전남 방문의 해이므로 그 어느 지역보다 불교전통문화가 잘 보전되어있는 전남지역 사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도 "불교의 호국정신과 생명존엄의 가르침을 전남의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00

충용사 훈련장병 수계법회

37사단 충용사(주지 상찰)는 1월 27일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을 전계사로, 해륜 스님(규정원장)을 갈마아사리로, 호공 스님(감찰부장)을 교수아사리로 훈련장병 100명에게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자들은 "첫째 불심을 발하고, 둘째 스님들께 귀의하고, 셋째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순응하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인왕 스님은 "계를 받은 장병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각오로 남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불교예술대학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혜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불자들의 좋은 교육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범패 및 작법무,
사물다루는 법 등 전반교육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정규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봉사활동 통해 부처님 만났어요”

홍법사 영어 템플스테이 봉사자 린다 · 매건


홍법사 영어 템플스테이 참가 어린이들과 함께한 매건(왼쪽)과 린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포교가 가능할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7년 3월부터 매월 넷째 토요일마다 열리는 영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다. 영어 템플스테이는 아이들을 위한 포교 · 교육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봉사하며 부처님 법을 배우게 하는 포교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1월 25일부터 시작된 영어 템플스테이 일정의 막바지인 28일 저녁 발우 공양 시간, 홍법사 법당에서 외국인 교사 린다(Lynda Sulliuan · 25)와 매건(Maegan M Quamie · 27)을 만났다. 발우공양을 마친 후 휴식 시간, 밝게 웃는 아이들 속에서 즐거워하는 그녀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과 서툰 영어에도 찡그리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참여했지만 스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면서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린다는 아일랜드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불교에 작게나마 관심 갖고 있었다고 한다. 만날 때에도 달라이 라마의 책을 들고 있는 린다는 차분한 모습에 고요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3년 전 한국을 방문해 여러 사찰을 순례했다는 그녀는 불교와 인연이 있었는지 현재 종립 금정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금정중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법당에 모여 예불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부처님 법이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함께 아이들과 수계식에 참여하고 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박5일 동안 열린 영어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외국인 봉사자들만 해도 7명이 넘는다. 대부분 각 학교나 학원에서 이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 강사들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다.

캐나다에서 온 매건은 현재 동영초등학교와 영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일까? 그녀 주변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봉사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어제 저녁 예불은 아이들과 함께 통도사 설법전에서 드렸죠. 아름다운 통도사의 모습과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예불 소리는 너무 환상적이라 그 큰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후에 있었던 명상 시간은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법을 더욱 공부하고 배우고 싶어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그들을 향한 포교는 간단했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봉사의 기회를 주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게 일선 포교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불교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간과하지 않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호응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홍법사, 그 노력으로 만들어 갈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선다회사범회 10주년 기념법회

연밭 조성 및 야생차밭 일굴 계획


통도사선다회사범회가 1월 24일 10주년 다례시연을 하고 있다.

통도사선다회사범회(회장 최해숙)가 10주년을 맞아 1월 2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정우 스님, 포교국장 양관 스님, 포교과장 세봉 스님, 선다회 회원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가했다.

방장 원명 스님은 직접 쓴 ‘세계일화(世界一花)’ 휘호를 선물하며 선다회를 격려했고 주지 정우 스님은 “선다회가 야생차밭과 연밭 조성에 함께 동참해 통도사에 그윽한 차향이 가득하도록 뜻을 모아줄 것을 바란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최해숙 회장은 “선다회는 선다(禪茶)를 통해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며 “저희 선다회는 옛것을 더욱 잘 배워 새것을 창조하고 문화를 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전통문화 계승과 홍보, 연밭과 야생차밭 조성 등 통도사와 함께 차 문화의 선구자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공로상에 최해숙 회장, 봉사상에 이난옥 재무, 10년 개근상에 류용숙 사범, 1년 개근상에 강선자 사범 외 10명, 감사패에 김영숙 前 회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부에서는 다례시연 및 축시, 축가 등 축하행사가 이어졌다.

통도사선다회사범회는 12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5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하성미 기자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

인재불사를 위한 회향의 장이 마련됐다.

재단법인 연등장학회(이사장 법등)가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부산 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열었다. 부산, 경남지역 파라미타 청소년과 일반 대학생 및 불자연합회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법등 스님은 “종교에 상관없이 학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인재가 자라나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줄 것을 발원하는 마음에서다”며 “인재불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연등장학회는 경북 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이 2004년 6월 설립한 불교장학재단이다. 법등 스님은 1956년 월정사로 출가해 1982년 조계종 사회부장 및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2석굴암에 주석 중이다.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총 2990만원을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10명 총 61명에게 지급됐다. 하성미 기자

신중단 및 신중탱화 봉안법회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은 1월 25일 ‘신중단 및 신중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효선 스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정진하기를 바란다”며 참가한 100여명의 재가불자들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반야원 참마음간병사회 회원들

“바쁘고 힘든 만큼 보람 커요”

회원 60명 지역병원 찾아 활동
‘입소문’ 퍼져 비불자들도 참여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위치한 범어사 해운대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 가는 날은 바다 바람이 불어 더욱 춥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그러나 보현행을 실천하는 반야원 참마음간병사회를 만나니 가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참마음간병사회를 설립한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화로 인해 다양한 병들이 발생하는 시점에 의료업계에 불교복지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적고 의료서비스에 불교의 영역이 많지 않아 마음 편안하게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불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참마음간병사회가 복지로 가는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2007년 9월 설립된 참마음간병사회의 3기까지는 대부분 반야원의 신도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입소문으로 외부에 알려진 4기부터는 비불자나 다른 절에 다니고 있는 불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필요한 손길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간병인 교육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개강하여 2주간 교육을 하는데 첫째 주에는 이론교육으로 호스피스, 노인간병총론, 산모 및 신생아 간병 등을 교육하며 둘째 주에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실습을 통해 완벽한 간병인으로 태어난다. 또한 수료하고 나면 한국간병교육원에서 발급하는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간병사는 환자간호, 수발, 목욕봉사,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현재 60여명의 회원이 해운대 효은병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 오후 2교대로 봉사한다. 2008년 1월부터는 바쁜 손길을 나누어서 효부병원에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봉사를 하고 있다.

참마음간병사회 허미경(법명 묘심향)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간병인회가 불심으로 모인 단체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봉사를 해드리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고마운 눈빛을 전할 때 포교와 봉사를 함께하는 회원들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감사해 한다. 환자 중에는 불자도 있지만 타종교인도 있어 항상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간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바쁜 손길 속에서도 2월부터 해운대 명성요양병원에 봉사계획도 잡혀있다. 봉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는 허미경 회장은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부처님의 자비희사 정신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오늘도 봉사 현장으로 달려간다. 반야원 (051)701-5655

오세룡 부산지사장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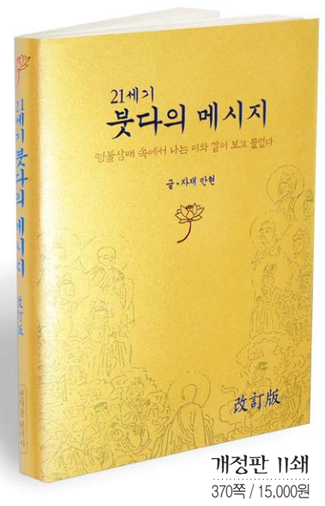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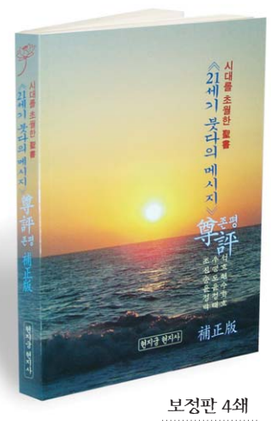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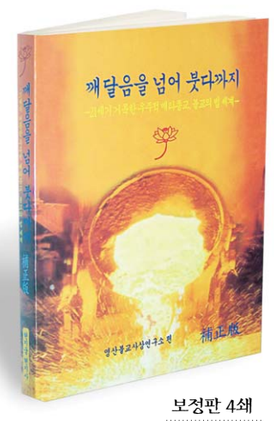
12쇄 개정판 11쇄 이어 발행!!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 힘써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앞두고 교육 본격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수효사 교육기관으로 등록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선언하며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교육도 2월 4일부터 전국 기관에서 시작돼 전문복지 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생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등록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상 인력 수요로 파악하고 있는 7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시설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식사 · 이동 · 배변 · 개인위생 지원 등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라 보면 된다.

요양보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케어복지사 · 노인복지사 등 사설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통합, 요양보호사로 흡수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사설자격증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한 종사자들은 국가가 인증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요양보호사 교육 · 양성을 통한 40~50대 여성의 취업 활로 개척이라는 부분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사 노동에만 매달리고 있는 잠재 인력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시행하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일터가 사설 기관이 아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복지기관이라는 것도 이들 중장년층 여성들에게는 마음을 끄는 부분이다.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불교계도 요양보호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노인돌봄 봉사자의 활동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불교계가 요양보호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다. 정책이 있을 때 뒤늦은 대응으로 비판받았던 불교사회복지계가 발 빠르게 움직여 요양보호사 교육시설을 등록하고 많은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함으로써 불교사회복지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한 숫자의 불자들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높은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참가한 단체 수는 72개(1월 29일 현재)다. 신고는 16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다. 취재결과 양성교육기관 중 상당수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서울 수효사(주지 무구)가 등록을 했으나 아직 교육기관으로 확정을 받지는 못했다. 진각사회복지재단(사무처장 장용철)에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기관 등록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교육기관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수효사다. 수효사 무구 스님은 "제도 도입 초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요양보호사는 불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어르신을 공양하는데도 유용한 일이므로 불자적 소양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좋을 것"이라 강조했다. 무구 스님은 현재 수효복지대학 공간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강의실로 쓰면서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 지역사회에 교육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두드려 보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를 현행 사회복지사처럼 1급과 2급으로 구분, 양성한다. 1급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시간은 240시간(실습 80시간 포함), 2급은 120시간(실습 40시간 포함)으로 설정해 요양보호서비스 관련 이론 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받도록 한다.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기초지식 · 요양기술과 서비스 지원 등을 배우는 요양보호각론 등 대부분 요양전문과목들을 수강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얻기가 훨씬 수월하다.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는 50시간(실습 8시간 포함), 간호사는 40시간(실습 8시간 포함)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제도 운영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한 복지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목적으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팀 관계자는 "아직은 요양보호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1급을 취득하려면 전문교구를 사용한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진 240시간 교육을 마쳐야 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요양보호사는 매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이므로 실제 자격증 발급률에 비해 취업률이 훨씬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진 기자

"화염에 타버린 소년의 꿈 찾아주세요"

생명나눔 선정 2월의 환우 김명진군



명진이(18)에게 사고가 일어난 것은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유난히 춥던 어느 날, 보일러에 기름을 채우다 아궁이의 나무 불씨가 명진이 바지로 옮겨 붙고 말았다. 지체장애 아버지가 추우실까 걱정하던 마음이었을 뿐인데 명진이는 이 사고로 체표면적 50~59% 화염화상을 입었다. 화상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상처의 아픔으로 잠 못 드는 날도 많았다. 그 고통 속에서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명진이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직 꿈 많은 열여덟 살, 부스럼 제거술과 두 차례의 피부이식을 받아 조금씩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과 치료만 생각할 수가 없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지체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농자금을 대출받아 버섯재배를 시작했는데, 첫 수확의 실패로 5000만원의 부채만 안게 됐다. 아픈 몸으로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해보지만 벌써 1300만원 이상 발생한 수술비. 앞으로 4차례 더 시행해야 하는 피부이식수술과 관절구축 및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치료비를 마련하기가 막막하기만 하다.

명진이는 유독 축구를 잘 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대학교에 진학해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밝고 낙천적인 성격은 명진이가 아픈 상처를 이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명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불자들의 따스한 손길이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김강진 기자



Wellbeing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들

⑫ 광주 나눔의 집 안신권 국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는가. 아직도 존재하는 무수한 편견어린 시선, 거기에 역사의 증인이라는 무게. 아직 그네들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짐은 너무 무겁기만 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는 그래도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까.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는 안신권(47·사진) 국장을 만나 그가 느끼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할머니들 복지에도 관심을"

"할머니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안타까울 뿐이죠."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안 국장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전날 밤에도 그는 할머니 한 분의 잠꼬대로 잠을 설쳤단다. 밤새 '일본군'과 싸웠다는 할머니를 보면서 어쩌면 할머니들의 정신은 60여 년 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아픈 과거인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잔인함을 잘 알려준 역사적 사실이다. 피해 생존자들의 애끊는 증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본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다. 안 국장에게는 이런 역사적 무게가 유난히 묵직하게 다가온다. 할머니들과 이심전심 살아온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안 국장이 처음 할머니들을 만난 것은 2000년이었다. 당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아내와 함께 평소 인연 있는 스님을 따라 시설에 들렀을 뿐인데, 시설 실무자가 필요했던 나눔의집 측에서 그에게 손을 좀 빌려 달라 요청했다.

전문요양시설 건립 사회적 합의 필요

"할머니들 복지에 관한 책 쓰고 싶어"

"할머니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나눔의집이 어떤 시설인지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들어본 정도였지, 어떤 의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나눔의집 모든 살림살이를 챙긴다. 할머니들 숟가락에서부터 역사관까지, 안 국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요즘 안 국장은 더 바쁘다. 2월 16~22일 펼쳐질 나눔의집 한일청년 캠프 '피스로드' 도 준비해야 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10주년을 맞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개보수도 마쳐야 한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요즘 안 국장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할머니들을 향한 시선이 너무나 인권적이라 정작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복지적' 영역에 대한 사회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전문요양시설' 건립 문제다. 건립에 필요한 토지까지 모두 매입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려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재건축해서 쓰는 방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생존자들이 모두 80세가 넘은 지금, 그들의 생활고, 병고는 어디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는 나눔의집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진지하다. 그만큼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터다. 이는 사회적으로 그녀들이 당했던 일이 잊혀지지 않기를, 우리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 후손들이 다시 되돌려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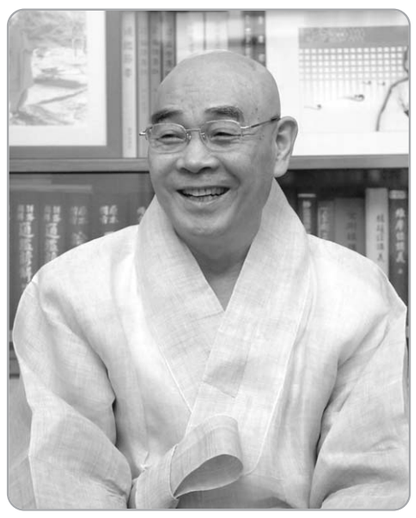
"할머니들을 향한 인권적인 측면을 다루는 이야기들은 많이 쏟아져 나왔지요. 하지만 이들이 진짜 삶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들, 언젠가는 책으로 엮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혜거 큰스님께 듣는 금강경

금강경 개강
개강 불기 2552년 3월 6일(목)
시간 오전 10시 30분

관음보살 점안식
날짜 불기 2552년 3월 9일(일)
시간 오전 10시 30분
장소 공생선원 대법당



※ 참선입문 · 경전반 · 참선반 3월 개강 大모집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 02)900-2448
http://cafe.daum.net/zenmaster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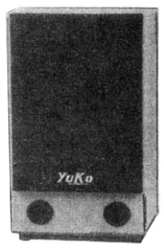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가 돌아오기까지

'문화재청 사람들의 문화유산 이야기' 출간

문화재청 사람들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보면서 겪은 일들을 모아 <문화재청 사람들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출간해 화제다. 술집 간판, 차도의 비둘기, 드라마 등 세상 모든 것이 문화재로 보인다는 이들이 쓴 문화유산 이야기다. 2007년 7월까지 쓰여진 500여편 글 가운데 26편이 실린 책에는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이중 강신태 반장(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의 건봉사 진신사리 도굴 사건을 다룬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의 귀환'과 박상국 위원(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에 관한 '100년 동안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찾다'는 불교문화재 보호와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실화라 흥미롭다.

우선 강신태 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986년 봄, 금강산 건봉사에 안치된 석가모니불 진신치아사리가 도굴 · 절취된 사건이다. 당시 세간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드라마틱하게 종결됐다. 사건 제보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는 종무원의 꿈이었다. 부처님이 도굴 사실을 알려줬다. 꿈이 너무 생생해 다음날 건봉사를 찾은 종무원은 사리탑이 실제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문화재관리국 사범단속반(문화재안전과 전신, 이하 단속반)은 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한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오길 "서울시 모호텔 프런트에 가서 신흥사 해법 스님이 맡겨둔 약봉지를 달라고 하면 사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단속반은 바로 호텔에서 사리함을 찾았다. 하지만 사리 수가 이상했다. 문헌 기록에는 12과였는데 8과만이 들어있었다. 사리함 속의 빈 공간도 사리 4과가 더 있을 것처럼 보였다. 강씨는 "당시 사리가 나머지 4과를 찾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단속반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청와대까지 보고됐던 사건은 관련자 전원 검거로 종결됐다.

불교문화재 보호 · 연구 필요성 일깨워

강 반장 도난당한 문화재 찾은것 수천건



도굴 · 절취사건 전 사리탑(상단 좌측), 새로 조성된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 부도(상단 우측), 아래 사리함(하단 좌측), 후령통 및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하단 우측).

강 반장은 "5개조 수사대가 검은 세 단에 나눠타고 새벽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고하면서 "범인은 모두 검거했지만 나머지 사리 4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강 반장이 찾아낸 도난 불교문화재는 수천 건이 넘는다.

1999년에는 공을 인정받아 고산 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고, 이후 정대 스님, 법장 스님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3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강 반장은 사라진 사리 4과를 찾겠다는 원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학자에 의해 100년 동안 '속장(續藏; 속장경, 속대장경)'으로 불렸던 대각국사 의천의 대장경 연구서를 연구하다 '교장(敎藏)' 명칭을 되찾아 교과서 등을 수정하는 성과를 이룬 박상국 위원의 경험담도 신선하게 읽혀진다. 조동섭 기자

부여 왕흥사지 사리는 신성 왕권의 상징

이기동 교수 왕흥사 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



2007년 10월 공개된 왕흥사지 사리구.

2007년 10월 공개된 부여 왕흥사지 목탑터와 사리기에 대해 인도 아소카와 전통을 잇는 이상적인 불교 신성왕권의 상징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1월 29일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 주최로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린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중흥의 비원과 진혼 사이에서'를 발표한 이기동 교수(동국대)는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는 백제 위덕왕이 부왕과 죽은 왕자를 위해 불사하고 사리를 봉안한 것이다. 당시 사리는 신앙 차원을 넘어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대변했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왕흥사지에서 사리가 나온 것은 백제의 불사리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이 교수는 "불사리는 불신(佛身)과 똑같은 것이며, 탑을 조성한 것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서기>에 '백제가 588년 왜국에 불사리를 전했다'는 사실을 들어 백제의 불사리신앙이 일본에 전해졌다는 견해도 밝혔다.

사가와 마사토시 교수(일본 동북학원대학)는 "왕흥사 유물이 중국 남북조 및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 교수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사가와 교수는 "심초석이 지하에 위치하는 점, 사리장엄구 기능이 중시된 공양품 구성이 6세기말~7세기 일본 목탑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장엄구는 중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양홍 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은 "심초석을 파내 만든 구멍에 사리용기를 봉안하는 양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5)한국선학회 www.seonstudy.org

선학을 연구하는 전문 학술 모임

한국선학회(회장 현각)는 선학을 전공한 전문 학자들로 구성된 학술모임이다.

2000년 3월 현각 스님(동국대), 법산 스님(동국대), 무비 스님(은해사) 등 출가 선지식과, 권기종 교수(동국대), 최병헌 교수(서울대), 이평래 교수(충남대) 등 재가학자가 뜻을 모아 학회를 창립한 이래 한국 선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선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2000년 초대 회장 현각 스님(동국대) 이후 제2대 회장은 법산 스님이 역임했다. 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선학회는 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 이론 정립, 현대화, 생활화 등을 연구해 왔다. 연 4차례 매월 학술발표회, 춘 · 추계 학술대회, 하계 · 동계 수련회 등 내실 있는 학회운영을 통해 학계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학회는 2005년 학술지 <한국선학>이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선학회는 한국선 전반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선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정리, 간화선 및 위빠사나와 여타 명상법 등 제수행법에 대한 고찰, 심리학 · 문학 등 학제간 연구, 사회현상의 선적 해법의 모색을 통해 선의 생활화와 한국선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열린 토론을 통한 발전을 위해 회원은 선학 전공자 뿐 아니라 선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개방돼 연 2만원의 연회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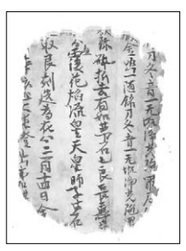
2006년 5월 열린 제43회 학술발표회(왼쪽부터 김진무 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기룡 박사, 고명석 연구원(조계종 포교연구실).

'묵서지편'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물어 본 '묵서지편' 관련 논지

본지 <제664호> '묵서지편(사진) 판독순서 바뀌었다'는 기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무구정광탑은 다보탑, 서석탑은 석가탑이라는 남동신 교수(덕성여대)의 주장은 무리 없다"는 내용과 "묵서지편의 <정종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와 <정종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누락분>은 별도의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서다"라고 해 기존 해석이 말한 중수작업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최연식 교수(목포대) 주장에 최초 판독자인 이승재 교수(서울대)는 왜 반론을 제기했을까? 당시 발표자와 토론의 주역인 최 교수, 이 교수와 함께 교계 문화재 시각을 대변해온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최연식 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의 논지가 토론자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내용을 지적하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승재 교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교수는 "발견 당시 서로 분리된 상태였다. 발견 상태를 고려하면 하나의 문서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최연식 교수 의견에 대해서는 "최 교수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재론의 여지를 남겼다.

박 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불교문헌 관련 이해는 신앙 · 의례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원장은 "신라시대 탑은 대웅전보다 높은 신앙적 위치를 갖고 있었다"며 조탑신앙에서 접근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묵서지편'의 기록도 <중수형지기>에 상륜부를 들어낸 기록을 들어 "석가탑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석가탑 보수에 대해 새로운 설을 역설했다. "지진으로 청운교 · 백운교 위의 불국사 단이 무너진 것이다. 당시 신앙으로 석가탑, 다보탑을 석가여래, 다보여래라고 했을 만큼 불국사 단은 불국정토다. 예를 들어 대웅전 한쪽이 훼손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증거와 정황, 그리고 신앙 어느 것이 진실일지는 '묵서지편'만이 안다. 조동섭 기자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재)한국불교 중흥교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자격
◎ 타종단에서 사미계 이상 수지한자
◎ 법당에 본존불(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이어야 함

※본 종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 사찰등록서류
◎ 입종 신청양식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증사본(앞뒤) 1매, 승려증 사본 1매,
◎ 종단 간부 소임을 맡을분은 자기소개서 1부 제출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없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입 종 비 : 일십만원

▫ 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본 종단 입종후 종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종단은 강원 및 율원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일 주 문



고령자 위한 보살행 주제 법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은 2월 10일 서울 조계사 특별일요법회에 참석해 '고령자를 위한 보살행'을 주제로 법문한다.



강릉불교환경연대 대표 취임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1월 26일 강릉여성회관에서 열린 강릉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에서 강릉불교환경연대 대표에 취임했다.



'불교사회복지학' 발간심포지움 개최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원장은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사회복지학 지침서> 발간 심포지움을 연다.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2월 20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여성불자 108인 선정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추대
前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완숙 회장은 1월 26일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 교육센터에서 열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신년하례식
서울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고정숙 원장은 2월 11일 오후 2시 요양원 시설에서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신년하례식을 진행한다.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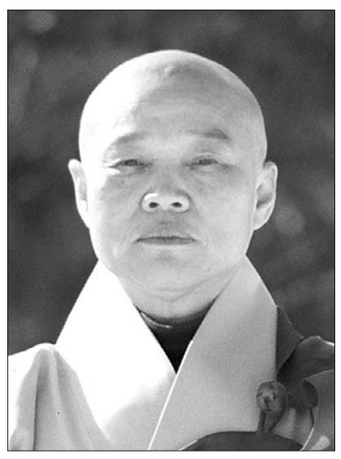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21일 종무회의를 열고 총무원 및 중앙전문종무기관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종무조정실장 백운 스님(前 교무관리실장) ▲기획부장 법경 스님(前 교임부장) **(임명)**▲종정예경실장 상허 스님 ▲중앙사정원 부원장 운담 스님 ▲중앙사정위원 월담 법련 경주 스님 ▲중앙초심원장 청봉 스님 ▲교무기획실장 동우 스님 ▲교임부장 여초 스님 ▲기획국장 효성 스님 ▲재무국장 진성 스님 ▲사회국장 법도 스님 ▲교육국장 성우 스님 ▲문화국장 보원 스님 ▲교임국장 세왕 전법사 **(중앙전문위원회)**▲교육위원장 수암 스님 ▲부위원장 도안 스님 ▲중앙사격조정위원장 운산 스님 ▲종책기획위원장 보용 스님 ▲법규위원장 혜공 스님 ▲위원 영우·혜명·서암·정담 스님 ▲부종결사위원장 보경 스님 ▲명인심사위원장 환우 스님 **(중앙전문종무기관)**▲중앙포교원장 대은 스님 ▲연구실장 송월 스님 ▲포교국장 법훈 스님 ▲중앙흥보원 흥보국장 혜철 스님 ▲중앙복지원 부원장 성파 스님 **(전통불교문예원)**▲원장 구해 스님 ▲부원장 일운 스님 ▲국제불교문화원장 법암 스님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혜원 스님 ▲문과대학장 박윤희 ▲법과대학장 방희선 ▲생명자원과학대학장 박정극 ▲산학협력단장 겸 기술이전센터장 이종태 **<경주캠퍼스>**▲에너지환경대학장 이계영 ▲인문과학대학 부학장 구본철 ▲산학연컨소시움센터소장 장익현 ▲학생상담센터장 김인홍

"동학학림 이뤄 새로운 경학의 장 펼칠 터"

동학사 승가대학장 취임한 해주 스님



"교수와 강주소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해주 스님(사진)이 현직 교수로는 처음 승가대학 학장(강주)이 됐다. 세간 사람들은 현직 교수가 강원 강주를 겸한다는 것이 화제지만 스님은 "본래 자리에 돌아온 듯 편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운문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사집 과정을 운문사에서 마쳤지만, 동학사에서 사교와 대교반을 마쳤다. 동학사는 스님의 제2의 고향인 셈이다. 이때가 1977년. 이후 서울로 올라온 스님은 1978년 동국대 입학 후 학생과 강사를 지냈다. 1990년 교수로 임용된 이래 지금까지 30여년을 동국대에 적을 뒀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경국사 등에서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문하에서 수학하며 전강 받았다. 해주 스님이 전해 받은 지관 스님의 강맥은 박한영 스님에게서 운허 스님을 잇는 강맥이다.

강원 교육에 대해 스님은 "단순히 경전을 연찬하는 과정이 아니라 올바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전통 강원 교육을 계승하면서 대학에서 익혔던 학문 연구방법을 보태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아끼지 않겠다는 스님은 첫 번째로 경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조 과목 개설 의지를 밝혔다. 전통강원 개혁과 동시에 '(가칭)동학학림'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평소 승가대와 동국대 등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스님들이 계속 공부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부도량'이 없던 것이 안타까웠다"는 스님은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수"라고 말했다. 스님이 추진 중인 동학학림은 이미 사중 스님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30여년 만에 돌아오니 학인시절 소중히 느끼지 못했던 것이 새록새록 생각난다"는 스님은 후배이자 제자인 학인들에게 "대중생활은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화엄의 선재동자, 보현의 문수동자처럼 초발심을 잃지 않고 불퇴전의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전법회관 건립기금·태안성금 전달

조계종중신회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1월 30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에 전법회관 건립기금 5억원과 태안 기름유출피해 성금 280만원을 전달했다.

김의정 회장과 구자선 고문, 손안식 부회장은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법회관 건립기금과 증서와 태안 기름유출 피해 1차 성금을 전달했다. 전법회관은 지난해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김의정 회장은 "전법회관이 여법하게 건립 돼 재가신도들의 전법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인사



최명준 前 진흥원 사무국장, 불교방송 전무
(재)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2월 1일자로 최명준 前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을 전무로 임명했다. 최명준 전무(61·사진)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 군종법사로 임관해 제1군 사령부 군승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불교환경연대 감사를 거쳐 월간 <불교와 문화> 편집인,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를 현재까지 맡고 있다. 최명준 전무는 1997년부터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불교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앞장서왔다. **김주일 기자**

지공당 정공대종사 원적



조계종 원로 지공당 정공대종사가 1월 26일 원적에 들었다. 세납 88세, 법납 58세.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월 30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원통사에서 봉행됐다.

1920년 11월 19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구룡리에서 태어난 정공 스님(사진)은 7세 때부터 '나무아미타불'을 염해 18세에 염불삼매를 경험했다. 성인이 된 후 선지식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스님은 29세에 해인사에서 근세의 선지식인 전강 선사(田岡永信, 1898~1974)를 만나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하게 된다. 곡성 태안사에서 비구계를 받았으며 전강 선사에게 '이뭣고' '판치생모(板齒生毛)' 화두를 받고 정진했다. 전강 선사에게 '정공은 오후사(悟後事)를 마쳤다'는 인가를 받기도 했다.

전강 선사 열반 후인 1975년 무주 원통사를 복원하고 장수 극락사를 창건했으며, 30여 년간 극락사에 주석해 왔다. 상좌로는 우담 성운 성월 진각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인 성관 스님 등 30여명이 있다. (063)323-2100 **여수령 기자**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신년법회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회장 정일태)는 1월 27일 직지불교대학 황룡사에서 회원 50여명이 동참한가운데 2008년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황룡사 주지 도일 스님은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하기위해서는, 언론인 불자는 자비가 깔려 있는 불자가 되어 참회의 기도로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원효종 경북 남교구종무원 현판식



대한불교원효종 경북남교구 종무원(원장 영운) 현판식이 1월 30일 경주 복원사 종무원에서 봉행됐다. 총무원 부원장 운오스님, 울산 종무원장 금봉 스님을 비롯해 종무원 종도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원장의 경과보고, 총무원장 축사, 교구국장 임명장 수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운스님은 "원효종도들의 화합된 애종심으로 종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사의 일심, 무애, 화쟁 정신을 받들고 수행정진하자"고 말했다.(054)745-3646 **손법천 대구지사장**

청주청원불교련·청주신행단체협 신년교례회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와 청주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상칠)는 1월 29일 청주 선택웨딩에서 무자년 신년교례회를 봉행했다. 대불청 충북지구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례회에는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 태고종 종무원장 원해 스님, 명장사 주지 화산 스님, 김현배 충북신도회장,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각의 스님은 "늘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라"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삼사순례 및 정월방생

본 용연사는 태조왕건의 기도처로 알려져오다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는 도량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왕건이 개성으로 진군할 당시 몸이 쇠약하여 이곳 서흥사지에 머물러 기도한 곳입니다. 도량앞엔 800만평의 호수가 있어 예로부터 방생터로 이름난 곳이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불편없는 용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20분내에 좌불상 각원사와 보탑사, 성불사, 광덕사로 삼사순례의 최적지입니다

안 내
- 방생터내 버스 100대 동시 주차가능
- 도량내 버스 20대 주차가능
- 사전예약시 무료공양 (별도공양비없음) 일주일전 예약
- 방생터내 상과향로촛대 설치, 스님좌복구비
- 외래어종방생금지
- 독립기념관 무료입장

■ 예약전화
041)554-8080

■ 오시는 길(방생터)
경부선 목천 TG → 독립기념관 → 용연저수지 대주차장

태조산 서흥사지 용연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240

2008년도 영남범음범패 및 작법무
제5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7년 3월 15일

무형문화재 제9호 혜륭 큰스님의 수제자이자 통도소리 어장을 맡고있는 청봉스님은 4세때 통도사 통도소리 어장이신 일호스님의 문하에 입문.
1999년부터~2001년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양산 통도사 상노전 직무를 역임하였고 통도사소리 보유자로써 부산불교교육대학에도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9호이신 혜륭 큰스님께 특별전수를 받아 수제자가 되어서 통도사 소리맥으로 작법무와 징,강쇠,북,호적까지 모두 지도하고 있다.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 : 토요일 오후 4시 회비 월10만원 (녹음기, 필기구 준비)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1개월)
(요령, 목탁치는법, 도량석, 새벽종성, 조석예불, 각단불공)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5개월)
(상용영반, 종사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다비문(초상집염불))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1년)
(범패, 징, 강쇠, 북, 호적(태평소))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3년)
(점안식,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등 모든 과정)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회비 월10만원

◇ 자 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사찰의 규모가 큰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 전통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 광 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멈추고 바라보고 '나' 찾는 춤~



금산사 춤 명상 템플스테이

전날 살짝 내린 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다는 김제평야를 살포시 덮었던 1월 29일. 최근 통합의학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춤테라피와 불교 명상의 접목을 시도하는 이색적인 템플스테이가 열리는 김제 금산사 서래선원을 찾았다. 춤 명상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수시로 바뀌는 음악에 맞추어 느릿하게, 흐느적거리며, 격정적이고, 신명나는 몸짓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느낌들을 표현했다. 온갖 긴장과 억압, 자학과 죄책감,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엉킨 마음속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놓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춤테라피와 명상을 결합한 금산사 '춤명상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우는 행복을 만끽하고 '잘 사는 법'을 터득했다.

"♬♬~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
마치 어린이들의 놀이처럼 경쾌한 리듬에 맞춰 흥겨운 몸짓으로 움직이다가 "stop(멈춰)"이라는 지도 선생님의 구령에 갑자기 멈춰 선다. 장내는 정적에 휩쌓이고 그 순간 참가자들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음악과 몸짓으로 마음을 통일해 멈춰서는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보는 바로 관조의 시간이다.

#마음을 여는 시간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나는 기분이 좋아요, 혹은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쓰인 명찰을 달고 있었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그러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휴식시간에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러나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갑자기 한 참가자가 말문을 열자마자 서럽게 대성통곡 한다.

"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멈추어서는 순간 내가 어딘가에 푹 빠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생각이 부질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 되는 시간

두세 명씩 무리지어 서로 손바닥을 마주하고 한사람은 상대방을 인도하고 한사람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긴다.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아주 느리게 머리위로 무릎아래로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을 맡기며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고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고 자신의 참 본성을 본다. 다른 참가자는 이들의 몸짓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다. 소리, 동작, 마음을 통해 바로 타인의 몸짓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느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금산사 춤 명상 템플스테이를 지도하는 심리치료사 김용량 소장(38 · 그루지예프연구소)은 춤을 춤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며 "몸짓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춤을 추면서 자기 내면을 표현하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를 표출하면서 격한 감정을 정화시키고, 몸으로 드러난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갈등, 마찰, 저항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몸과의 재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돌아보고 찾는데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 전남 해남에서 왔다는 마승미(38)씨는 "처음해보는 새벽예불이나 발우공양이 어색했지만 산사체험과 춤 명상의 접목이 아주 좋았다"며 "정적인 참선과 명상을 해보았지만 온갖 망상으로 적응이 쉽지 않았는데 춤 명상을 통해 빠른 시간에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을 느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참가비를 마련했다는 충남대 박아름(23 · 서양학과 3학년)씨는 "여러 번 망설이다 참가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참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내재돼 있던 자신을 다른 참가자들이 이야기해주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동생과 함께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춤 명상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일감 스님(금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은 "우연한 기회에 접한 춤 명상이 불교의 지관 수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한다.

"정서 회복은 불교를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만과 독선에 가득 찬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찾는 것이 산사체험의 목적입니다."

일감 스님의 설명은 금산사 산사체험의 모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깨어있는 휴식' '수행이 삶을 바꾼다'와 맞닿아 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주제처럼 산사체험과 수행을 겸비한 템플스테이로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 스님의 목표다.

"세상사의 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타인을 위해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하는 참가자들의 말처럼 내면의 작은 몸짓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구도여행의 큰 걸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글=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진=박재완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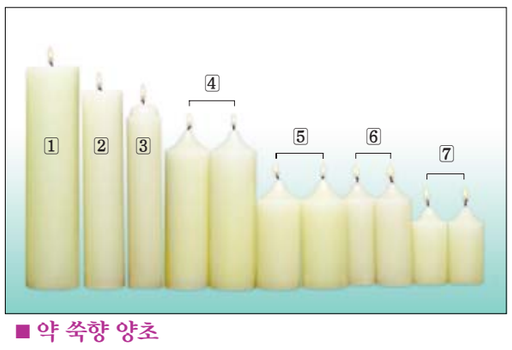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외래 정복자들도 감화시킨 佛法

얼마 전 알렉산더 대왕의 기원전 334년 인도원정을 다룬 한 다큐멘터리를 보자니, 당시 그의 측근 참모들은 장기간의 정복전쟁과 끝없는 대량살육행위에 극도로 지치고 분개한 나머지 역모 쿠데타를 꾀했던 듯하다. 그 일촉즉발의 정황을 눈치 챈 그는 상당수의 병력을 점령지인 인도의 북서부와 외곽지역에 남겨둔 채 서둘러 철군한다. 그리고 현지에 잔류하게 된 지중해연안 출신의 점령군들은 여러 도시들을 건설, 현지인과 혼인 정착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찬란한 헬레니즘 문명과 심오한 인도문명을 상호 교류시키는 가교 역할도 떠맡게 된다. 그때가 여래께서 사바세계에 다녀가신 후 200년 즈음으로, 당시 불교는 힌두교, 자이나교 등 인도의 토착종교들 틈에 끼어 그다지 큰 영향권을 형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대에 박트리아 왕조 등을 창건한 외래 정복자들은 현지 토착민들보다 오히려 더 불교에 심취, 마침내 간다라문화라는 역사적인 동서혼성문화를 창출해낸다.

곧이어 그들은 알렉산더 대제국의 심장부인 현 그리스, 이라크와 이란 등 페르시아지역, 터키와 발칸반도 등 지중해 연안, 현 리비아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일대, 심지어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등지까지 대대적인 국제전법을 펼쳐 지금껏 그 희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문화든 종교든 민족이든 그 앞에 '순수'라는 낱말을 덥석 갖다 붙이는 건 참으로 딱하고 아슬아슬한 일이다.

그런 전제하에, 순수할 겨를도, 순수해야 할 까닭도 없이 수시로 진화해온 한국불교의 발전사를 잠시 되짚어보자.



불교는 동양문화권으로 전파되며 기존의 사상과 문화를 융합하며 발전했다. 용과 관련된 신앙은 불교와 융합된 동양전통의 대표적 사례다. 사진은 우리나라 사찰(청원 안심사)에 그려진 운룡도.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오래전 우리 토착신앙과 외래종교문화가 곱게 접목이 되어 맺어진 열매다. 사실 불교는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중국적 버전이 농후했다. 즉, 중국의 제자백가를 비롯한 도교의 무위자연사상이 인도에서 도래한 불교철학의 연기론 등과 신축적으로 상호 보완되었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첫 번째 원융은 중국불교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우리 기존 토착무속신앙과 두 번째 혼융으로 이어지며, 다시 삼국통일시기에는 간다라예술로 표상되는 그리스 박트리아 형 불교와 세 번째 아우른다.

이어 고려 때는 막강한 몽골제국의 힘에 편승한 티베트 불교와 네 번째 혼융이 이뤄진다. 이런 개괄적 구분은 굳이 학술탐구가 아니라도 불교사에 관심이 있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에 속한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란 말은 듣는 이에 따라 미묘한 화두거나 혹은 자못 낭만적 여정으로 들릴 수도 있다.

아무튼 석가세존 이후 28대 조사이던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떠나 중국불교의 초대조사가 된 것이 6세기며, 불교가 한반도에 완전히 정착한 것은 그보다 더 뒤의 일이다.

그런데 인도 통일의 영웅이자 불법전파의 대왕 아소카가 파견한 전법사절단은 지중해연안을 향해 서쪽으로 떠났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때보다 무려 800여 년이 앞선 기원전 2세기경의 일이다.

출처:종교적 진실, 알렉산더와 동방원정, 그리스 박트리아 왕조, BBC, 기타 / 편역:성휴 스님

티베트 시가테 노승 자살 논란

티베트의 제2도시인 시가테에서 작년 9~11월경부터 퍼진 두 노승의 자살 소문이 금년 올림픽을 앞둔 중국 내 인권문제와 맞물려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각각 71세의 걀첸 체파와 양파로초는 중국이 폐위를 시킨 제11대 판첸라마의 열성 지지자였다. 현재까지 그들의 자살동기가 전혀 밝혀지지 않아 국제사회의 의혹이 증폭, 급기야 중국정부는 1월 17일 최소한 사망사실만은 공식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출처:ABI

콜로라도 주 의회서 힌두 기도회

콜로라도 주 의회는 1월 29일 저명한 힌두교 성자인 라잔 제드가 2008년도 개회를 축복하는 힌두 기도를 올린다고 발표했다.

불교의 대표적 상징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는 1861년 주 의회 개회 이래 최초로 기독교 형식에서 풀려난 것이며 영어로 동시통역이 된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등에서 비기독교 종교지도자들의 공식집전은 실시 중이나 이처럼 의회에서 축도를 하는 것은 종교적 기회균등의 새로운 시발이다. 출처:CSA

美 남부 불교단지 신축허가 청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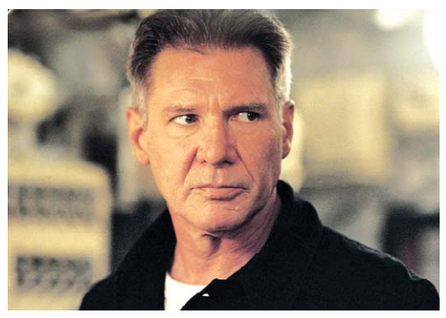
미국 메인 주의 벅스턴 사회기획위원회는 1월 22일 자연환경이 뛰어난 남부 외곽지역의 불교단지 신축허가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가졌다. 현지 주민들은 생필품 매장과 단독주택을 겸한 다용도 불교단지의 건설을 신청했던바, 이번 청문회는 향후 지역사회 내 마찰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조율의 시도로 보여진다. 출처:IBC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00

"오늘의 박수갈채도 내일엔 과거일뿐"

월드 스★타 불심 도 스★타

해리슨 포드 ❷



"인기란 덧없는 것이다. 오늘의 박수갈채가 내일엔 과거지사일 뿐이다." 누구든 잘 알면서도 곧장 받아들이긴 어려운 제행무상을 이처럼 쉽게 풀어 말한 해리슨 포드처사님은 194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백러시아의 유태계로 한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우를 했고, 아일랜드계인 아버지는 배우를 하다가 광고회사를 운영했다. 그 시절이 이미 60~70년이 지난 옛날임을 감안하건대, 그들은 아마도 진취성향이 다분했나보다. 그래저래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자유분방한 기질과 끼를 한껏 물려받은 셈이다. 고교시절 내내

할리우드 구석구석 오가며 자아성찰
'스타워즈' 출연 후 세계적 스타 도약

어눌하게 홀로 지내던 그는 리펀 대학에 들어간 후 본인의 말대로 여자 친구나 좀 사귀어 볼까하고 여학생 수강생들이 특히 많은 드라마 강의실을 들락거리다가 그마저 별 재미를 못보고 아예 학교를 그만뒀다.

스스로 '굼뜬 늦깎이'라 일컫는 그는 그 후 하찮은 단역에도 만족하며 할리우드의 구석구석을 바지런히 오갔다. 할리우드 불자들이 대개 한두 번은 겪었던 자아성찰의 만행 길을 더듬은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꾸준함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그는 1970년대 대 히트작이자 불교철학의 집대성이라 공인된 평가를 받는 영화 '스타워즈'에 출연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

그 작품의 불교적 특성으로 인해 당시 미국의 수많은 개봉관들은 '극장 사찰(Theater Temple)'이라 부를 만치 대성황을 이루며 엄청난 흥행성공을 거뒀다.

조지 루커스 대법사님의 일생일대 걸작인 이 작품은 특히 미국은물론 세계적인 전법에 있어 가히 불교혁명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이 영화에서 한 솔로의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냄으로서 스타덤을 향한 가도에 성큼 들어섰다.

사춘기의 친구들 사이에 멋대가리 없는 머저리로 통하던 그가 장래에 가장 성공할 인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해리스 포드처사님은 앞서 꿰뚫어보듯 늘 이렇게 말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게 마련이다." 게다가 그는 그 첫 번째 기회를 다음 기회를 향한 도약대로 활용,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전설적인 주인공이 됐다.

"대개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제대로 된 기회"라고 말한 그 자신의 예언이 또다시 절묘하게 적중한 것이다. 이후 줄줄이 이어진 '에어 포스 원' '의혹' 등 히트작으로 그는 할리우드 최고 명우로 명성을 굳힌 동시에 주체하지 못할 만큼 돈더미에 앉았다.

그는 이젠 더 이상 여학생들을 사귀어 볼까 하고 어슬렁거릴 필요도 없이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교 도반이자 공전의 히트작인 '이티'와 '쿤둔' 그리고 '검은 종마' 등의 대본작가로 유명한 멜리사 매디슨과 결혼했으나 20년 만에 헤어졌다. 세상에 그런 이혼남을 마다할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만, 그는 아직까진 추문이 없는 대스타 중 하나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hen he sleeps, he sleeps. When he eats, he eats."

—주무실 땐 오로지 주무시고, 공양 드실 땐 공양만 드시지

One disciple bragged about his master to the disciple of another master. "My big master is capable of all sorts of magical acts, like writing in the air with a brush, and having the characters appear on a piece of paper hundreds of feet away. And what can your small master do?"

"My small master as you put can also perform amazing feats," the other student grinned. "Ha, don't tell me! what?" He replied quietly "When he sleeps, he sleeps. When he eats, he eats."

한 학승이 다른 문하의 학승에게 자기 스승의 자랑을 늘어놨다. "우리 큰스님께선 온갖 요술 마술 비술이 끝내 주신다구. 붓으로 허공에 휙휙 글씨를 쓰셔서 수백 걸음 떨어진데 있는 종이 위에 샤악 나타나게도 하시지. 근데 니네 작은스님은 하실 수 있는 게 뭐야?"

그러자 다른 학승이 빙긋 웃었다. "자네가 말하는 우리 작은스님께서도 대단한 일들을 하셔." "흥, 설마! 그게 뭔데?"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 작은스님께선 주무실 땐 오로지 주무시고, 공양을 드실 땐 오로지 공양만 드시지."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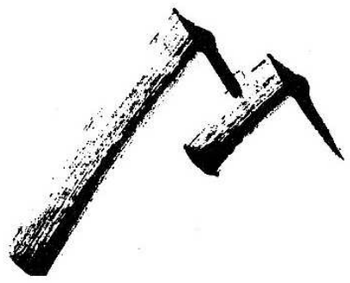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외로운 영혼들을 위한 천도법회



www.begood05.com
(이산선원)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 8시
부산 영도 중리 해변
010-4138-9705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선지식을 찾아서 지안

마음 속 부처 씨앗 싹 틔울 수 있길…

바른 마음으로 서원 세우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긍정적인 각오를 가져야 원 이룰 수 있어



지안 스님 (은해사승가대학장)

10회 맞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
여래장사상 뒷받침한 〈승만경〉주제로 법문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두 가지 원(願)을 세운다. 자신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다짐하는 원과 약속은 그러나 유효기간이 짧아 길어야 두세 달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서원이라야 원을 이룰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부처님 당시 인도 코살라국 바사닉왕의 공주 승만부인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난 후 10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계를 범하지 않고, 바른 법을 깊이 새겨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서원이다.<아래 표 참조> 이어 승만부인은 모든 곳에서 정법의 지혜가 얻어지고, 이를 싫증내지 않고, 목숨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正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처님은 "세 가지 큰 서원은 일체의 물질이 모두 공계(空界)에 들어가듯이, 이와 같이 황하의 모래 같은 모든 서원이 모두 다 이 세 가지 큰 서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서원은 진실로 광대한 것이다"하고 승만부인에게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내린다.

승만부인이 세운 '모든 서원이 다 섭수(攝受)되는 큰 서원'이란 무엇일까? 승만부인이 세운 '한 가지 큰 서원(一乘)'의 참뜻을 알기 위해 1월 26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 현장을 찾았다. 이날 10회를 맞은 강설대법회에서는 은해사승가대학장 지안 스님이 <승만경>을 주제로 법문을 펼쳤다. 이 시대 대강백 지안 스님은 지난해 4월 28일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2010년 3월까지 이어지는 3년간의 법회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경전 36권을 선정해 매월 1회 강의하며 경전의 기본 사상을 설하는 자리다.

지안 스님은 "<승만경>은 우바이의 교본(敎本)이라 할 수 있는 경전"이라며 "<승만경>에 나타나는 승만부인의 서원은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보살 교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만경>의 원래 제목인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은 '승만부인이 일승(一乘)의 대 방편을 널리 펴기 위해 사자후를 했다(법을 설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승만부인은 친정 부모의 권유로 발심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신행의 자기 원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전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를 현실생활에 회향시켰다는 점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론에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 · 회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스님은 승만부인의 서원을 어떻게 오늘날 이어 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했다.

"불자들에게 승만부인처럼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원을 세우라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처님처럼 살라고 하냐'며 세상 탓을 합니다. 의지가 나약하고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불자들이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중생이지만 나의 근본 바탕은 부처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승만부인이 설하고 있는 '여래장(如來藏) 사상'이 바로 이러한 이치를 말합니다. 승만부인의 서원을 보십시오.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서원입니다. 불교는 실천입니다. 교리를 알고 참선과 염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멀리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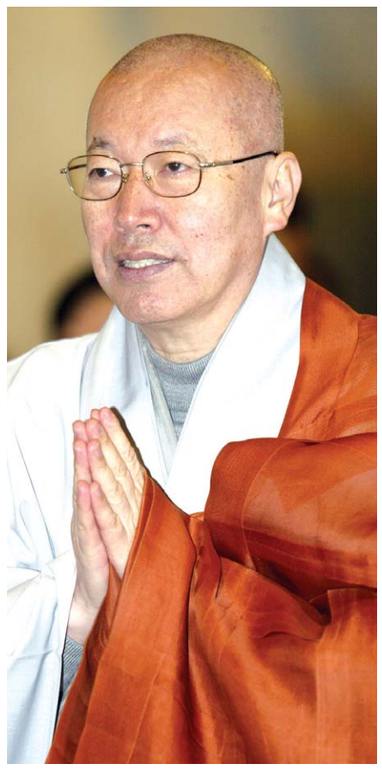
바른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각오를 먼저 가져야 원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스님은 <승만경>에 설해진 여래장 사상에 대해 설명했다.

"<승만경>은 여래장사상의 체계를 세우는 뒷받침을 한 경전입니다. 여래의 씨앗,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래장 사상입니다. 중생의 생사(生死)도 여래장에 의지한 것이며, 여래장이 있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 있으며,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자성 청정의 여래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불의 길임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만부인이 세운 서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장렬한 의지를 드러내 놓은 서원입니다. 올바른 진리 곧 정법을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을 조복 받도록 하겠다는 마지막 다짐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매우 깊고 큰 것입니다.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야기되는 어떠한 법난(法難)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자적 정신으로 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만부인의 지극한 서원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려, 여래장이라고 하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싹트게 하며, 또한 여래장의 불씨를 점화해주는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승만부인이 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지안 스님은 "<승만경>의 가르침을 되새겨 부처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수지(受持)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내 안의 부처 씨앗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합천 해인사/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지안(志安) 스님은 요산 지안(樂山 志安) 스님은 1947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해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승가대학에서 중강(부교수)을 시작으로 후학 양성에 나섰다. 1978~88년 통도사 강주를 역임하는 등 이어 30여 년간 제방 강원에서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2001년 11월부터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제3대 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은해사 승가대학장이다.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신심명 강의> <기초경전 해설> <금강경 이야기-머무름 없이 살라> 등이 있다.

승만부인의 10대 서원

① 계를 범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② 어른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③ 모든 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④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⑤ 모든 것에 대해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⑥ 나만을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으며, 무릇 받는 것이 있다면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성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⑦ 자신을 위해서만 사섭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애욕에 물들지 않는 마음과 걸림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겠습니다.
⑧ 고독한 사람, 갇혀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등 고통과 재난을 당한 사람을 편안히 의리로써 이익 되게 하여 온갖 고통을 벗어나게 한 뒤에야 떠나겠습니다.
⑨ 살아 있는 짐승을 붙잡아 기르거나 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제 힘이 닿는 데 까지 그들을 타이르고 거두어 나쁜 일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바른 법을 깊이 새겨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 / 역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 법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법문이 전국 선원에서 열립니다.
* 서울선원 – 매월 첫째 일요일(3월 4일) – 선가귀감
* 광주선원 – 매월 셋째 일요일(2월 17일) – 선문염송
* 부산선원 – 매월 넷째 일요일(2월 24일) – 반야심경

서울 02-3494-0122 / 광주 062-944-4088 / 부산 051-545-2460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찬불가도 신행의 일부…음악법회 활성화 돼야”

데스크 초대석

오느름국악관혁악단
김희경 단장



“찬불가 자주 부르세요?”
20년 혹은 30년 절에 다녔다는 불자라 할지라도 이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을 못한다.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불가는 몇 곡이나 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기지다. ‘내가 아는 찬불가는 몇 곡이나 되지?’ 생각을 가다듬고 헤아려 봐야 한다. 물론 대부분 다섯 곡을 넘지 못한다.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 등을 외운다면 찬불가도 ‘삼귀의’ ‘사홍서원’ ‘찬양합니다’ ‘보현행원송’ ‘청법가’ 등 법회에서 상용하는 몇 곡 외에 애창곡을 꼽기 힘들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찬불가가 불자들의 신행 생활 깊은 곳에 닿아있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법회에서 특정 의식곡 외에는 부를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찬불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또 새로운 찬불가를 만들고 전파하는 조직적 기반도 약하고 찬불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사찰합창단과 일부 음악인들의 노력으로 찬불가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찬불가는 음악을 통해 불보살의 공덕과 가르침을 찬탄하고 교리를 배우고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훌륭한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불가는 여전히 포교현장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1991년에 창단되어 불교음악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오느름국악관현악단의 김희경 단장도 열악한 찬불가의 무대에서 외롭게 ‘사명감’을 지키고 있다. 지난 20여 년 불교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달궈져 온 그의 지휘봉은 ‘불밭에 피는 꽃’ ‘혜초’ 등 국악 교성곡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깊어라’ 등 찬불 음반, 수 십 곡의 실내악과 찬불동요 및 가요를 생산했다. 조계사와 진각종 등 종단과 사찰 합창단을 지도하고 직접 지휘하는 등 불교음악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김희경 단장에게 찬불가에 ‘미래’는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찬불가의 토양(土壤)은 어떻습니까?
불교의 경전을 하나의 문학이라고 말하기도 하듯, 음악적 측면에도 운율을 갖춘 게송들을 찬불가의 연원(淵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천상인들의 주악과 여러 보살들의 찬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받드는 대중의 환희심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찬불가의 역사는 부처님 재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신라 때 진감국사가 당나라에서 범패를 들여와 지금의 쌍계사에서 전승시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향가라는 형식의 문학도 충분히 찬불가의 기능을 했을 것이지만 충분한 고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흥성했던 고려시대를 거쳐 억불의 시대라고 하는 조선조에서도 사찰의 재(齋) 의식은 전승되어 왔습니다. 진감국사 이후로 전승되어 온 범패 음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한국불교에 있어 찬불가의 토양은 매우 비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현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찬불가를 전통불교음악과 창작불교음악으로 나눌 때, 창작 찬불가의 출발은 백용성 스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불교 선농일치를 주창했던 용성 스님은 1927년부터 풍금을 치면서 찬불가를 불렀고 보급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기존의 악곡에 가사만 바꿔 부르는 정도였지만, 불교음악이 의례와 의식에서 벗어나 불자들의 생활로 접목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개념의 찬불가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확대되어 운문 스님 등 스님들과 최영철 반영규 선생님 등 재가자들의 창작 찬불가들이 법회에서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찬불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지요?
불교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찬불가를 양산하고 그것을 전국의 불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음악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만한 시상제도라든가 공연지원의 틀도 거의 없습니다. 사찰의 합창단도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지휘자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땅이 메말랐다고 해서 씨뿌리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겨울 조계사에서 음악법회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찬불가의 역사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함께 노래 부르는 방식이었는데 참가한 불자들이 매우 좋아 했습니다. 찬불가를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신심이 솟아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찬불가의 확산 인프라만 건강해 진다면 신행 패턴을 현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양질의 찬불가 양산·전파할 수 있는 인프라 ‘열악’
불교음악 공연 활성화·전문음악인 처우 개선 시급

–좋은 찬불가란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행과 포교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자들이 편하고 즐겁게 부를 수 있어야겠지요.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완성도 높은 실내악이나 교성곡 등 대형음악도 필요합니다. 찬불가도 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골고루 창작되고 공연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합니다.

–찬불가가 신행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데…
조계사의 경우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에 합창단이 있고 지휘자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합창단과 함께 법회에서 시간을 내어 찬불가를 지도하고 생활 속에서 찬불가 부르기를 독려한다면 불자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불자의 삶이 즐거워지고 밝아지면 그것 이상의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회에서 의식곡 이외의 찬불가를 배우고 찬불가 부르기를 생활화 한다면 신행과 포교와 불자간의 화합에 그만한 ‘영약(靈藥)’도 없지 않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신나는 일이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스님과 불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찬불가는 유흥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법을 공양하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신행의 일부라는 생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법회에서 반드시 찬불가를 부르고 배워야 합니다. 이 부분이 스님들이 마음을 바꿔야 할 부분이라면 불자들은 찬불가 부르기 모임도 만들고 집에서도 즐겁게 찬불가를 불러야 합니다. 사찰 합창단은 일반 불자들보다 전문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새로운 레퍼토리를 꾸준히 받아들이고 늘 새로운 곡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행현장에서 찬불가가 활성화된다면 전문 음악인들의 창작의욕도 고취될 것이고 전문 악단의 활동도 힘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문 음악인들의 창작과 연주가 신행현장을 부양하지 못했는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행현장에서 불교음악이 ‘인기’ 있어야 창작의 수준이 올라가고 공연의 기회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사찰 합창단이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발표회를 자주 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불자들은 불교음악 공연이 열리면 ‘공짜표’가 아니면 잘 안가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풍토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뛰는 입장에서 말하기 좀 어색하지만, 전문음악인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불자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코드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음악인들 역시 정당한 예우를 할 때 좋은 작품과 정열적인 지도가 뒤따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불교음악을 이끄는 두 축이 ‘한국불교음악협회’와 ‘삼보불교음악협회’인데 두 단체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각자의 길을 개척하고 뛰느라 함께 손을 잡고 연구하고 공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은 한결 같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의 지도자들과 지휘자 성악가 등 주요 일꾼들이 모였고 한 자리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공연장에서 두 단체가 공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신작 찬불가도 다수 발표될 예정인 이 공연이 한국불교음악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음악법회’를 하는 사찰이 늘어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음악법회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작 음반(작곡집)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 ‘대장금’을 부른 박애리씨의 앨범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대 김만중 교수와 뮤지컬 ‘원효’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최대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글=임연태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준비된 자 기회를 얻고 노력하는 자 시간을 번다

나의 살아온 나의 불교학

이평래 교수



등록금이 없어 대학원에 진학 못하고 학원강사를 했다. 직장생활하면서도 영어·일어만은 놓지 않았다. 학부시절 미국 유학이 가고 싶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김동화 박사 연구실의 빼곡한 일어책을 보며 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동국대가 일본 고마자와(駒澤)대학에 보낼 유학생을 구할 때, 일어를 잘했던 나는 일본 유학을 가게 됐다. 37세에 떠난 유학생활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시골 초등교사였던 나를 불교학자로 키운 것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외국어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평래는 없었다.

1940년 전북 임실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넉넉지 못한 형편에 전주사범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전주북중 동기들은 전주고를 거쳐 서울 명문대로 진학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나만 전주고가 아닌 사범학교로 갔다. <철학개론> 수업을 듣던 중 실존철학을 배웠다. 전후 1950년대는 실존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하는 의문에 선생님은 이미 불교에서 다뤄진 것이라 했다. 참선 1주일만 하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 했다. 어린 시절 불교에 대한 내 관심은 그렇게 시작됐다.

초등교사 시절이다. 서울 명문대로 진학한 친구들이 내게 상경을 권유했다. 서울에 올라오면 과외하며 돈 벌어 대학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학공부가 하고 싶어 20대 초반에 교사직을 버리고 상경했다. 입주과외 덕에 하숙비, 학비, 용돈 모두 해결됐다. 막연히 동경했던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 '불안'에 대한 의문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학부를 마치고는 형편이 어려워져 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직장생활을 8년여 했을 때다.

1976년. 내 나이 37세. 집사람과 아들, 딸을 데리고 유학길에 올랐다. 집사람은 직장생활 하며 가장이 돼 애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렸다. 나는 운 좋게도 네 개의 장학금을 받았다. 교환학생으로 받는 것 외에 전주사범학교를 나온 일본인 선배들이 장학금을 줬다. 재일조선인들이 출연한 조선장학금을 받았고, 로터리 클럽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았다.

덕분에 나는 공부에 매진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남보다 늦게 유학길에 오른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다. 오직 제대로 불교학을 배우겠다는 일념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하지만 나이 든 내가 젊은 친구들보다 시간을 길게 쓰는 방법은 노력하는 것뿐 이었다. 그런 나를 두고 당시 친구들은 "이평래를 찾으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말도 했다. "유학생 중 이평래가 가장 먼저 학위 받을 것이다"는 말도 있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문들 때문이었을까? 박사학위도 받지 않았던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충남대에서 교수채용 제의를 해왔다. 나는 학위를 마치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은사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 교수는 흔치않은 기회라며 귀국 후 논문을 쓰라고 권유했다.

> "'철학개론' 수업중 불교 관심 시작
> 불교학을 제대로배우겠다는 일념"

1982년 충남대 교수임용까지 6년 유학생활을 했다. 일본에 와서 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어학기초가 탄탄히 다져져 있었다. 초기불교 연구자들은 빨리어를, 대승불교 연구자들은 산스크리트어를 했고, 선학 연구자들은 한문경전에 숙달돼 있었다. 모두 소설처럼 경전을 읽을 수 있었다. 동국대에서 영어·일어만 했던 나는 그들처럼 할 수 없었다. 다행히 한문경전 해석만은 뒤지지 않았다. 인도 뿌나대에 유학해 산스크리트어에 유창했던 은사는 '<보성론> 중심의 여래장사상'을 전공했지만, 나는 '<대승기신론> 중심의 여래장사상'을 전공했다.

여래장을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 자료목록을 일일이 검색했다. 그렇게 찾은 자료를 복사해 '여래장 관련 논문 컬렉션'을 만들었다. 모아진 논문 편수만 700여편이다. 다카사키 교수가 여래장사상 관련 자료는 당신보다 내게 더 많이 있다고 할 정도였다. 인도학불교학회에 발표할 원고를 들고 찾아간 내게 은사는 글씨 하나하나를 수정해 줬다. 하지만 내용은 손대지 않았다. 외국인으로서 문법이 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했다.

하지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당신 사상을 내게 발표시키는 것이라며 경계했다. 간혹 틀린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게 하는 것이 내 은사의 교육법이었다.

내게는 은사가 한분 더 있다. 당시 도쿄대 교수신분으로 고마자와대에 출강하던 다카사키 교수는 규정상 지도교수로 모실 수 없었다. 그래서 미즈노 코겐(水野弘元) 교수가 지도교수다. 불교는 종교성과 철학성이 공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누구보다 잘 실천한 분이 미즈노 코겐 교수였다. 미즈노 교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참선을 했고, 6시부터는 1시간동안 공원을 걸었다. 104살에 작고하신 그 분은 100살까지 논문을 집필했다. 이분의 삶은 종교성과 철학성이 공존한 참된 불교학 자체였다. 문화는 모방이라 했던가? 내 생활은 수행과 학문이 둘이 아니었던 미즈노 교수의 영향이 크다.

200가지 이상의 요가동작을 하는 나는 불교 핵심에 요가가 있다고 본다. 참선은 요가의 부분이다. 1989년 인도 네루대에 가서 요가 전적을 읽었다. 요가는 과학이었다. 합리적·도덕적·종교적이었다.

아침이면 나는 절을 한다. 전신운동이면서 호흡과 마음을 통일하는 절은 단순 예배가 아닌 선이다. 일어설 때 숨을 들이 쉰다. 엎드리면서는 "옴~"하면서 숨이 다할 때까지 몸속의 공기를 다 내보낸다. 출장가도 할 정도로 일상이 된지 오래다. (숨을) 내보낸 만큼 (신선한 공기로) 채워진다.

요즘 나는 불교사에 심취해 있다. 세계사상사와 문화사 종교사 등도 두루 살핀다. 세계사를 겸해야 인류 문화의 큰 틀에서 불교를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불교가 연구된다. 다양한 학문과 언어로 보고 듣고 표현하는 자세가 불교를 세계화시킨다. 세계 속 불교는 바로 불교의 세계화를 뜻한다. 이것이 불국토 아닌가?

나는 불교학을 순교학이라 부른다. 하지만 배출된 불교학 박사가 국내에서 300명, 해외출신 200명이다. 이들은 전공을 활용해 생활할 기반이 없다. 나도 43세에 교수임용되기까지 백수였다. 순교정신을 갖고 인내하지 않으면 불교학을 할 수 없다. 출가·재가 힘을 합해 배출된 학자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인프라를 갖추는 것 또한 인재불사다. 불교학이 더 이상 순교학이 아닐 그 날을 나는 꿈꾼다.

정리·사진=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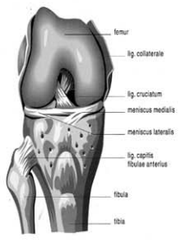
이평래 교수는 1940년 전북 임실 출생. 충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대승기신론연구>와 <신라불교여래장사상연구>를 주제로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유학했다. 2008년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대회장이다. 한국불교학회를 사단법인화 해 학회 운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학자적 양심에서 공부하겠다는 제자들을 동국대나 유학 가라고 권유한 탓에 박사 제자가 없다. 인도 델리대에서 공부한 아들 이용주 박사(원각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가 대를 이어 불교학을 연구한다. 정신과 의학박사인 며느리와 심리학을 전공한 딸과 함께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일가를 이뤘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불이중도의 가르침 간결한 언구로 설득력 있게 설명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바로 깨치는 길 안내

중국 선불교의 초기를 대표하는 달마 스님과 지공 스님. 달마 스님의 제자들이 선맥을 융창시키며 확고한 일가를 이룬 반면 지공 스님의 선맥은 분명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던 달마 스님의 법을 상승한 제6조 혜능 스님이 지공 스님이 소의경전으로 삼았던 <금강경>을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삼아 오늘의 한국 조계종에 이르고 있다.

그런 '족보'와 상관없이 중국 선종의 수행자들이 가장 애송한 두 종류의 텍스트가 달마 스님의 손자뻘인 제3조 승찬 스님이 지은 <신심명(信心銘)>과 지공 스님의 <대승찬(大乘讚)>이다. <신심명>은 4언 146구 584자로 구성된 명쾌한 시다. <대승찬>도 6언 2구를 한 수로 하여 총97수 197구로 이루어진 깨침의 소식이다. 지공 스님이 지어 양 무제에게 바쳤다고 전하는 <대승찬>은 '분별해 볼 수 없는 마음'을 곧장 가리켜 주려고 하는 선종의 종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대승찬>은 제목 그대로 대승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불이중도(不二中道)의 가르침을 간결한 언구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것이 <대승찬>의 매력이다. 중국의 선종은 대승불교를 가장 접근하기 쉽게 발전시켜 가장 쉽고 빠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승찬> 역시 부드럽고 간결한 언어로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대도상재목전(大道常在目前)
수재목전난도(雖在目前難覩)
약욕오도진체(若欲悟道眞體)
막제선색언어(莫除聲色言語)
큰 도는 늘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도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소리 색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대승찬>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도무난(至道無難)…'으로 시작되는 <신심명>이 첫구절에서 대의를 다 포함하고 있듯, <대승찬>도 이 첫 구절에 전문의 대의가 함장 되어 있다. 번역 해설한 김태완 원장(부산 무심선원 · 사진)은 특히 '목전(目前)'의 뜻을 바르게 깨칠 것을 강조한다.

"눈앞이란 말은 '일이 목전에 닥쳤다'란 표현이 있듯이 시간적으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이고 공간적으로는 내가 직접 보고 있는 '바로 여기'란 뜻입니다. 따라서 대도란 것은, 마음이란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바로여기, 내가 지금 깨어 있는, 내 존재가 있는 이 자리란 말입니다."

<대승찬>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를 바로 깨치는 길을 안내한다. 그래서 유위의 허상에 얽매이지 말고 무위의 진실을 바로 보아 해탈자재 하라고 가르친다. 모두 17회로 나누어진 김태완 원장의 강의를 정리한 텍스트는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보태는 힘을 갖고 있다. 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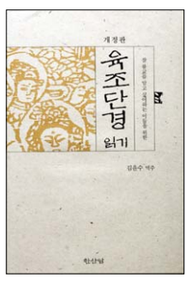




禪으로 읽는 대승찬
김태완 번역 해설
침묵의 향기 펴냄|1만4000원

'단경'의 전모 파악할 수 있어

육조단경 읽기 김윤수 역주|한산암 펴냄|1만5000원



현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가 본격 불교 경전 주해서를 냈다. 불교단체에 신도로 등록한 바도 없으며, 법회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아 불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저자는, 그러나 불교는 우리 삶의 구조와 원리를 분명하게 일러준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무지(無智)가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이고, 우리가 본래 가진 지혜를 써서 실상(實相)을 직시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광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불교의 참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입문서를 대보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자가 이 책의 집필에 뛰어든 동기다.

저자는 "우리는 부처다.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재물이 많든 적든, 늙었든 젊었든, 우리가 그 성품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욕망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속박할 수 있겠는가"라는 육조 혜능의 말이 불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요체라 판단하고, 용어 풀이와 불교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육조단경> 주해서를 내기로 했다. 게다가 <단경>은 꽤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 담고 있으니 입문서로서 안성맞춤이겠다는 저자의 판단도 있었다.

이 책은 불교의 참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단경>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500항목에 달하는 기초지식과 용어풀이를 광범하게 곁들여 주해함으로써 초심자도 불교의 요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철 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을 비롯한 기존의 돈황본 번역본들뿐만 아니라 돈황본 이후에 간행된 다른 주요 판본들까지 망라해 비교 검토함으로써 <단경>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해 놓았다. 오랜 세월 법조계에 몸담아 온 저자의 이력에 걸맞은 주해의 치밀함이 기존 <단경> 주해서와의 차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김주일 기자

자신의 번뇌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 보여줘

박노자의 만감일기 박노자 지음|인물과 사상사 펴냄|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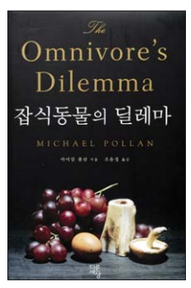
한 소년이 '위대한 조국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에는 '영웅적인 소련군'이 독일 여군의 가슴에 칼을 꽂아 죽이는 장면이 있었다. 그것을 본 그 소년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후 그 소년은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에 '폭력을 금하는 윤리체계'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기독교에 눈을 돌렸으나 그들 역시 '애국 애족'을 외치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법구경>과 <수타니파타>를 읽고서야 마음의 큰 위안을 얻었다. 그 소년은 내면의 분노와 그 원천인 탐욕과 어리석음을 없애고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이 행해야 하는 근본 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소년이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박노자다.

박 교수는 학술논문이나 신문 칼럼에는 쓰기 어려운 블로그 글을 모아 책으로 묶었다. 박 교수는 1차적으로 자신의 솔직한 편견을 글로 써봄으로써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이 책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단상에서부터 사회변혁에 대한 염려까지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특유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문체로 표현했다.

또한 좀 더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꿈꾸는 만큼 현실에 대한 비관적 냄새가 나는 저자의 슬픈 단상들이 많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게 돼 있고, 번뇌가 깊어지면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번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곳곳에서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우리가 음식에 알아야 할 진실 파해쳐

잡식동물의 딜레마 마이클 폴란 지음|조윤정 번역|다른세상 펴냄|2만5000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먹는 것 하나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은 거의 공포에 가깝다.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할까. 간단한 것 같지만 매일 끼니를 챙겨먹는 우리에겐 가장 불안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저자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음식사슬의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준다. 그러면서 밝혀지는 진실들은 간혹 끔찍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들이다.

이 책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마지막 장이다. 저자는 손님을 초대해 '완벽한 식사'를 차리기로 결심한다. 야생 돼지를 사냥하고, 산에서 버섯을 따고, 염전에서 직접 소금을 채취해서 상을 차린다. 돼지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면서, 그리고 토할 정도로 쓴 천연소금을 맛보면서 저자는 몇 차례 구역질을 한다. 이런 현상은 달고 부드러운 패스트푸드 음식에 익숙해진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러 과정을 시간을 두고 거쳐 만든 것을 우리는 '슬로푸드(slow food)'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란 없다. 단지 푸드(음식)일 뿐이다"라며 "잡식동물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잘 먹을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된 자연의 음식을 먹을 권리는 잡식동물에게도 있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부루나의 노래	법현	운주사
6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7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8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격 :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 · 불교서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 전편(前編) 「운명비결」 완전 보강!
대한민국 운명록
運命錄
• 해광(海光) 스님 지음 •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발,마춤형 제작
방한융털신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최고의 선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지압식 깔창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中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콘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논슬립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몸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고유의 설 명절,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길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벽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법보시 상담 환영
■ 본사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산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마음에 틈 있어야 사랑과 여유 생겨요”

책향기를 따라가니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책은 사람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읽는 사람이 있어야 책은 행복하다. 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은 언제나 향기롭다. 책 속의 진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현장을 따라가는 기획 ‘책 향기를 따라가니’에서는 출판기념회, 책과 사람의 만남, 저자와 독자의 대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법현 스님 ‘부루나의 노래’ 출판기념회 현장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9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물에서 태고종 열린선원 법현 스님은 들어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고 반갑게 맞고 있었다. 이날은 스님이 최근 펴낸 책 <부루나의 노래(운주사)> 출판기념회와 매년 음력 설마다 시행하는 명절차례시연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종단과 종교를 넘어서 스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300여명의 손님이 들어서자 불교차례의식의 핵심이니까요.”

스님은 불교차례의식의 역사적 근거로 김부식의 <삼국유사> 표훈대덕조에 실린 신라 경덕왕과 충담사의 대화 내용 중 ‘차를 드리고 내려왔다’는 내용에 주목하며 이것이 차례의 효시라 역설하기도 했다.

스님의 설명 후, 이날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이 직접 불교차례의식을 시연해 보는 순서가 이어졌다. 스님은 “불교차례의식은 전통차례의식과 각 가정의 상차림법 등을 존중하되 의식만큼은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차를 올리는 시-조상 영가를 모시는 의식-공양 올리는 의식-추모의식-공양 진언-마무리 진언-발원 등으로 이어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부루나의 노래>에 대한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이번에 출간된 <부루나의 노래>는 법요집을 제외한 스님의 첫 간행물로 4부 약 70여 편의 글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본지를 비롯한 교계 언론을 통해 써온 글 중 쉽고 감성적인 글만 따로 모아 실었다. 그래서 속가 아버지에 대한 아스라한 마음, 시봉했던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 등 인간적인 마음이 녹아있다.

책 제목에 왜 ‘부루나’ 존자를 거론 했을까. 부루나 존자는 설법을 통해 포교를 했다. 여기에, 스님이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왜 ‘부루나’일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 풀린다.

스님은 잘 알려진 대로 서울 갈현동 중앙시장 상가 건물 내에 2002년 설립한 ‘열린선원’의 원장이다. 이름 그대로 활짝 열어놓고 저잣거리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다 스님은 “포교원이 길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무엇 할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쉽게 전달하는 존재가 없다면 널리 전파될 수 없을 터다. 스님의 책 제목은 그 ‘부루나’를 따르는 지극한 생활포교에의 포부가 아닐까.

스님과 8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상열 목사도 “법현 스님은 대중과 한 몸처럼 살아오면서 옳은 뜻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라며 “스님이 부른 ‘부루나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부루나의 노래>를 출간하게 된 데는 도서출판 운주사 김시열 사장의 공이 크다. 김 사장이 법현 스님의 필력을 알아보고 ‘작가’로 발굴했기 때문이다.

“법현 스님 개인은 활발히 활동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태고종 스님의 생활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어 궁금해 하는 불자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스님의 생활적 부분, 생각들을 정리하되 불교의 가르침은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지요.”

스님이 출판기념회와 명절차례시연 행사를 함께한 것도 바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활을 연계하는 부분에서 뜻이 맞닿아 있다.

“모든 생활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불자들이 불교차례의식에 대해 알고 시연해봄으로써 불자다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마음에는 ‘틈’이 있어야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현대인들의 각박해진 마음에서 ‘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이 제6회 명절차례시연 및 <부루나의 노래>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된 불교명절차례의식 중 차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

교식 명절차례시연에 대한 법현 스님의 특강이 진행됐다. 명절차례시연은 올해가 6회째다.

“유교 · 개신교 · 가톨릭 등 이웃 종교에는 명절의식이 있는데 불교는 명절상용의식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들은 후부터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불교적이면서도 가족 모두 참여하는 불교식 명절차례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행동양식은 다를지라도 차례상에 반드시 ‘차(茶)’를 올리는 ‘예(禮)’를 갖추자는 것이 불교명절차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마음

혜성스님 편저 | 삼육출판사 | 1977

장용철(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내 신심의 발원지, 청담스님의 ‘마음’



시심을 주고 받던 소녀에 받은 책
청담 스님의 ‘무채색’에 빠져들어

내 시심(詩心)의 발원지는 강촌(江村)이고, 내 신심(信心)의 발원지는 청담스님의 말씀집인<마음>이란 책이다. 강촌이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는 강촌에서도 골짜기로 한참 들어간 ‘나가지’란 마을에서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화전민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 유년시절, 솔새 둥지 같은 나의 집에 책이라고는 아버지가 동네 아낙들을 모아놓고 읽어주던 <춘향전> 등 고대소설과 삼촌 들이 보던 <삼국지> 등이 고작이었다. 대물림된 가난과 사방이 꽉 막힌 산들로 늘 영육이 허기지고 갑갑했던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다. <자유의 벗> <어깨동무> 등 수백권의 책들이 소장되어 있는 학교 도서실에 파묻혀 살면서 거기 있던 장서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내 야생의 시심은 도라지꽃처럼 묵정밭에서 그렇게 자라났다. 내가 북한강을 건넌 것은 도회지인 춘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였다. 안개가 출렁이는 붉은 원고지 칸마다 시심을 채워 넣으면서 나는 북한강 물살보다도 거친 도시의 물살에 또 다시 시달려야 했다. 날마다 ‘팔죽거리 잔혹사’를 연출하던 친구들을 피해 초식동물처럼 움츠렸으며, 음유시인이었던 아버지의 느닷없는 좌절과 절망. 또 동백꽃처럼 붉던 홍등가의 눈부심 등으로 하여 나의 사춘기는 온통 하얀 불면이었다.

업장소멸의 시기였을까. 나의 초년운세는 그렇게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문학소년이 되어 여기저기 설익은 허명을 입적하면서 부터 마침내 전생의 불연이 발아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어느 전생에 내가 기억 하지도 못한 법보시 공덕을 베풀었거나, 화전민이면서도 벌레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않은 내 아버지의 선근공덕이 순후업(旬後業)이 된 덕분이었을 것이다. 불법의 인연은 그렇게 다가왔다. 그 때까지 이름만 알고 지내며 시심을 주고받던 한 소녀로부터 책 한권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것이 청담 스님의 <마음> 이란 책이었다.

그 책을 펼치자마자 나는 청담 스님의 무채색 ‘마음’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내 성장통을 일시에 날려 버리는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내 영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명을 후려치는 벼락을 맞은 것이다. 마음이란 것이 있었다니…. 그 놈이 나의 주인공이라니…. 청담스님이 들려주는 마음 법문은 그때까지 마음을 신체의 한부분 정도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칠천제’였던 한 중생의 미혹을 깨트리는 것이었다.

노송을 스치는 바람처럼 파고드는 청담스님의 법문에 나는 한기를 느끼며 온몸을 떨었다. 그 길로 나는 인연 닿는 법당을 찾아갔고, 그곳은 일체유심조를 지나쳐 ‘이 마음을 여실히 알라’는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을 가르치는 밀교의 법당인 심인당(心印堂)이었다.

청색 두꺼운 표지에 관솔불 같은 노승의 화기(火氣)가 느껴지던 책. 내 신심의 발원지인, 구원의 책 한권을 보내준 소녀는 누구였을까. 먼 아승지겁부터 인연 맺어왔으나 금생에도 그저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인 것일까.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2장 가욕(訶欲) ③ 끝

본성을 좀먹는 오욕 반드시 끊어야

此五欲法 與畜生同有 一切衆生 常爲五欲所使 名欲奴僕 坐此弊欲 沈墮三途 我今修禪 復爲障蔽 此爲大賊 急當遠之

다섯 가지 욕구에 대한 법은 인간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세상 밖의 전혀 다른 영역인 귀신 · 축생 · 하늘나라 신선세계에도 인간세상과 마찬가지로 욕구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은 오욕을 마주하는 오근(五根)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관찰해보면 삼계육도 일체 중생은 항상 오욕의 지배를 받는다. 이에 따라 욕계 중생들은 욕계탐애[欲愛]를 추종하는 종이라고 하겠는데, 욕계중생들은 욕애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오욕에 가리워 각자 지은 업의 정도에 따라서 지옥 · 아귀 · 축생의 삼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삼악도에는 화도(火途) 혈도(血途) 도도(刀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생들은 불길이 아래, 위로 덮치면서 영겁토록 불속에서 타는 고통을 받는데, 이를 '화도'라고 부른다.

다음으로는 축생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피차가 피를 마시는 괴로움을 간단없이 감내해야만 하는데, 이를 '혈도'라고 한다.

다음으로 아귀도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귀신 왕으로부터 갖가지 칼과 지팡이로 때리고 팽개치는 참지 못할 고통을 끝없이 당하는데, 이를 '도도'라고 한다.

우리가 이미 선정을 닦은 후 다시 오욕에 침몰하여 그 장애를 당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밝은 본성을 좀먹는 큰 도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오욕을 화급하게 멀리해야만 한다.

如禪經偈中說

生死不斷絶 貪欲嗜味故 養冤人丘塚 虛受諸辛苦 身臭如死屍 九孔流不淨 如厠蟲樂糞 愚人身無異 智者應觀身 不貪染世樂 無累無所欲 是名眞涅槃 如諸佛所說 一心一意行 數息在禪定 是名行頭陀

범부중생은 무량겁 이래로 변함없이 삼계육도에서 윤회를 반복한다. 육도에서 중생들의 생사가 단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욕을 탐애하고 그 맛을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오욕이 비록 오진경계라고는 하나 그것은 각각의 차별적인 종류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맛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부중생이 그 맛을 본 뒤에는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가 힘들다.

세간 사람들이 오욕에 집착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주변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탐애할만할 색욕이 아니고, 어떤 것이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며, 또한 냄새를 맡고 맛에 집착하는 오욕의 경지가 아닌 것이 있겠는가.

중생들은 오욕의 맛에 탐애를 하기 때문에 생사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원한을 길러 그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듯이 어리석고 부질없이 모든 괴로움을 허망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는 한갓 수고스럽게 본래 없는 괴로움을 스스로 조작하여 파도가 끝없이 움직이듯이 그칠 줄 모르는 것과 같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죽은 시체와 같이 악취가 나고, 몸의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물질이 흘러나온다. 예를 들면 눈에서는 눈곱이 끼고, 귀에서는 귀지가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흐르고, 소변과 대변에서는 냄새나는 물질이 나온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이같이 청정하지 못한 허망한 육신 때문에 끝없이 오욕을 탐애한다.

이는 마치 화장실에 벌레가 오물 가운데서 그 더러움을 모른 채 청정한 경지로 착각하고 쾌락으로 즐기는 것과도 같다. 중생들이 오욕에 탐착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 이유는 살피고도 타파하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 허물을 투철하게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의 몸은 비록 외형은 다르다 할지라도 청정하지 못한 오욕에 집착하는 점에 있어선 실제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생사가 단절않는 이유는 오욕의 맛 즐기기때문
수행은 흩어진 마음을 무념으로 거둬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은 외면적으로는 청정한 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물질로 가득 차 그 냄새를 이루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를 비유하자면 하나의 아름다운 꽃병에 더러운 것을 담았다가 하루아침에 그 병이 깨지면 모든 더러운 물질이 밖으로 흘러나와 그에 대한 혐오감을 참을 수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몸과 마음을 탐욕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훌륭하게 관찰한다.

세간의 즐거움에 있어서 거기에 허물이 없고 욕구가 없다면 걸림도 없게 된다. 이는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림이 없는 경지인데, 걸림이 없으면 생사에 대한 공포도 없고, 공포도 없다면 꿈처럼 뒤바뀐 망상도 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오욕에 대한 관찰이다.

이를 진실한 열반이라고 하고, 또는 청정실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생불멸이라고도 말한다. 그 경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자성청정심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의 마음에 종일토록 망상이 어지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멸도 쉬지 않는다. 이것은 고요 적정한 열반을 전환하여 망상으로 요동하고 생멸하지 않는 자성청정심이 생멸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 이르러선 우리가 본래 지녔던 청정한 열반을 실제로 등지지 않는 상태에서 등지게 된다.

따라서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 설했던 탐욕의 상념에서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의 언덕에 오르며, 번뇌를 전환하여 올바른 법칙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오욕을 멀리 버리고 육근을 하나로 거두는 일은 즉 육식의 어지러운 망상을 일념으로 회귀하는 데는 별다른 길이 없다. 단지 일념으로 수행하여 안으로는 육근을 거둬들이고 밖으로는 육진을 반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심으로서 전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본래 고요한 자성인 청정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행을 번뇌를 털어내는 두타행이라고 한다.

요컨대 수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욕경계로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무념으로 거둬들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구생혹과 분별혹

근본번뇌는 성격상 선천적인 '구생혹(俱生惑)'과 후천적인 '분별혹(分別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생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시에 일어나는 번뇌이므로 그 활동하는 모습이 깊고 은미하여 외부의 인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현재의식의 사고검증을 기다리지 않는 상태에서 항구하게 임의적으로 운행하면서 일어나는 잠재의식 속의 번뇌활동입니다. 때문에 잠재의식, 즉 제7식에서 활동하는 번뇌를 구생혹이라고 합니다.

구생혹은 사물에 어두워서 일어나는 번뇌이기 때문에 미사혹(迷事惑)이라고도 하고, 과거생으로부터 몸에 배어 끊기 어려우므로 둔사혹(鈍使惑)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분별혹은 현재 의식으로 분명히 인지(認知)할 수 있는 번뇌활동입니다. 따라서 구생혹과는 달리 외부에 주어진 환경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바르지 못한 학설이나 스승, 또는 나쁜 친구 등의 잘못된 인연에 이끌려야만 그것에 의해서 내적으로 허망한 분별사려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생혹은 잠재의식속 번뇌활동
진리 미혹하는 분별혹 끊기 쉬워

분별혹은 진리를 미혹해서 일어나므로 미리혹(迷理惑)이라고도 하고, 그 세력이 맹렬하기는 하나 끊기도 쉬워 이사혹(利使惑)이라고도 합니다.

구생혹과 분별혹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본번뇌 가운데서 '탐심'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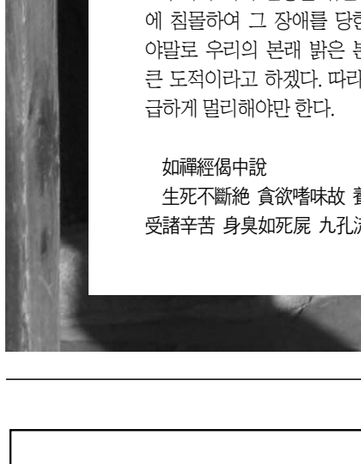
먼저 '구생탐심'은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활동하는 범위가 가장 광대하고 종류 또한 한량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물에 부딪치는 대로 항구하게, 즉 금생과 내생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의식으로는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를 즉시 자각할 수만 있다면 수행이 한결 쉬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별탐심'은 우리의 현재의식인 제6의식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이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분명한 의식활동 상태를 말합니다.

■정리=張如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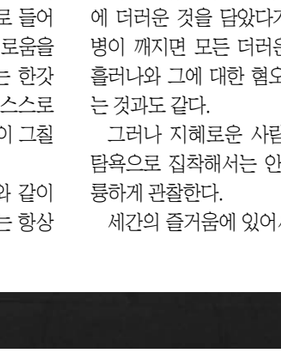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둥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둥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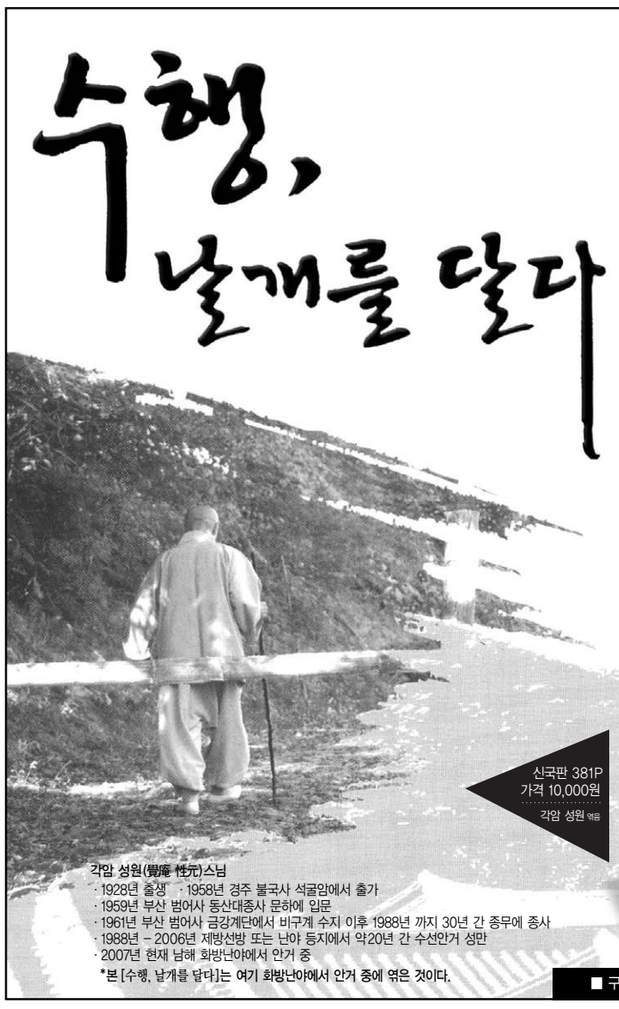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現代]
(051) 244-1251
(02) 2198-5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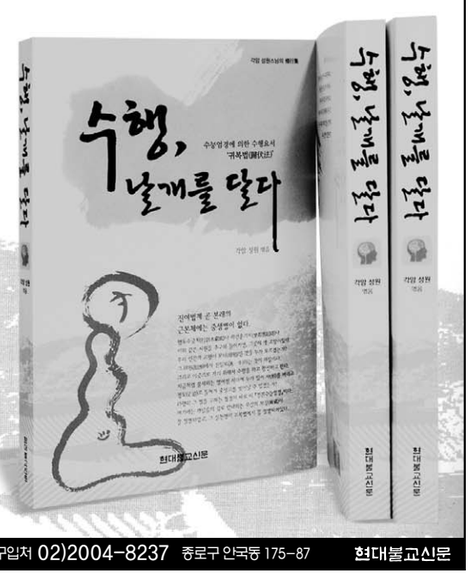
수행, 날개를 달다



이 몸을 선창에 맡긴지 50여 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다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밝히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네.
이제 겨우 철들어 서둘러 병촉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갔는데 잔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나?
고요한 밤이면 깊은 생각에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뼛속을 파고드는 이 통한을 알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태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청계에 나가 숙진을 씻어 내면서
눈,귀,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잔년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락을 삼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신국판 381P
가격 10,000원
각암 성원 엮음

각암 성원(覺庵 性元)스님
· 1928년 출생 · 1958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서 출가
· 1959년 부산 범어사 동산대종사 문하에 입문
· 1961년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이후 1988년 까지 30년 간 종무에 종사
· 1988년 – 2006년 제방선방 또는 난야 등지에서 약20년 간 수선안거 성만
· 2007년 현재 남해 화방난야에서 안거 중
*본 [수행, 날개를 달다]는 여기 화방난야에서 안거 중에 엮은 것이다.

■ 구입처 02)2004-8237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

오늘의 禪語

⑤ 화두 참구법

분별심 버리고 '물음표' 들어라

화두란 선(禪)의 진리를 푸는 열쇠이며 암호입니다. 암호를 풀자면 방법과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공식도 모르고 풀려고 하는 것은 맨손으로 토끼를 잡겠다고 온 산을 휘젓고 다니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는 구조적으로 의문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구하는 방법 역시 의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한마디로 일체의 사량 분별심과 알음알이(분석), 또는 논리적 학문적 접근을 중지하고 오로지 "왜 '무'일까?" "왜 '간시궐'일까?" 하고 의문만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물음표(?)를 던져서 "어째서?" 하고 탐구만할 뿐, 절대 갖가지로 머리를 굴려서 "왜 조주선사가 '무'라고 했을까?" "왜 '간시궐'이라고 했을까?" 하고 분석하거나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석, 분별하는 것은 올바른 화두 참구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두선(간화선)의 종장(宗匠) 대혜 스님(大慧, 1088-1163)은 "이 무자야말로 모든 번뇌 망념과 삿된 알음알이(惡知), 삿된 깨달음(惡覺)을 타파하는 무기(武器)이며 지혜의 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머리에 이 '무' 한 글자만 철저하게 각인시켜 둔다면 번뇌 망상이 소멸되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자화두'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모든 화두의 참구법도 무자화두와 똑같습니다.

화두를 분별의식이나 분석적 사고로 참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첫째 이유는, 언어적, 논리적, 학문적으로 분석, 분별하게 되면, 거기에 풍덩 빠져서 더 이상 실제적인 탐구는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인 이해, 지적(知的)인 이해(알음알이)로 다 알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화시대에서 분석력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화두 참구에서는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분별적으로 화두를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은 관념적인 이해, 지적인 이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두를 분석, 분별하게 되면 그 화두는 죽은 화두(=死句)가 되어 더 이상 참구(탐구)해야 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두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권위와 절대성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두를 분석, 분별, 해체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권위와 절대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같은 화두에 절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화두는 화두로서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 사람에게 그 화두는 매력이 없는 화두가 되어 버리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두 참구의 최대 적은 권위·절대성 훼손시키는 분석적 사고
분석·탐구로 인해 관념적 이해 그쳐…화두로서의 생명력 상실

예컨대 '무'나 '간시궐' '마삼근'에 대해서, "정말 그 뜻이 무얼까?"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까" 하고 깊이 탐구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저의 이 글을 읽고 비로소 좀 이해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이해, 관념적인 이해입니다. "어, 그런 말이로구나" 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래그래 맞어. 바로 그 말이었어. 정말 그것이었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관념적인 이해와 체험적 사유(수행)의 차이입니다.

화두를 참구할 적엔 항상 화두가 머리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매불망, 일구월심이 되어 화두에 몰입(삼매)해야 합니다. 화두를 깊이 응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되고 느슨하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조급증을 가지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리가 아픈 상기병(만성두통)이 생기게 되고, 느슨하면 화두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아무런 목적의식(화두참구)이 없는 상태, 멍청한 상태(無記空)로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속에서 화두를 분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선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졸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앉아서 망상을 피우는 것이고 조는 것이지 좌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멍한 상태, 비몽사몽 같은 상태를 '혼침(昏沈)'이라고 하고, 마음이 들떠 있는 것, 끝없이 잡념이 떠오르는 것을 '도거(掉擧)'라고 하는데, 이 역시 참선에서는 요주의 사항입니다. 혼침과 도거에 빠지는 것은 선이 아니므로 매정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사실 머리속에서 화두만 분실하지 않으면 잡념 같은 것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다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지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굴려서 분별, 분석하고, 좀 멍청한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일찍 체념하거나 포기합니다. 또 관절염이나 위장병, 만성적 두통(상기병) 등 신병(身病)이 있는 사람은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환영의 올가미에 걸려서 수없는 세월 동안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만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곧장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느냐? 그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불변의 성공 철학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신행게시판

●**백담사 설맞이 템플스테이=**인제 백담사가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2월 6~8일 진행되는 설맞이 템플스테이는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성불도놀이, 참선, 요가, 차명상, 차훈명상 염주만들기, 봉정암 산행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33)462-6969

●**적멸보궁 봉정암 정초기도=**인제 봉정암에서 새해를 맞아 정초 21일 기도를 봉행한다. 부처님뇌사리보탑전에서 열리는 이번 정초 기도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입재해 15일 오전 10시 회향할 예정이다. 정초 기도는 나와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을 향한 지극정성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봉정암 측은 설명한다. (033)632-5933

●**강원불교대학 19기 모집=**춘천 석왕사가 강원불교대학 19기생 모집에 나섰다. 1년 과정인 기초반 경전반 문예반을 모집하며 학력 및 나이 제한은 없다.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면 되며 3월 15일 오전 11시 개강한다. (033)251-5040

●**관오불교복지대학 모집=**대구 관오사의 관오불교복지대학이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오불교복지대학은 불교교육, 복지상담의 교과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전문대학원반으로 경전(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공부반이 운영되고 있다. 3월 8일 오후 1시 입학식이 열릴 관오불교복지대학은 7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053)472-0108

●**정월 방생법회 및 삼사순례=**대구 은적사가 2월 18일 정초 삼사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법주사, 공림사, 각연사를 돌아볼 이날 삼사순례에서 방생법회도 같이 열린다. (053)653-1572

●**영주암 새해 방생법회=**부산 영주암에서 해상선상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2월 15일 오후 2시 크루즈를 승선해 동백섬 오륙도 광안대교를 거치며 방생법회를 진행한다. 2월 11일까지 접수받으며 선착순 280명만 동참이 가능하다. 동참금은 3만원. 9~15일은 정초 7일 기도도 봉행한다. (051)754-2210

●**영묘사 정초기도=**울주 영묘사가 정초 7일 철야기도를 봉행한다. 2월 9일 밤 10시에 입재해 〈천수경〉 독경으로 시작하는 철야기도는 밤 12시부터 관세음보살 정근기도를, 새벽 1시부터 〈법화경〉 기도 및 법화삼매 예참으로 진행된다. 동참금은 3만원. 향, 초, 공양미 등을 준비하면 된다. (052)238-9982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실상무상' 깨닫고 대열반 경지에

〈實相無相〉

❺ 유마거사의 딸 월상녀

사리불이 어느 날 성으로 들어가다 유마 거사(維摩詰)의 딸인 월상녀(月上女)가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디를 가는가?"

월상녀가 대답했다.

"나는 사리불님처럼 그렇게 갑니다."

"나는 성으로 들어가고 그대는 성에서 나오는데, 어째서 나처럼 간다고 하는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큰 열반에 머문다."

이에 월상녀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반에 머물렀으므로 나도 사리불님처럼 그렇게 갑니다"라고 하였다. 이 문답은 〈선문염송〉 제71칙에 나오는 공안이다. 〈불설월상녀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비야리국 대수림(大樹林)의 초모(草茅)정사에 머무를 때, 성안의 이차가(離車家)에 비마라힐(淩摩羅詰: 유마힐)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무구(無垢)라고 하였는데, 그들 부부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날 때 몸에서 묘한 광명이 솟아 온 집안을 비추었기 때문에 월상(月上)이라고 이름 하였다. 전생의 공덕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월상녀가 부처님께 출가하는 과정에, 사리불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대승의 교리를 문답으로 주고받는 장면이 경전과 공안집에 묘사되어 있다.

出入·去來의 경계가 사라진 경지
'삼법인' 깨닫기 위해 공관 닦아야

이 화두의 대의는 월상녀는 큰 보살이어서 대열반에 머물렀기에 '들고 남(出入)'과 '오고 감(去來)'이 없어졌고, 사리불은 성문(聲聞)인지라 '출입'과 '여기와 저기(彼此)'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원오극근 선사는 이 공안에 대해 "머물러도 머무는 바가 없고, 다녀도 다니는 바가 없으며, 보아도 보는 바가 없고, 써도 쓰는 바가 없다. 여러분의 발꿈치 밑이 허공같이 넓어 열 개의 해가 함께 비치는 것같이 닿는 곳마다 광채가 찬란하다. 이를 안다면 월상녀와 더불어 무생법인(無生法忍:나고 죽음이 없는 마음자리)을 함께 증득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월상녀와 역대 조사가 공감한 들고 남이 같은 길(道), 여래의 큰 해탈에 머물기 위해서는 본래부터 맑은 본체의 근원과 하나 되어야 한다. 즉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제법의 '실상은 상이 없어(實相無相)' 공(空)이라 한다. 〈반야심경〉의 설명이다.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諸法空相)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不生不滅),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不垢不淨),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不增不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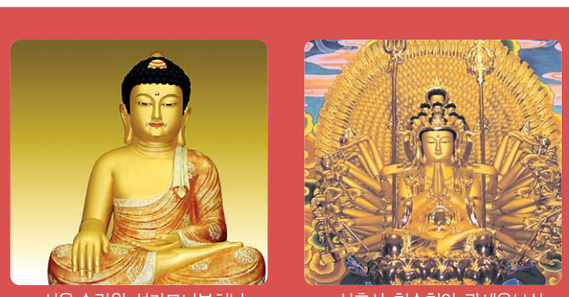
즉 제법의 실상은 불생불멸하고 무시무종(無始無終)한 진여(眞如)이자 불성인 것이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진여성은 공성(空性)이자 〈열반경〉의 대아(大我)이자 우주적인 마음, 대승심(大乘心), 대심(大心), 일심(一心)인 것이다.

부처님은 〈잡아함경〉에서 "모든 행은 무상(諸行無常)하고, 모든 법은 무아(諸法無我)요, 열반은 적정하다(涅槃寂靜)"고 설하셨다. 또한 "무상하고 무아이며 일체 어디에도 머물 수 없고 이름 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 이름 하나니, 하나의 근원 속에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므로 이름 하여 일체개공(一切皆空)이라네"라고 설하셨다. 즉 월성녀는 일체개공의 도리와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삼법인(三法印)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월성녀와 같이 불교의 근본진리인 삼법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공관(空觀)을 닦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강경〉은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 그림자 같으며, 이슬 ·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는 관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은 "응당 색(물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 · 냄새 · 맛 · 감촉 · 법(대상) 등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主 而生其心)"라고 자상히 일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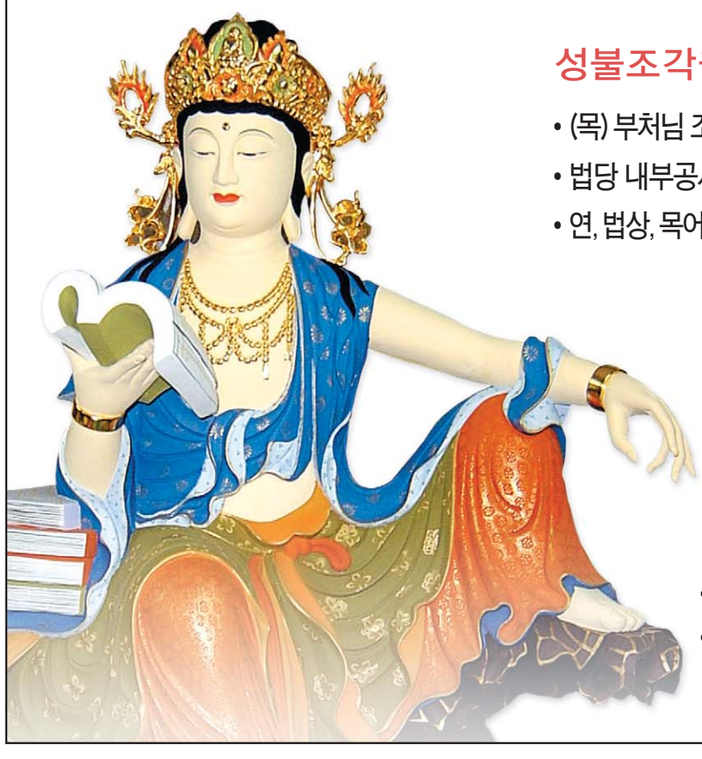
이러한 공관법은 모든 수행의 기본에 해당된다. 그 어떤 수행법을 닦든 일체를 '토끼뿔' '거북털'로 관하고, 닦는 바 없이 닦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경남지사 011-588-8317



꿈 꾸는 자 행복하라 꿈너머꿈 꾸는 자 위대하라



강사 :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주최 : 송파구청
일시 : 1월 24일
장소 : 송파구청 대강당

고도원의 아침편지 '꿈너머꿈'

누구나 허공처럼 크고 걸림 없는 자유인을 꿈꾼다. '일체 유위법은 꿈·환상·물거품·그림자와 같고, 이슬·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는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자유인이란 존재의 덧없음을 바로 보는 사람이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현재 189만명 지인들에게 매일 아침 편지를 띄우는 성실한 남자가 있다. 이미 꿈 하나를 완성한 행복한 사람. 그는 현재 '꿈너머꿈'을 한참 진행 중이다. 세계 최고·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명상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이 고도원이 현재 꾸고 있는 '꿈너머꿈'이다. 고도원이 서울 송파구청 직원들 앞에 섰다.

강연회를 기획한 이진우 팀장(송파구청 능력개발팀)은 "새해 첫 번째 직원 소양교육으로 고도원님을 초청했다. 강연회를 통해 저마다 가슴에 꿈너머꿈을 하나씩 지녀보자"는 취지를 밝혔다. 진솔하면서도 푸른 야망과 열정이 담긴 고도원의 강연 현장 속에서 우리도 꿈너머꿈을 그려 보자. 언젠가는 우리도 '고-도원(Go桃園)' 하리라.

#내 인생의 책과 만나라

우리 이렇게 만났습니다. 인생을 만남이라고 하지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역시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얼굴이 폈다고 하지요.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좋은 책과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 몇 권의 책이 있어야 합니다. '한권의 책을 읽는 사람을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지배한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말을 화두로 진행하려 합니다.

#꿈을 갖고 기본기에 충실하라

〈백만장자의 정신(millionaire mind)〉이란 책을 쓴 미국 작가 토머스 스탠리(Thomas J. Stanley)는 미국 백만장자들의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꿈'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뭘까요? 소망. 희망.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것. 꿈은 북극성과 같은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꿈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바로 '기본기'입니다. 꿈은 거대한 미래의 것이고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는 두 걸음씩 뛸 수 없는 소박한 걸음의 현재입니다. 이 시대의 백만장자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아는 사람이 진짜 백만장자입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오늘조차 없습니다. 저는 물질의 부자보다 마음의 부자를 지향합니다. 제가 최근에 〈꿈너머꿈〉이란 책을 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본기 그리고 (이뤄질 수 없을지라도) 북극성이 되는 꿈 너머꿈이 그 핵심입니다.

- 2001년 8월 1일 고도원의 첫 번째 아침편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루신(魯迅)의 〈고향〉 중에서-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은 있다 믿으면 있고, 없다 믿으면 없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우뚝 서자

2001년 8월 1일은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 기고문을 써주는 1급 비서관이었습니다. 글쟁이로는 최고 관직이죠. 그러나 당시 제 몸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 단 사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마라톤 모임을 만들어 탄천 둔치를 달렸습니다. 육체는 회복됐지만 정신적으로는 머리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터지기 직전의 머리에 바늘구멍을 하나 냈습니다. 그것이 '고도원의 아침편지'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이었다고 하면 다들 제가 출세 가도의 비단길을 달린 것으로 압니다. 제게도 10년 동안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신 헌법이 공포된 1972년, 〈연세춘추〉 학생기자였던 저는 강제 징집당해 군생활을 했고, 전역 후에는 운동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호구지책으로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다음엔 문방구를 차렸습니다. 아현동 고개에 행복의 문이란 간판을 걸고 웨딩드레스 장사를 5년 했습니다. 돈도 벌고 희망이 생기는 듯 했는데 아내가 두 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저는 글쟁이로서 글을 쓰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그 때 생겨난 것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될 때까지 5년여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혼신의 힘을 기울일 때는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의 기회가 제게도 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글쟁이가 지금 놀고 있다니. 이 사람을 신문기자를 시키면 신문이 달리질 수 있겠다" 싶었는지 기자를 시켰습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 4년을 하는 동안 별명이 특종기자였습니다. 이어 정치부 기자가 됐습니다. 정치 전문 기자 생활 중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분 일생의 책이 뭔지 아시나요?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의 〈역사의 연구〉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이미 열다섯 번 읽었습니다. 왜? 그 책은 제 인생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라. 그래야 이가 튼튼해진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가 상한단다. 정신도 그렇다."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주신 책을 읽으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금 그 책은 제 서재에 보물처럼 자리합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는 절망의 시간. 그 때 '아침편지'는 준비됐습니다.

#'아침편지'의 탄생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로운 씨앗

저는 시골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세상 소풍을 마치며 엄청난 양의 책을 물려줬습니다. 제게 절망의 시간이 왔을 때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을 펼쳐 봤습니다. 그 곳에서 밑줄 하나를 발견하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가 살아있을 때 무심코 그어 놓은 밑줄에서 살아있는 숨결·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이 루신의 〈고향〉에서 뽑은 희망이란 구절입니다. 첫 번째 '아침편지'가 됐지요. 제 인생 최고 멘토가 된 이 글귀는 아버지가 남긴 씨앗입니다. 독서 후 남겨진 씨앗 하나. 아들로 하여금 인터넷 세상에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시작하게 한 필연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글쟁이 아닌 꿈쟁이 입니다. 제게 남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이란 이름의 명상센터입니다. 제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도 "자네 명상이란 것을 한 번 해보게"라고 말해준 선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와 묵상에 익숙한 개신교인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틱낫한 스님의 플럼 빌리지와 인도 오로빌 마을을 다녀온 저는 심한 충격에 빠졌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깊은 산속에 명상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대한민국 어느 깊은 산속에 짓고 있습니다. 20년을 목표로 뚜벅뚜벅 갑니다. 어려우면 제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극성이 아닌 징검다리에서 꿈을 이뤘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이뤄진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꿈너머꿈을 지니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꿈너머꿈을 지닌 이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저마다 꿈 보따리를 다시 열어 그 너머의 꿈너머꿈을 생각하는 그런 오늘이 되십시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학2마리"가 비상을 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진언"옴"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다니"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창작 뮤지컬 '백설공주' 공연

천안 한암아트홀, 2월 23일 오후 2·5시



창작 뮤지컬 '백설공주' 리허설 장면.

영원한 어린이들의 고전 '백설공주'가 어린이 뮤지컬로 각색돼 무대에 오른다.

천안 한암사(주지 원철) 한암예술단은 한암아트홀에서 2월 23일 오후 2 · 5시 창작뮤지컬 '백설공주'를 공연한다.

백설공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아 연극과 뮤지컬 등으로 제작돼 공연되는 작품이다. 원철 스님이 대본을 쓴 뮤지컬 '백설공주'는 원작의 토대위에 창작이라는 옷을 입혔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백설공주는 아름답지만 왕비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사람이다.

그 욕망은 왕비의 분신인 거울마녀를 통해 분출돼진다. 왕비는 사냥꾼을 시켜 백설공주를 숲 속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지시한다. 숲 속은 일곱 난쟁이가 사는 시간이 멈춰진 영원한 삶을 사는 공간이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고 숲 속에 놔두고 온다. 백설공주가 살았다는 사실을 안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먹여 죽이지만 무당의 계시를 받은 왕자에 의해 깨어나 왕에 의해 왕비가 벌을 받고 참회를 한다는 것이 주된 줄거리다.

이번 작품에는 천안지역 초중생 20여명이 출연한다. 안무와 율동을 곁들여 가족 단위로 편안히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원철 스님은 "욕망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망상이다. 그것이 깨어질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진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출연하는 어린이들과 관객들에게 바로 이 '깨어짐의 미학'을 전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편 2003년 창단된 한암예술단은 2005년부터 매년 '굴러라 굴러' '바다로 가자' 등 다수의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다. (016)482-9906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원 모집

음악과 무용을 통해 불교를 어린이들에게 알려온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이 '제17기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합창과 무용으로 자격은 초등학교 2학년이상 중학교 2학년 이하 남녀 학생이다.

1차 자유곡 1곡,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된 단원은 해외연주 및 어학연수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 명신대 불교음악학과 지원시 가산점을 인정해 준다. (02)725-7527

백남준 2주기 추모 전시 열기 뜨겁다



Nude Descending a Staircase

4월 30일까지, 용인 한국미술관 '백남준 선생 가시고…'

2006년 1월 29일 눈을 감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을 추모하는 법회와 전시가 열리는 등 그를 기리는 열기가 뜨겁다.

백남준 재조명 기획전이 경기 용인 한국미술관 신축 새 전시장에서 '백남준 선생, 가시고 365×2 이야기'을 주제로 오는 4월 30일까지 마련된다.

이번 전시에는 백씨의 일본 아내 구보타 시게코의 영상작품 '마이 라이프 위드 백남준'을 비롯해 백씨를 기리는 국내 작가 13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마이 라이프 위드 백남준'은 백남준이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던 1960년대부터 2년전 장례식 장면까지 백남준의 40년 예술인생을 담은 60분 분량의 작품이다. 백씨 부부가 각기 자신의 작품 위에서 환히 웃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며, 6부에 걸쳐 1984년 첫 내한중 백씨가 부모 묘를 참배하던 모습, 백씨의 치료 장면 등이 수록돼 있다.

2주기전을 통해 백남준 판화, 사후 독일 브레멘 미술관에서 100장 한정 제작한 프린트 및 작가 사후인 지난해 KBS 백남준전과 구보타 시게코의 뉴욕생활도 보여준다. 1960년대 플럭서스 멤버였고 백남준의 아내이자 예술적 동지였던 구보타 시게코의 비디오아트도 3점 선보인다.

이밖에 국내 작가들이 고인을 기리며 작업한 신작도 나온다. 젊은 날의 백남준을 섬세하게 되살린 조덕현씨 작품, 상자를 쌓아올린 조영남씨의 부부상, 김명희 · 송수련 · 원문자씨의 회화 외에, 설치의 육근병 · 전수천, 금속공예의 김승희, 유리공예의 박성원, 도조의 신상호, 섬유의 정경연, 조각가 박찬수씨도 출품한다. (031)283-6418

서울이라면 미술관에 가지 않고도 백남준씨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로 나와 40m쯤 걸어가면 SK텔레콤 건물이 나타난다. 이곳 1층 로비에 있는 공간 'COMO'에서는 백남준이 1984년에 만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란 작품을 상영한다.

이 작품은 세계 각 대륙에 있는 예술가의 공연과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차례차례 위성 생중계로 방송했다. 여기에는 현대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의 공연과 백남준과 함께 작품을 만든 '살롯 무어만'의 퍼포먼스도 담겼다. 아트센터 나비의 최두은 큐레이터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TV를 상호 소통하는 미디어로 새롭게 정의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영은 2006년 1월 29일 타계한 백남준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로 오는 2월 29일까지 계속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특별한 기획전은 없지만 상설전 코너에 '가족시리즈' 등 백남준의 작품 10여점이 전시돼 있으며, 리움미술관에서도 백남준의 '파우스트-자서전' 등 작품이 전시중이다.

인천공항 밀레니엄 홀에서도 '거북이', '비디오 벽', '요셉보이스' 등 백남준의 주요 작품으로 꾸민 백남준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시는 4월 10일까지.

한편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는 1월 29일 경내 법왕루에서 '백남준 타계 2주년 추모재'를 봉행했다. 특히 이번 추모재에는 백남준 선생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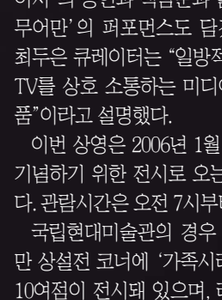
1시간 동안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한 추모재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독경으로 시작됐다. 이어 유족들의 헌화와 향공양이 이어졌다. 다리가 불편해 시종일관 의자에 앉아서 합장한채 추모재를 지낸 구보타 여사는 "남편에게 봉은사는 어릴적부터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라고 들었다"며 "남편은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를 따라 봉은사를 자주 다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五方'에 맞춰 5명 작가 전시

모란미술관, 3월 30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미술관에서는 윤범모, 최열, 정준모, 최태만, 조은정 등 5명의 미술 평론가와 홍성도, 정현, 김홍식, 이재효, 고틀립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 기획전 '오색의 공간 그리고 나'가 열리고 있다.

미술관내 로비를 뺀 5개 전시공간의 특성을 살려 5명의 평론가들이 동양의 공간 개념인 오방(五方)에 맞춰 각각 추천한 작가 5명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전시는 3월 30일까지.



이재효의 설치작품

매주 토요일에는 작가와 평론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이나 학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전시설명 또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031)594-8001.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27 사찰 떡국



무자년 새해를 맞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찰에서는 설이 되면 점심공양으로 떡국을 끓여먹습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넣고 푹 끓여서 맛을 우려낸 후 떡국과 두부를 넣고 그 위에 버섯, 호박 채친 것을 고명으로 얹어 먹습니다. 이때 소(小)만두를 만들어서 함께 넣어 먹기도 합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국물맛 우려
부처님께 떡국공양과 '세왈 3배' 올려

이날은 산중암자 스님들도 다 함께 큰절 대웅전에 모여 먼저 부처님께 떡국공양을 올리고 '세왈 3배'라고해서 부처님께 세배를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조사스님들께 3배를 하고, 속가 고향을 향해 낳아주신 부모님께 3배를 한 후 큰방에 대중스님들과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어시발우를 들고 큰스님께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 큰방에 산중 대중스님 모두가 모여 성불도놀이나 윷놀이, 장기자랑도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중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초불공을 드리러 오는 불자도 많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 준비는 보름 전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음식부터 만듭니다. 보통 유과를 먼저 만드는데 보름 전에 담가두었던 찹쌀을 빻고 방아를 찧어 떡을 찐 후 얇게 만듭니다. 큰방 방바닥을 깨끗이 닦은 후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떡을 말립니다. 이 말린 떡을 기름에 튀기고 물엿을 바른 후 나락 튀긴 것을 그 위에 발라 항아리 속에 저장해둡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정, 약과, 전, 두부 등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떡과 나물, 전, 튀각, 튀김 등을 만듭니다. 오늘은 설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떡국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떡국

재료 : 가래떡, 두부, 다시마, 무, 표고버섯, 애호박, 은행, 참기름, 김 후추, 설탕, 깨소금, 간장

만드는 법

① 가래떡은 아직 촉촉할 때 어슷썰기로 썰어둔다.
② 다시마와 표고버섯, 무 토막을 넣고 센불에 한소끔 끓인 후 약한불에 천천히 끓인다.
③ 애호박을 채썰어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참기름에 볶아 깨소금을 뿌려둔다.
④ 표고버섯은 간장과 설탕으로 간을 하고 참기름에 볶는다.
⑤ 은행은 뜨거운 프라이팬에 볶는다. 이때 소금을 약간만 뿌린다. 볶은 후 젖은 수건으로 비벼 껍질을 벗겨둔다.
⑥ 두부는 나박썰기로 떡과 비슷한 크기로 썬다.
⑦ ②의 우린 물에 떡국을 먼저 넣고 끓인 후 두부를 넣고 살짝 더 끓인다. 그릇에 담아 애호박, 버섯채 등 고명을 올린 후 그 위에 구운김을 부서뜨려 올린다. 은행도 2알 정도 올린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낭: 150*125
특허 브라켓
※황토흙벽돌, 내화벽돌, 판넬등 시공가능

원목목조 20평형
원목목재기둥: 100×100×400
원목목재도리: 120×50
원목목재중간대: 70×50
특허 브라켓

◆조립식평상 골조 가격: 180,000 사이즈 : 2100×1800×400(mm) ※ 마루판은 별도 구매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폴리프로필렌 마루판 210×12(mm)
원목목재 마루판 120×20(mm) 빙수 받판 4×8×1.5장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풍기 정품
홍삼 액기스 판매
100ml×60포(한달분)
20여종 제품 판매



판매처 054)634-3429
휴대폰 011-9373-3778
E-Mail :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대리점 운영하실분
(물품대 백만원으로 생활고 보장)
여름철 풍기 인견옷,
인견이불, 몸배, 난방 판매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제품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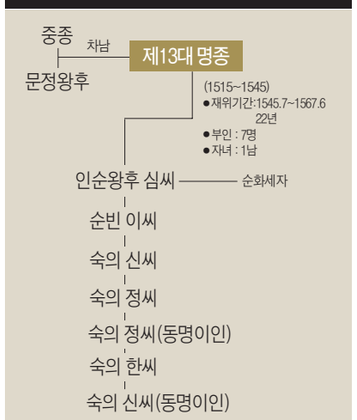
철의여인 문정왕후 그늘 아래 '눈물의 일생'



13대 명종과 인순왕후 - 강릉

명종 1534~1567 (34세)
재위 1545.7(12세)~1567.6(34세)

제12대 인종 가계도



강릉은 조선 13대 명종(1534~1567)과 인순왕후(1532~1575) 심씨의 능이다. 어머니 문정왕후릉(태릉)에서 1km 떨어진 동쪽 산줄기에 있다. 왕릉과 왕비릉 모두 병풍석을 둘렀으며 12칸의 난간석으로 연결되어 있다. 혼유석은 왕릉과 왕비릉에 각각 설치했다. 좌우측 무인석은 생김새가 다르다. 코에 붉은 빛이 돌고 투구와 안면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우측은 투구가 작고 이마 부분이 좁고 코가 둥글며, 턱과 양 볼이 튀어나와 있다. 태릉과 함께 사적 제201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313-19면적 163만2281㎡(49만3765평).


강릉 난간석.

원칙대로 한다면 태강릉의 명칭은 강태릉이 되어야 한다. 태릉은 왕비 신분인 문정왕후의 능이고 강릉은 임금인 명종의 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의 여인을 어머니로 둔 탓에 명종은 죽어서도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릉은 서울 강북 지역의 명소다. 휴일이면 능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인파가 부산하다. 연간 30만 명이 방문한다. 좁은 주차장이 미어터져 도로까지 차들이 점령한다. 주변 시설들도 태릉의 이름만 빌려 쓴다. 태릉선수촌, 태릉 국제종합사격장, 태릉 푸른 동산, 태릉 컨트리클럽, 심지어 태릉갈비까지. 강릉 바로 곁에 있는 스케이트장마저 태릉 스케이트장이다. 살아서는 곤룡포 입고도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고 반말로 훈계를 듣더니 죽어서도 어머니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요즘 사람들도 태릉 곁에 강릉이 있는 줄 잘 모른다. 문정왕후의 호령이 지금까지 통하는 지 강릉은 비공개 능이다. 화장실을 짓고 경비 인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는 짤막한 안내 쪽지가 태릉 입구 안내판에 붙어 있다. 그래서 강릉은 조용하고 한적하다. 1km 떨어진 태릉에서 어머니의 호령이 들릴까봐 숨죽이고 있는 것 같다.

22년 재임기간 중 문정왕후 사후 2년만 친정 펼쳐
자연재해·도적떼 출몰·을묘왜변 등으로 시련 겪어

명종은 중종의 둘째 아들로 제2계비 문정왕후에게서 태어났다. 인종이 죽자 12세인 경원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명종이다. 이복형 인종은 이름 그대로 착하고 어진 임금이었다. 왕위를 이복동생에게 전위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복잡한 정쟁을 정리하고 자신이 낳은 아들을 옥좌에 앉히겠다는 계모 문정왕후의 간절한 소망까지 이룬 것이다.

명종은 문정왕후가 35세에 낳은 아들이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늦은 출산이다. 그녀가 명종을 낳았을 때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은 이미 20세였다. 따라서 명종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인종은 후사 없이 31세로 승하했다. 그래서 문정왕후의 인종 독살설은 힘을 받는다.

그러나 명종에겐 불행의 시간, 눈물의 세월이었다. 묘호를 짓는 이가 명종(明宗)의 속뜻이 명종(鳴宗)임을 암시한 것일까. 여장부풍의 괄괄한 어머니의 호령, 을사사화, 양재역 벽서사건, 임꺽정의 출현, 을묘왜변 등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세월이었다. 7명의 부인을 두었으나 인순왕후 심씨에게서 겨우 아들 하나 달랑 얻었다. 아들 순화세자마저 13세에 요절했다. 왕후에게서 난 자식이 대를 잇는 맥이 끊어졌다.

명종은 12세로 즉위했기 때문에 성년이 되는 20세까지 8년 동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아야했다. 성년이 된 후에도 수렴만 엷어졌지 어머니의 조종을 벗어나지 못했다. 22년간 재위했으나 어머니의 압력에 벗어난 시간은 채 2년이 못된다. 어머니가 죽은 후 2년 정도 친정을 한 셈이다. 그러다 그도 죽었다. 명종조는 유난히 자연재해, 도적떼의 출몰 등에 관한 기록이 많다. 그 원인과 책임을 문정왕후의 국정문란으로 몰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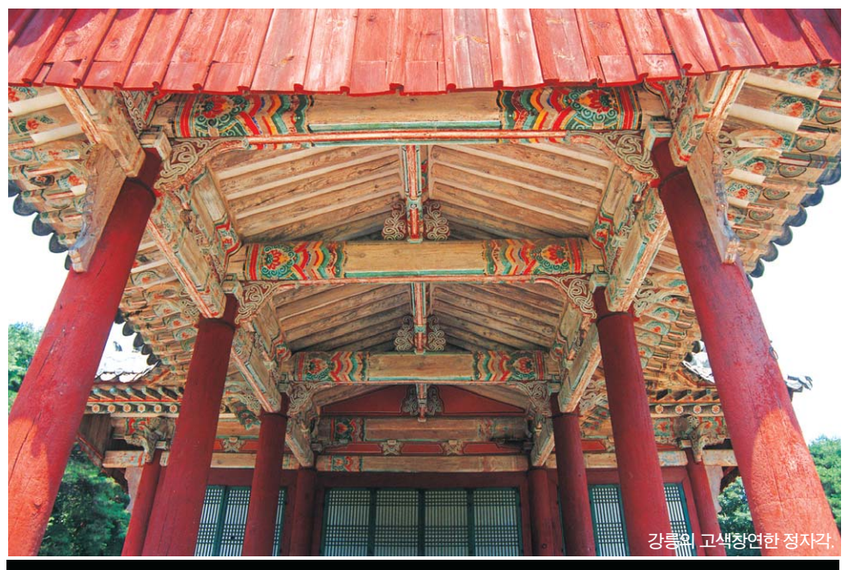
명종 17년(1562) 음력4월, 경기도 여주와 전라도 진안에 서리가 내렸다. 사관은 이에 대해 기록하기를, '4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다. 아래에서 인사가 잘못되면 위에서 천변이 반응하는 법이다. 날마다 도모하고 의논하는 것들이 나라를 그르치고 임금을 그르치는 계책이니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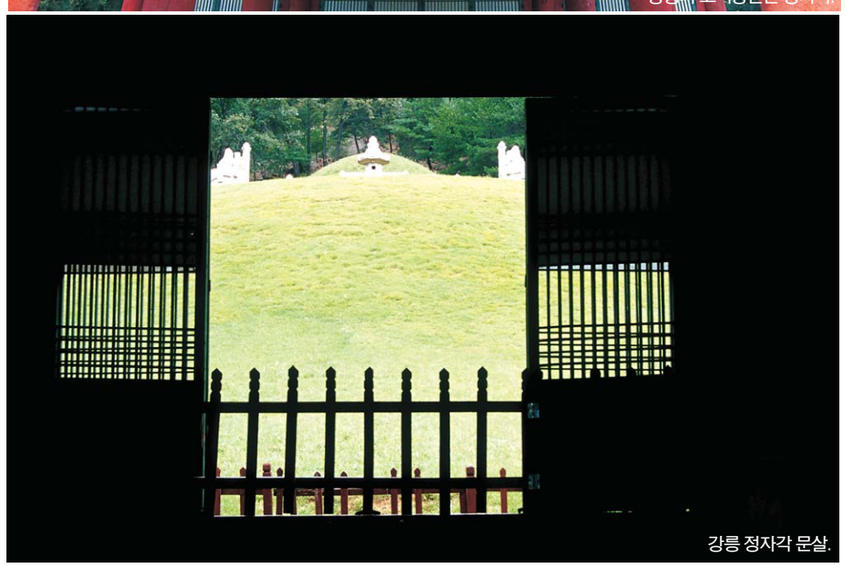
명종 9년(1554)에 올라온 상소에는, '흉년에 백성은 죽어가는 데 승들은 손발도 까닥 않고 배를 두드리며 앉아 있습니다. 백관의 녹봉은 줄였어도 선종, 교종 등 불교에 퍼붓는 돈은 줄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급하지 않은 일을 정지하여 흉년을 구제해야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명종은, 국고가 고갈되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니 폐단을 제거하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가 국고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사관은, '폐단을 제거하라는 분부는 옳지만 양종이 허비하는 것은 알지 못하겠다니 한탄스럽다'라고 적고 있다. 양종 부활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문정왕후의 숭불을 비난하는 일면이다.

조선 3대 도둑(혹은 3대 의적)은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이다. 그중 임꺽정은 명종 때 활동한 인물이다. 임꺽정은 양주의 백정 출신이다. 도적떼의 두령들을 끌어 모아 재물을 약탈하고 관군을 괴롭혔다. 임꺽정의 무리는 황해도, 경기도 등 전국 5도를 누비며 1559년부터 1562년까지 강탈과 노략질을 감행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는 의적으로 통했다. 그를 잡으러 다니는 관군을 오히려 미워했다. 관아를 습격하여 창고를 털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으로 둔갑했다. 백성들은 그들을 숨겨주거나 달아나도록 도와주었다. 임꺽정은 체포령이 내린 지 3년 만에 황해도 토포사 남치근과 강원도 토포사 김세한에게 붙잡혔다. 체포된 지 15일 만에 처형됐다. 1562년 정월, 명종 18년 때 일이다.

명종실록도 그들을 은근히 감싸고 있다. '나라에 선정이 없으면 교화가 밝지 못하다. 재상이 멋대로 욕심을 채우고 수령이 백성을 학대하여 살을 깎고 뼈를 발리면 고혈이 다 말라버린다. 수족을 둘 데 없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아침저녁거리가 없어 목숨을 연명하고자 도둑이 되었다. 그들이 도둑이 된 것은 왕정의 잘못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시 사람들이 임꺽정을 단순한 도적의 괴수로 여기지 않고 민심을 대변하는 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훗날까지 무수한 설화, 소설, 드라마,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임꺽정을 조선의 3대 도적이라 규정했다. 평민과 몰락한 양반에게는 의적으로, 양반에게는 도적으로 평가되었다.

다사다난했던 명종의 치세, 어머니가 죽자 드디어 굴레에서 벗어난 명종은 권력을 농단하던 윤원형 일파를 제거하고 보우를 유배 보내고 줄기차게 상소를 올려 괴롭히던 교종, 선종을 폐지했다. 자신의 치세를 펼쳐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채 2년도 못돼 34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했다. 지리산 자락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한 번도 조정에 나와 벼슬을 하지 않았던 영남 사림의 거두 남명 조식은 명종의 승하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심회를 읊었다.


강릉의 고색창연한 정자각.


강릉 정자각 문살.

엄동에 베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볕뉘도 쬔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진다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영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 개인지도
정통으로 배워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 정규반 / 전문가반 각 개인지도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주공 5단지
◦원장소개 : 미래예측학 박사과정 5학기(논문과정)
역학입문 18년, 역학지도 10년, 법학 석사
청하미래예측연구원 · 청하명리학당
02)2202-3632
017-723-5808

일요법회와 평일저녁
법회 지원합니다
150명 이상 들어갈 법당은
있으나 동참신도가 적은
수도권 사찰 (상담가능)
010-6449-4889
현파스님

전국 어디든 암자, 사찰, 사찰터
무료보시 해주실 큰마음,
큰사랑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스님은 청정비구로서 (세속 50대중반)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부처님을 옮겨 모셔야
할 딱한 처지에 있어 스님들과 불자님의
큰사랑과 따뜻한 관심, 인연을 기다립니다.
051)816-3562
누구나 힘든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연락주세요.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비구니스님 되실 분과
남은 여생을 부처님과
함께 지내실
보살님을 기다립니다
▷경남 김해
017-543-7200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남산
054)748-3530

출가에 뜻을 둔
여(女)행자
인연을 찾습니다
(대구 팔공산)
011-825-3181

기도 요양하실 여자분,
여생 보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행자(여자)스님
모십니다
051)502-6569

종 무 원
구 함
(경남 창원길 상사)
055)289-728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53)652-3219

오래계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 법당,거사님,
보살님 모십니다
051)242-1684

인연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조계종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보살님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숙소는 원룸(욕조,씽크대,화장실등)을 제공합니다
041)545-6531
011-422-675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하실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주 문 제 작
다라니, 경문, 경면주사 - 액자, 표구
(02)577-3375 무 불 장 터
연락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새해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휴 대 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비 염 · 치 질
아무리 심한 악성,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도
한약복용만으로 조기에 치료됩니다
※ 전화 상담 환영
유림한의원 051)333-4455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105-중-2008호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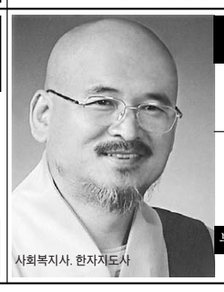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역 학 공 부
●사주초·중급 : 월요일 18: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初發心自警文 강좌안내
◇ 개강 : 매주 금요일
◆ 1 - 2시 30분 自警文(야운스님) 4개월
◆ 3 - 4시 30분 誡初心學人文(지눌스님) 2개월
◆ 5 - 6시 30분 發心修行章(원효스님) 2개월
출가수행자는 진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두눈
똑바로 뜨고 곧장 나아가 어떤 집착도 남기지 않는
열반의 경지를 얻기 위해 출가한다고 했다.
오직 이 경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이는 드물다.
蓮華藏世界 初發心專門講堂
彌昊 합장

한자 속독 한글
한꺼번에 정확하게 습득되면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세계 최초 속독의 원리와
한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획기적인 과학적 속독교육
(발명특허출원 56648호)영재교육
010-2831-8426 / 02)723-8426 (조계사부근)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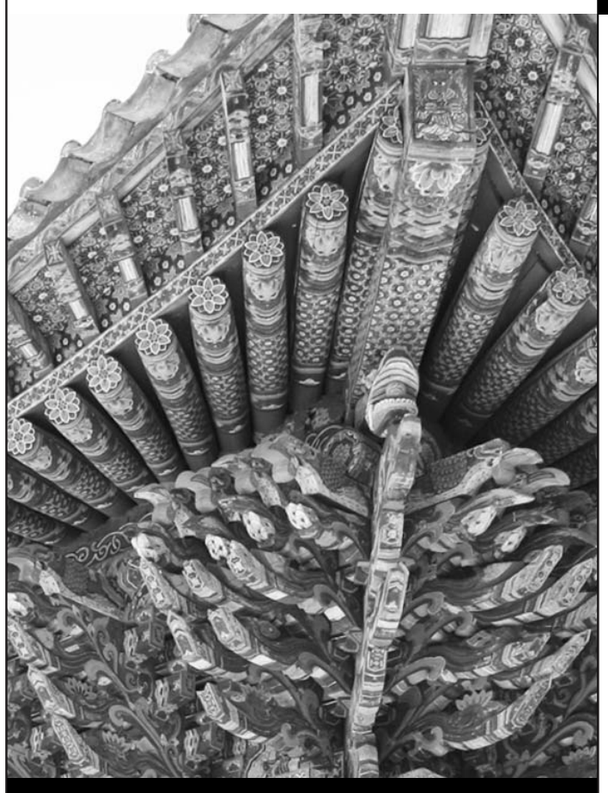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四柱는 감정이 기본이요 핵심이다.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 위주로 풀이하고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10년을 공부해도 용신잡기가 어려운 四柱를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30여년간 연구와 임상을 총정리한 太極四柱는 운명의 진리를 거울처럼 밝힘으로서 일사천리로 판단하고 감정할 수 있다. 성격과 지능과 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청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유명인사들의 사주를 실제 감정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육임 수강생 모집
무자년 운세는 육임으로 보세요.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운세뿐 아니라 일의 성사 여부와
해결까지 명확한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매매에 성사 여부와 가격,
결혼에 시기, 임신여부와 남·여 판단,
시험 운, 이혼 여부 등
「육임 수강생 모집」
■ 육임을 기초에서 백법까지 과정을 함께 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 동해안	●위치 : 경남	●위치 : 부산
●법당 : 27평	●법당 : 25평	●법당 : 50평
●요사 : 25평	●요사 : 40평	●요사 : 100평
●부지 : 357평	●부지 : 350평	●부지 : 135평
●가액 : 3억2천	●가액 : 7억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 안내 (30년생)
- 위치 : 경남 의령읍(10분)
- 총평수 : 3,000평 (밤나무산 포함)
- 법당(조립식)1동
- 요사 : 약 37평(방3칸,주방,욕실,마루)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만 연락요함
- 가액 : 6,000만원

- 위치 : 김해
- 부지 : 1200평
- 법당 : 27평(목조)
- 요사2동, 산신각, 주차장(200평)
- 좌우 청룡백호(뒷산 홍송 수백주)
- 동남향, 탁트인 전망
- 가액 : 7억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포교당 및 문화원 안내

- 위치 : 구로구 구로1동 구일역 10분거리
- 아파트 대단지 약8천세대(연예인아파트 포함)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칠보, 물감, 한지, 공예 등
- 현지 활동중 ●화장실, 샤워장 완벽시설
- 옥상 150평 전체 사용가능. 지하주차장 시설완비
  도심선방 및 각종 문화사업 최적지임
- 가액 : 전세 1억, 월 200만원(관리비포함)
  시설비 1억원(절충가능)

011-9631-0709 / 02-833-0375

대형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시설비 답사후절충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1,900만원

053)942-3478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
  (파계사 근교)
- 대지 : 43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20평, 별채 : 4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6억 5천만원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가액 : 총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305평(전부 대지)
- 건물 : 2동(법당, 요사)
- 가액 : 내방 후 결정

011-9638-8229

포교당안내

- 위치 : 김포신도시
- 45평 법당, 사무실,
  스님방, 대중방, 공양실
  주차장있음
- 보증금3천, 시설비절충
  건강상 급양도

011-763-1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지역 등산로길
- 가액 : 7천만원
- 비구니스님, 보살님 적합
  몸만 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불사한지 6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100평
- 대웅전 약30평, 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개발사용
  연못조경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저렴한
  적정금액으로 급 안내함
- 가액 : 1억 5천만원
  (신협융자 3500만원 있음)

019-245-8929

포교당안내

- 위치 : 안양 평촌 롯데마트 근처
  (아파트단지 인접)
- 8층 건물중 5층 ●60평
- 법당, 공양간, 주지실, 동불,
  후불탱, 신중탱, 인등 등
- 시설한지 2개월
- 유학관계로 급 안내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절충 호조건 양도

010-3130-055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
  (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6287-3552

사찰(급)분할 양도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구에서 40분거리 국도변)
- 대지 600평, 별도 국유지
  1200평 사용가
  건평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 주차장 완비
  노인요양원 허가신청 해 놓음
- 계약 후 불사하여 분할 지불도
  가능한 좋은조건
- 돌할배 법사와 함께 사찰에
  계실 비구 ·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인수금 : 2억5천만원
  (융자 9700만원)

053)471-3123
017-501-23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1-875-3513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도심 포교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고덕동
  (5호선 전철역 5분거리)
- 위치 좋음, 정남향
- 건평 20평, 주차장있음
- 천수천안,관세음보살,자장옥불,산신등
- 역학스님,보살님,법사 적합
- 보증금 1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800만원(절충가능)

02)3426-1357
010-8726-135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갓바위 부처고개
- 대지 : 218평
- 법당(1,2층) 70평
  산신각 6평
- 불상, 탱화 집기일체 양도
- 산세수려한 사찰
- 가액 : 3억3천만원
  (1억2천 융자있음)

053)857-3280
010-6577-3280

절터(급)안내

- 위치 : 팔공산 갓바위
  보림사가는 길목
- 대지 : 513평
  창고허가 : 25평
- 동불상 일체양도
- 유실수(5년생) 20여종 다량 실수
- 가액 : 3억5천만원

053)983-3889
010-9452-254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하철 5호선 지하철 10분거리
  상가시장, 공원주차장 근접
- 상가1층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도시가스, 시설비 2500만원
- 유학,이민관계로 선착순에 한해서
  꼭 오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135-4030
02)482-210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2동
- 평수 : 100평, 밭 200평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등산로 입구
- 보증금(권리금 합)2500만원,
  월35만원. 즉시법회가능
- 스님 종단일로 급 안내함

010-3900-138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내요지
  30년됨
- 비구니 적합
- 법당 18평, 삼존불
- 요사 방2, 목욕탕,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 스님 건강사유로 급 안내함
  집기일체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835-25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45평(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42만원
  시설비 : 800만원

011-9552-3976

포 교 원 임 내

- 위치 : 동래구 온천장 요지
  (고층아파트 인접)
- 법당, 스님방, 공양실 각각 24평
- 주방시설, 난방, 에어컨완비
  즉시법회가능
  (사정상 급 안내함)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6-520-9311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둔촌동
- 법당 : 약30평. 공양간1, 방1
- 보증금 25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5061-2213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3억원
  (분할양도가능)

010-7109-6074
054)293-20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내요지
- 평수 : 2층 약50평
  방3, 주방, 화장실2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540-3313
043)291-3313

산중토굴 가액으로 시내중심

아담한 사찰 양도받으세요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소재지 중심
- 대지 70평, 건물 43평, 인법당
- 삼존불, 상단, 중단, 영단
  방3, 다실, 욕실
- 대문까지 차량진입
- 양도가 : 2천500만원

011-509-0124

사 찰 안 내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황용사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 보일러, 에어컨 설치됨
- 가액 : 3억2천만원

011-542-0982

주택 암자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 소돌 아들 바위 부근
- 텃밭, 집 2채
- 전세 3천500만원(기한 5년까지 가능)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 평수 3천평, 요사채 50평
- 방7개, 산신각
- 전세 5,000만원(기한 5년까지 가능)

011-9918-525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해성사
- 법당 9평, 식당 약 10평
- 시설비 3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018-571-1790
053)853-4404

사찰 · 암자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도보 5분)
- 건평 : 50평(신축건물)
- 관음전 5평, 산신각 3평,
  밭 70평
- 전세 7천만원,
  월30만원(조절가능)
  계약즉시 입주가능

010-5678-8481

포 교 원 임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46평
- 방2, 법당,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3천만원(절충가능)

055)337-8600
011-834-8545

사 찰 중 개

●위치 : 경기	●위치 : 충남
●부지 : 1,000평	●부지 : 1200평
●법당 : 35평	●법당 : 30평
●요사 : 30평	●요사 : 30평
●가액 : 9억	●전세 : 2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어린이집(급)안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379-0591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포교당임대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평수 61평
- 건물 : 4층건물중 3층
- 신축건물, 엘리베이터 있음
- 내부시설 A급, 시설비 약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억원, 월 80만원
  또는 5천만원, 월 120만원

010-6489-0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삼천포 근교
- 평수 : 2500평(종교부지)
-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 주지실 10평, 산신각, 용왕당
- 삼천포 앞바다 전망좋음
- 가액 : 7억원(조정가능)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 700년 터 고려말기
- 총평수 : 1만여평, 임야 24,099㎡
- 농림지역, 종교부지 9,620㎡(3,000평)
- 법당 15평, 삼성각 9평, 기도실 9평,
  요사채 47평, 범종각(530관), 등창고 6평
- 미륵존불 10자, 염불종(30관), 금강문(일주문)
- 심야전기 보일러
  진입로 개설포장, 주차완비
- 시내 버스 25분 거리
- 등기필 35311-00240(고유번호)
- 가액 : 3억3천만원(시설비 6억소요됨)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63)222-2555~6
011-672-2555
011-678-255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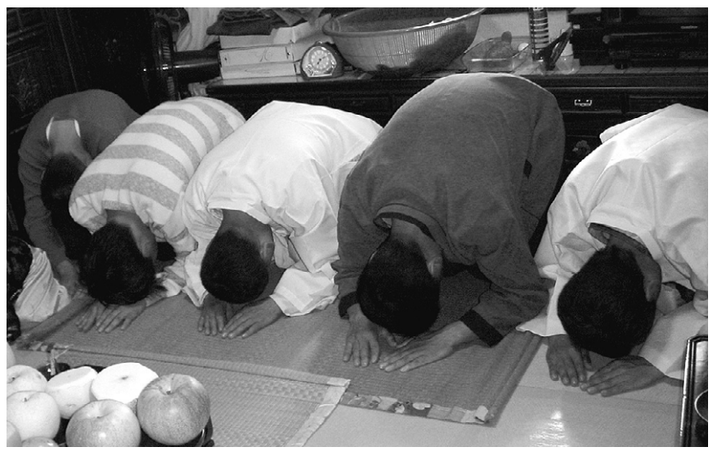
지 사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

무자년 설이다. 그리운 사람을 만날 기쁨에 한껏 부풀어야 할 때지만 벌써부터 명절증후군에 시달릴 생각에 한숨부터 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명절을 두고 '10분 만나서 반갑고, 30시간 TV 보고, 온 종일 먹고 치우는 것을 반복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가장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한 것은 물론 주부들이지만 남편도, 아이도, 노부모도 이래저래 힘들기는 마찬가지라 한다. 누구나 즐겁고 행복해야할 명절, 마냥 즐거울 수 없는지, 명절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 명절증후군 해소법을 알아본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애'로 극복해요

☑ 명절증후군 해소 이렇게 하세요





온가족이 함께 역할 분담해야
따뜻한 말 한마디 효과 '톡톡'

 # 여자라 서러워요

수원 사는 주부 최상은(가명 · 36세)씨는 명절 보름 전부터 신경이 예민하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이유 없이 밤잠도 설치기 일쑤다. 사소한 일로도 남편과 아이에게 짜증을 냈다. 최씨의 이런 증상은 지난 추석도 그랬고 작년 이맘때도 그랬다. 이유가 뭘까?

최씨는 몸이 힘든 것은 둘째고 식구들이 야속했다. 10시간 넘게 걸려 남해 시댁을 찾고 나면 남편은 운전하느라 힘들다고 방바닥을 뒹군다. 밖에서 뛰놀다 온 애들 건사는 매일 하는 것이지만 종일 상차림에 바쁜데도 엄마만 찾으니 몰라도 너무 몰라준다 싶다. 당장 일은 해야겠기에 꾹 참는 최씨. 하지만 명절이 지나도 한동안 야속하고 서러운 생각에 감정이 북받치기 일쑤다. 또 매년 같은 때가 되면 지난 악몽이 떠올라 괴롭다.

최씨처럼 명절증후군을 앓는 주부들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영호 센터장(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은 "가족은 하나다. 명절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리 준비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통해 같이 쉬고 같이 즐긴다면 건전한 가정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며 가사 분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가사분담에 대해 김효주 회장(여성불자연합회)은 "첫째 아들집은 전과 나물, 둘째 아들집은 과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집안이 몫을 나눈다. 각 집안 식구들은 아내가 요리를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장보기는 함께 하는 식으로 나누면 좋다"고 말한다.

 # 남자도 힘들어요

기업체 차장인 이주현(가명 · 42세)씨도 명절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뻔한 월급에 여기저기 선물 챙기고 인사다니는 것도 싫지만 포항까지 장시간 운전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신경 쓰인다. 하지만 정말 짜증스러운 것은 아내 때문이다. 명절만 되면 이유 없이 아프다는 아내, 본가에 다녀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얼굴 찌푸리는 아내의 모습은 아무리 참고 넘겨도 한두 번은 부부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이 씨가 고향을 찾는 것은 노부모 때문이다.

김묘주 회장은 "아내에 대해 이해하고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나누면 해결될 문제"라고 조언한다. "요리는 힘들어도 설거지와 장보기는 함께 해줘야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많이 힘들지?"라고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피로를 풀 감로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내 몸이 피로하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명절이라고 생활의 리듬을 깨면 당장은 물론 휴가 후에도 적응하기 힘들다. 장시간 운전 때 1~2시간마다 쉬고 스트레칭으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노인은 울적해요

해남 사는 75세 박씨 할아버지는 명절이면 걱정이 앞선다. 평소 연락 없던 아들, 딸을 만나는 것은 반갑지만 벌써부터 마음 한켠은 허전하다. 손님처럼 다녀가는 자식들을 보내고 나면 한동안 공허함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는다. 지난 추석에도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떠난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 짓기도 했다. 한동안 식욕도 없었고 이유 없이 몸살을 앓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구 스님(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이사장)은 "자식들이 찾지 않는 어르신들은 충격이 크다. 자식을 만난 분들도 명절 후 많이 불안해한다. 결국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tip! 묵언 명상으로 '스트레스' 훌훌

인경 스님(명상심리학회 회장)은 명절증후군을 이기는 방법으로 염 · 지 · 관 명상 수행법을 권한다. "명절 일거리를 의무로 여기는데서 스트레스가 생긴다. 명상으로 삼으면 일이 즐거울 것"이라는 스님은 명절 일거리를 가족이 분담하기로 정한 뒤 일을 할 때는 묵언할 것을 권유했다. 스님은 "일이 끝난 뒤 명상을 하며 느낀 점을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면 가정 구성원간 화목도 돈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저를 상에 놓는 것을 예로 들면, 수저를 놔야겠다는 자기 일을 알아차린다(염). 수저에 집중한다(지). 그리고 수저를 집어 상에 놓는 순간을 지켜보는(관) 방법이다.

19. 콘택트렌즈 사용법

최근 안경이 불편해서 또는 미용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콘택트렌즈를 선호한다. 그러나 콘택트렌즈는 장시간 눈 표면에 직접 접촉하므로 눈에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콘택트렌즈의 바른 사용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장기간 합병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과도한 사용 또는 올바르지 못한 렌즈 관리로 여러가지 눈 합병증에 노출돼 있다.

콘택트렌즈는 일반적으로 소프트렌즈와 하드렌즈로 나뉜다. 소프트렌즈는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의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장시간 착용하면 눈이 건조해지며 각막염, 결막염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하루 8시간 이상은 착용 금해야
각막·결막염 등 합병증 주의를

올바른 렌즈 사용법은 무엇일까? 렌즈는 손으로 취급하는 방법부터 렌즈 보존액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한가지만 꼽으라면 단연 렌즈를 하루 종일 착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렌즈 착용에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은 아침에 눈뜨자마자 렌즈를 착용해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렌즈를 빼는 것이다. 이는 각막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막 저산소에 의한 합병증이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렌즈착용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렌즈를 외출 직전에 착용해야 하며 외출 후 집에 오면 바로 렌즈를 빼야 한다.

각막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줘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꼭 필요한 날에만 렌즈를 착용해야 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눈동자를 커 보이게 하거나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 있는 서클렌즈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서클렌즈는 일반렌즈보다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서클렌즈의 염색도료가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렌즈 제조 기술이 향상되어 그러한 일은 거의 없지만 착색이 되어 있는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각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서클렌즈를 돌려 끼는 경우가 있다. 눈 표면에 상재된 각종 세균이 본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심각한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드렌즈는 소프트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산소투과성 경성렌즈라고도 부른다. 이는 각막저산소에 의한 합병증이 소프트렌즈에 비해 월등히 적기 때문에 렌즈를 거의 매일 착용하는 경우 하드렌즈가 더 안전하다.

다만 하드렌즈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처음 2~3주 동안은 렌즈 착용시 다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적응기간만 지나면 불편함은 거의 없으므로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는 경우 하드렌즈가 더 적합하다. 하드렌즈는 소프트렌즈와 달리 개개인의 각막 특성에 맞추어 렌즈를 처방한다. 따라서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각막과의 맞춤상태나 렌즈의 위치, 움직임이 적당한지를 안과 전문의에게 처방받아야 한다.

장기간 렌즈를 착용한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나중에 시력교정수술을 못 받게 되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당장 치료를 해야 하는 활동성 염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렌즈를 장기간 착용했다고 해서 시력교정수술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미용상 이유로 콘택트렌즈를 사용한다.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합병증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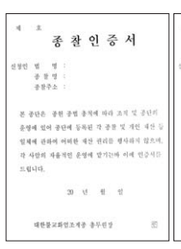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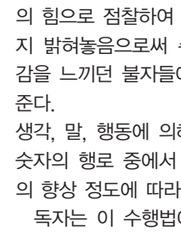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수행으로 아는 나의 삼세(三世)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호 지음
연화 펴냄 | 신국판 양장본 360p
수행도구 법주포함 정가 5만원

팔만 대장경 경집부 점찰산악업보경을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놓은 수행지침서로서 부제는 〈법주수행비기〉, 자신이 지은 업력으로 발동하는 인생의 고락길흉을 〈법주〉라는 수행도구와 우주에 작용하는 인연의 힘으로 점찰하여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대처방법까지 밝혀놓음으로써 수행과 현실적 성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던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생각, 말, 행동에 의해 각각 0수로부터 108수에 이르는 숫자의 행로 중에서 자기 인연수가 결정되어지며, 수행의 향상 정도에 따라 인연수가 변화하게 된다.

독자는 이 수행법에 의해 자신의 전생 내지 현재, 미래 모습의 파악은 물론, 매 순간 닥치는 인생진로 및 인간관계의 성패까지도 점검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수행하는 세상, 모두가 부처 되는 세상을 희구하는 수도승인 저자의 서원이 가슴 짠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 불서총판 운주사 –

온라인〈농협〉1343-02-005446 예금주 이성한

구입처 : 도서출판 연화 053) 253-1923 익일택배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입 학 식 : 2008년 3월 6일
(수업–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초기 불경 번역으로 불교 전파에 '큰 몫'

중국불교의 거사들 〈3〉안현(安玄)·지겸(支謙)거사



그림 · 김홍인

안현 거사 – 재가자 수행법 밝힌 〈법경경〉 등 번역
지겸 거사 – 반야부 경전 번역 중국사상에 큰 영향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출발은 경전 번역에서 시작됐다. 불교가 지닌 사상을 중국에 전달하려면 무엇보다 불경(佛經) 번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불교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후한(後漢) 말 서역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당시 수도인 낙양(洛陽)에 들어와 대 · 소승의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번역가로는 안세고(安世高)와 지루가참(支婁迦讖)을 꼽을 수 있다. 안세고는 아함부(阿含部)에 속하는 17부 경전과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 〈음지입경(陰持入經)〉 〈아비담오법경(阿毘曇五法經)〉 등 소승경전을 주로 번역했다. 지루가참은 〈수능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과 같은 대승경전을 번역했다. 그런데 이런 역경사업에 수많은 서역출신 거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낙양에서 역경에 참여한 거사 가운데 안식국(安息國) 출신 안현(安玄)이 대표적이다. 초기 역경 상황을 알려주는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따르면, 거사는 영제(靈帝: 159-189)시기에 무역을 위해 낙양에 도착했다. 낙양에서 우연히 불교를 접한 거사는 그 가르침에 매료돼 경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고, 수계(受戒)까지 받았다. 그 후 거사는 장사도 포기하고 서역스님들과 불법을 논하기를 즐겼다. 경전 읽기를 즐겼던 거사는 숙세의 인연이 번역에 있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역경에 동참했다. 중국불교사에서 중국인 최초로 출가승려가 된 엄불조(嚴佛調)와 함께 번역한 〈법경경(法境經)〉 제1권에는 안현 거사가 범문을 번역해 구술하면 엄불조가 받아 적었다고 쓰여 있다.

〈법경경〉은 재가인들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 설법이다. 재가 거사들에게 '삼귀의'와 '오계' 등을 설하며, 대승불교를 수지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전이다. 안현 거사가 이 경전을 선택해 번역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사가 활동하던 후한시기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출가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최초의 중국인 승려는 엄불조가 아니라 삼국시대의 주사행(朱士行: 203-282)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인들은 재가신도로만 불교를 신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가거사인 안현 본인이 중국에 거사불교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도 이유다.

후한시기 역경은 안현과 같은 서역출신인 외에 많은 수의 중국현지 거사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크게 행적이 두드러진 인물은 찾기 어렵다. 이 가운데 서역출신으로 역경뿐 아니라 중국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지겸(支謙) 거사다.

지겸 거사는 본래 대월씨국(大月氏國)인이었다. 그의 조부가 후한 말 수백 명 친족을 이끌고 중국에 들어와 하남(河南)에 정착했고, 그는 중국에서 출생했다. 그 인연으로 거사는 어려서부터 중국과 외국 서적을 모두 읽었고, 6개 국어에 능통했다. 또한 어려서부터 지루가참의 제자 지량(支亮)에게서 불법을 배워 크게 이름을 날렸는데, 당시 사람들은 지루가참 · 지량 · 지겸을 통틀어 '삼지(三支)'라고 불렀다. 특히 지겸 거사는 '지혜의 주머니'라는 의미에서 '지낭(智囊)'이라고 칭했다. 전란이 발생하여 지겸 거사가 오(吳)나라로 피난을 하게 되자 오나라 군주인 손권(孫權)은 그를 초빙해 불법의 대의를 물었고, 거사는 일일이 자세하게 답했다. 그에 만족한 손권은 지겸에게 '박사(博士)' 칭호를 주고 태자 손량(孫亮)의 스승으로 삼았다.

당시 중국의 정치 상황은 위(魏) · 촉(蜀) · 오(吳) 삼국으로 나뉘어 천하가 삼분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가 새로운 통치철학으로 대두되면서 삼국의 모든 통치자들은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황조는 춘추 · 전국시대에 발생한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법가(法家)'를 통치사상으로 삼았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으로 실패하고 만다. 그를 이은 한조(漢朝)는 법가와 사상적으로 대조적인 '도가(道家)'를 통치이념으로 삼지만 역시 실패하고, 무제(武帝)에 이르러 '독존유술(獨尊儒術)'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유가'를 중심으로 한 통치이념은 후한에 이르러 근본부터 문제점을 드러내 결국 한황조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로부터 제자백가 가운데 대표적인 법가 · 도가 · 유가의 사상이 대제국의 통치이념으로 모두 적합지 않음이 증명되자 새롭게 중국에 퍼지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통치자들은 불교가 제국의 통치에 적합함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나관중 역사소설인 〈삼국지연의〉에 간사함의 대명사로 기술된 위나라 조조(曹操)도 불교에 깊이 매료돼 불법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후한 말 중국에서 갑자기 불경 번역이 유행하고 국력이 집중됐음은 이런 통치자들의 관심을 반증한다.

지겸 거사는 오나라 황무(黃武) 원년으로부터 건흥(建興)년간(222-253)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태자의 스승으로 있으면서 36부 48권에 달하는 경전을 번역했다. 그 가운데 〈유마힐경(維摩詰經)〉 〈대명도무극경(大明度無極經)〉 〈대아미타경(大阿彌陀經)〉 〈법구경(法句經)〉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등이 유명한데 대부분 대승경전에 속한다.

거사는 태자 손량이 즉위하자 모든 관직을 버리고 궁륭산(穹窿山)에 은둔했다. 축법란(竺法蘭)에게 오계(五戒)를 받은 거사는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다. 거사가 산중으로 은둔하자 거사를 따르던 수많은 사대부들도 관직을 버리고 함께 은둔했다. 거사의 정확한 생몰년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비록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였지만 동진(東晋)의 명승 도안(道安)이 지겸을 '참다운 입실(入室)의 자격을 갖춘 고덕(高德)'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역대의 많은 고승들이 그를 칭송했다.

지겸의 사상은 지루가참의 영향을 받아 대승불교에 치중돼 있다. 지루가참과 지겸의 가장 큰 업적은 중국인들에게 최초로 반야부(般若部) 경전을 번역, 소개했다는 것이다. 지루가참은 〈도행반야경〉을 번역했는데, 이는 구마라집(鳩摩羅什) 번역으로 알려진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의 동본이역이다. 지겸 거사는 지루가참의 〈도행반야경〉을 다시 〈대명도무극경〉으로 개역했고 주석을 덧붙였다.

당시 〈도행반야경〉과 〈대명도무극경〉은 고도의 불교철학을 소개하고 있어 큰 반향을 몰고 왔다. 예를 들어 〈도행반야경〉의 '도행반야(道行般若)'는 후에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로 음역(音譯)됐다. '지혜도피안(智慧度彼岸)'으로 의역(意譯)되는 Praj ña Pāramitā 를 번역한 것으로, '도행'은 노장(老莊)의 '대도를 행함[行於大道]'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겸 거사의 '대명도무극(大明度無極)' 역시 〈주역(周易)〉 등에서 차용한 흔적이 역력하다. 지금은 '공(空)'으로 굳어진 용어를 지루가참과 지겸은 모두 '무(無)'로 번역했다. 가령 '제법성공(諸法性空)'을 '제법본무(諸法本無)'로 표기했다.

경전 번역에 있어 이런 용어의 차용은 본래 경전이 지닌 의미로부터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위진(魏晋)시기를 풍미했던 현학(玄學)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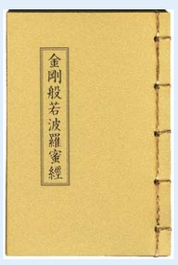
현학을 창시한 사람은 조조의 양자인 하안(何晏)과 천재소년으로 알려진 왕필(王弼)이다. 조조와 그 일가는 철저하게 불교를 신봉했다. 조조 일가는 불교에서 통치철학을 건립하고자 노력지만 국교로 삼지는 못했다. 반면에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오나라 손권은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당시 중국 핵심인 관중(關中)을 차지했던 조씨 황실은 한대(漢代)에서 이어진 유가(儒家) 기반의 귀족세력 때문에 표면적으로 불교를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씨 황실은 하안과 왕필 등 학자들을 동원해 불교사상, 특히 반야사상을 기반으로 유(儒) · 도(道) 양가 사상을 포섭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현학이며, 현학의 직접적인 매개체가 된 것이 지겸 거사의 〈대명도무극경〉였다.

〈대명도무극경〉은 반야사상을 가장 중국적인 사유양식과 용어로 표현했고, 이는 반야사상으로 중국 전통사상을 포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왕필의 현학이 '본무(本無)'를 중심으로 운용함은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출현한 현학은 예전에는 중국사상에 없었던 '본체론(本體論)'을 대두시켰다. 이는 중국사상에 일대 획을 긋는 대사건이다. 위진 시기에 현학이라는 과도기가 없었다면 불교가 '중국을 정복'(이는 중국학자들의 표현임)할 수 있었을까?

안현 거사와 지겸 거사는 서역출신이지만 모두 중국에서 불교를 접했고, 적극적으로 역경에 참여했다. 그 결과 중국에 불교를 널리 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지겸 거사는 반야부 경전을 중국식으로 번역해 불교뿐만 아니라 중국사상에 대전기를 몰고 왔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연구교수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의 식 사 용 도
실물크기 (소)3.5×5cm (중) 5×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푸르게 살 수 있으려면

문 스님께서는 늘 내 안의 심봉을 붙들고서 푸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워진 짐이 많고 가족과 조상의 인연줄이 늘 놓여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푸르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답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정초가 되면 촛불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형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탁만 쳤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제각기 마음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삼천 년 전 부처님께서 미리미리 진리에 관한 건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0% 물질계에만 정신이 팔려서 허덕거릴 뿐이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해서 돌아간다는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본이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정신 차려서 생활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지경이 많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해마다 마음의 불을 밝히는 촛불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아 두어야 할 두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가 과거에 살던 참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12대 종손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에게 다 응신으로서 나투면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또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런 모든 진리에 관한 섭류를 터득해서 바로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니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나 자식을 위한다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둘 아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섭류를,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지고, 바뀌지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식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하거나 욕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더하고 덜함도 없어요. 육근으로부터 육식이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의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뱅뱅 도는가 하면 길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도 산 사람인 양 생각을 하게 되고, 강에 가도 빠져 죽을까봐 강을 못 건너가게 되고, 불바퀴를 넘어서려 해도 타 죽을까 봐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일체 만물을 보고 살았던 것이 있어서, 무시무시한 뱀이나 귀신들이나 무서운 짐승들이나 그런 생물들이 다 살아 있는 양 그려져 있는 그 환상 속을 실제 자기가 몸이 있는 줄 알고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물속의 생명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주머니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자유로이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유로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벗어나야 자유권을 얻고 자유권을 얻어야 세세생생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일체 만물만생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가 되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법신이 되고, 움죽거렸을 땐 화신이 돼서 응신으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다 원해도 거기에 응하셔서 둘 아니게 건져진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머리카락처럼 인생살이가 벌어진 겁니다. 인생은 짧기도 하며 길기도 합니다. '우리는 걸망 짊어지고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식들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세포에 있는 그 의식들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빈틈없이 의식적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철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자기네 집에서 걸망 짊어지고 놀러 나와서 남들하고 더불어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 다 자기 집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지금 인생살이가 그렇다 이겁니다. 짧은 기간에 걸망 짊어지고 나와서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악업 선업이 다 합해서 차례차례로 차근차근히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대치를 해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게 하는 길은 단 하나 있습니다.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겁니다.

차례차례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나오는 자리에다가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되놓는 겁니다. '네 속에서 나온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하고 깊은 마음속에다 말입니다. 뿌리이기도 하고,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하죠. 일체 만물의 나무들도 잎새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뿌리에 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끊어지면 그 나무들이 다 죽듯이 인간도 영혼의 뿌리인 자기가 개개인에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항상 남의 형상을 믿고 형상을 찾고, 이름을 믿고 이름을 찾고, 허공을 믿고 허공을 찾고 이런다면 자기의 그 멋있는 뿌리는 언제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쪽 나무가 저쪽 나무를 믿고 에너지를 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빌어도 에너지는 이쪽 나무로 오지 않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에너지가 나무로 올라가서 그 나무는 푸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닥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다 밝아지게 되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나를 발견하고 나서의 공부 과정

문 주인공 하나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다 보니 생시나 꿈에서나 나 아닌 나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수련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예전에 어떤 귀한 선종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부처는 어느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 "바로 네가 부처니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말끝에 스님이 하는 말이 "보림을 어떻게 하오리까?"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종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그것을 관찰하라." 하셨답니다.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이것을 잘 관찰하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답니다.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봤다고 했을 때에 그 때가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오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말고 내 이 여기에, 안으로 굴려서 내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보는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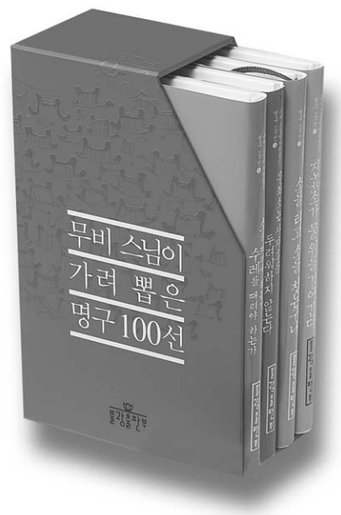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의 대상이 없으면 습이 일어날 수도 없고 생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주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쳤다 할지라도 보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굴려서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체험하고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다 다시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좀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본단 말을 바깥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똥을 누고 가더라. 너는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는 밥을 먹더라. 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는 잠을 자고 있더라." 이런다면 참나가 '아니,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뜻으로써 그렇게 보게 했더니 요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해!' 이럴 것입니다.

☞26면으로 계속

YES24 5주, 교보문고 3주, 불교부문 주간베스트 1위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 100선」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4권 1세트

불교의 핵심을 가르는 명구, 명쾌한 해설
한 편 한 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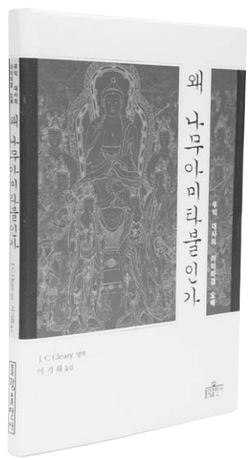
짧은 한마디 명구,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무비 스님의 해설을 통해 마음이 밝아지고 삶의 지혜가 열린다. 행복 지킴이, 인생 성공 지침서라 할 만한 이 책을 거울 삼아 어지러운 마음을 비춰보고, 그 중에 특히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고 새김질해보라.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 자유, 대 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다.

제1권 ∘ 진흙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제2권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제3권 ∘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4권 ∘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 4×6판 양장본 | 각 권 값 9,000원
● 4×6판 양장본 | 4권 1세트 | 값 35,000원

흔들리는 우리 시대,
나무아미타불로
바로 지금
정토를 꽃피우다





왜 나무아미타불인가
◉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 요해

J. C. Cleary 영역 | 이기화 옮김
신국판 양장본 · 200쪽 · 값 12,000원

"화엄경의 심오한 법장과 법화경의 비밀한 골수와
모든 부처님의 심요와 보살만행의 지남(指南)이 모두 아미타경에 있다." ___우익지욱 대사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요해』는 사리와 이치가 지극하고 미묘하고 또 정확해서
옛 부처님들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를 능가할 주석을 달 수 없을 것이다." ___인광 대사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요해』는 미국의 불교학자 J.C. Cleary 박사가 영역,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토불교란 무엇인가', '정토불교의 주요한 특징' 등 정토불교의 가르침과 정토수행법에 대해 친절하게 일러주고 있다.
불교용어를 해설하고 내용과 관련된 일화를 설명해 주는 편집자 주를 일일이 달아서 정토불교 개론서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한국불교의 저변을 확대하고 힘찬 생명력을 제공, 정토불교를 꽃피우고 한국불교를 발전시키는 데에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월간 『불광』 · 불광출판사에서 _함께 _성장해 나갈 _인재를 _모집합니다_ ∗모집부문. _ 취재·편집: 0명 | 홍보·마케팅: 0명

불광출판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5-14 | 전화 (02)420-3200 | 팩스 (02)420-3400 | http//www.bulkwang.or.kr | 도서출판 한강수는 불광출판사의 자매회사입니다. 한강수

자기 마음을 밝히면 조상들도 둘 아니게 밝아집니다!

☞25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말없이 쓰되, 말없이 굴리되 그 굴린 자리에 다시 놔라 이겁니다. 알면 자기가 알았지 남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알았어도 아는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때가 애들 사춘기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때가!

그래서 그런 걸 보되, 급한 일이 있으면 쓰되 그 썼단 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그걸 보되, 듣되 그것은 역시 도반들끼리나 서로 주고받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도반들끼리 앉아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글쎄 네놈이 말이야, 이거를 봤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 아, 고놈도 고놈이더군, 그래." 하면서 재미있게 거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봤더니 이러이러하니까 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러는 거는 바로, 선신이 되라고 했더니 귀신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백의무씨가 되라고 묻어 뒀더니 아, 이건 종다리씨 그대로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짝에도 못 쓰죠. 심어 봤자야 무우도 밑에 안 앉고 종다리만 올라오니깐 뭐 이파리를 먹을 수가 있나, 씨를 쓸 수가 있나요? 그와 같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본다면, 거기에 멈춘다면, 나라는 아만만 서고 아상만 서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당당하고 도도하되 내 모든 행으로서는 겸손하고 위를 보면 위 보는 대로 아래를 보면 아래를 보는 대로, 항상 엽렵하게 그렇게 자비한 마음으로서 남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말 한 번 행 한 번 잘못하고 돌아가면 잘못된 게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역대의 조사들한테도 미칠 뿐 아니라, 저 끄트머리로 가서는 석존까지 일컬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저 불자들이 하는 일이 저게 뭐야? 저 행동 좀 봐!" 그런다면, '불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석존이 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자 나고 내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 누구를 막론해 놓고.동시에 욕을 먹는 겁니다, 동시에!

뜻은 똑같지만 선지식들이 달리 말을 자꾸 하는 까닭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을 테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보기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놔서 참말 보림을 잘했으면 거기서 싹이 틔어 나올 테니까 그걸 보림을 하게 만드느라고 그랬을 겁니다. 나를 보았다 하더라도 또 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안으로 굴려서 보림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문 따뜻해지면 조금 넓은 평수로 집을 옮겨 볼까 생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더라도 날짜를 봐야 하고 방향을 봐야 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는데 북쪽으로 삼살방이 들어서 계약은 해 놓고 못 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그러겠지마는 삼살방으로 가면 집안이 잘 안되니까 죽는다고 누가 그랬답니다. 또 삼살방이 들기 이전에 이사를 가면 가환이 떠나질 않는다. 너는 내년에 꼭 죽을 사주팔자고 삼재가 들었으니까 잘못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약했으면 자기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고귀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형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쭙지 않은 말에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고 선 남의 말에 그냥 휘휘휘휘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의 노예이지 자신이 사는 참 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죽는다 산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마세요.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천도 좀 시켜 주시오." 하니까 "허, 본래 살아온 게 없다면 죽을 것도 없을 것을…." 하고선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천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무색하겠습니까만 그거는 그 즉시에 요리가 된 것이고 그 즉시에 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물질 본위만 알지 보이지 않는 50%의 그 영향력은 모르고 사시기 때문에 자유권을 얻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랑잎과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낙엽이 진다고 해서 죽는다고 애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영원히 살아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불이 들어와서 밝아 있다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고 항상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산다도 없습니다. 나무 이파리로 친다면 나무 이파리가 낙엽이 져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흙에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 보듯이 사람도 천차만별의 속임수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뿌리인 참자기를 못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이요,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인데 모든 부처가, 일체제불과 중생이 다 여러분 한마음 속에 들었거늘 여러분은 만날 그저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부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부처님한테다가 갖다 놓고 빌어야만 자식과 남편과 부모가 잘되는 줄 아는 그러한 소치는 여러분이 정말 그 법을 모르고 죄를 덮어쓰는 일입니다. 그런 건 덮어씌워 주지도 말아야 하고 덮어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여라도 '누가 이리로 가면 나쁘니 이사를 가지 마라. 부적을 가져라. 또 무슨 고사를 지내라. 크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라.' 이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데 속는다면 여러분은 한시도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이사 가는 날도 내가 이날 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게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에요. 내가 집을 짓고 싶다 할 때에 거기 지으면 그냥 부처님의 법이니 내가 어디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것을 논의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고귀한 보배 속에서 바로 자기 마음이 나오는데 찰나찰나 생각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법음이기 때문입니다.

> 마음이 벗어나야 자유권을 얻고
> 자유권을 얻어야
> 세세생생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려면

문 지구에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그 후에 지금의 과학문명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으로 알려진 뮤우 문명과 아틀란티스 문명의 시대가 있었지만 탐욕 때문에 핵전쟁으로 한순간에 바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도 정신문명은 저버리고 물질로만 치닫는다면 이전의 문명들이 그러했듯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들 합니다. 스님, 어떻게 마음을 내고 살아가야 지금의 문명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는지요?

답 부처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의 모든 역사, 문화를 본다 해도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서 문화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지금은 폐허가 되거나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떠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나 역사가 그렇게 풍부하게, 졸렬하지 않게 잘 발전이 됐을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폐허가 되고 흔적만 남아 있을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때에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살자고 이렇게 하긴 했어도, 예를 들어서 일체 만법을 자기의 마음으로 낱낱이 돌려야 할 텐데 마음으로 돌리지 않고 색으로 돌렸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그리고 타의로 돌려서 욕심, 원망, 증오, 싸움으로만 가니까 '전체 일체 만법을 내 마음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 안 하고 내 마음으로 돌린다면 내가 다시 여기 오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으로 돌린다면 석가가 따로 있고 어디 예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문화를 발전시킨 그분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대인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겐 내가 시쳇말로 이렇게 합니다, 못 알아들을 테니까. 천체망원경도 있고 무전 통신기도 있고 탐지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책정기도 있고 영사기도 있다고요. 다 있는데 대뇌로 한번 한생각이 돌아가면 다 통과가 되게끔 돼 있어서 자동용이다 이겁니다. 자동력으로써 우리는 지금 자동기를 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어떠니 기독교가 어떠니 가톨릭교가 어떠니, 이것이 내 것이고 저것이네 것이고, 분별하고 싸우다 보니까 요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싸워야 돼. 뭣이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났습니까? 이 세상 일체가 다 생명 없는 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생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마음 아닌 게 하나도 없이 일심(一心)으로 돌아가고 바로 공체(共體)로 돌아가고 공식(共食)하고 있고 공용(共用)을 하고 있거늘 어찌 독불장군이 있다고 그렇게들 야단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라고 하는 것은, 내 잠나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지 거꾸로 돌아가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남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리를 알 수 있으며 바로 대천세계(大千世界)의 근본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주세계의 근본을 모르는 것은 내 근본을 모르는 거와 같기 때문에 우주세계의 근본을 모른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주세계의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 행성이나 위성 또는 정보원처럼 일하는 별성의 살림이 우리네 살림살이와 똑같은 걸 모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국방도 정치도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조화를 이룬다면 우주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른 데다가 우리의 좋은 씨를 공급을 해서 다른 집에도 그 씨가 생산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개발이요, 또는 생산이 돼서 잘된다면 바로 우리의 동네집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혹성 하나하나, 별성 하나하나가 나 아님이 없으니 내 동네 아님이 없고 내 행동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의 불씨 하나가 온 누리의 전체를 태워 버릴 수도 있다고요. 온 누리의 전체를 태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석력이나 전자력, 자동력, 통신력 이 모두가 바로 원소의 근본으로 하여금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질되고 죽는다, 이건 허망하다 이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변질되고 허망한 게 아니라 항상 지속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애당초에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게 어딨습니까. 이 세상에 난 것도 없는데 죽는 게 어딨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찰나에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찰나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굼벵이가 지붕에서 먹은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어, 굼벵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네.' 이러는 찰나에, 굼벵이는 바로 매미로 옮겨 갑니다. 요거를 하나 예를 들어봐도 옮겨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지수화풍 근본에서, 흙과 물과 이러한 데서 미생물이 생겨서 그 생물로 인해서 모두가 이렇게 진화돼서 살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나와서 위로는 바람과 태양이 우리를 감싸 주고 자라게 해 주듯, 어머니가 애를 낳아 놓으면 아버지가 벌어서 다 키우듯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지수화풍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살아나온 것도 아니고요.

본래 있기 때문에 본래 나온 거고, 본래 나왔기 때문에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지속되고 있으면서 자꾸 옮겨가고 모습을 바꿔 놓을 뿐이지 뭐가 죽고 산다는 얘깁니까? 옮겨 놓고 바꿔지는 그 사이에, 찰나찰나 옮겨가는 고정됨이 없는 생활 속에 어찌 거기 인과응보가 붙으며 유전이 붙으며 또는 업보가 붙으며 생사윤회가 붙겠습니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렁거리면서 우리는 지금 리듬을 타고 가는 겁니다. 옮겨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부릴 수만 있다면 우주의 개발이나,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꽃이 피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역사나 문화나 모든 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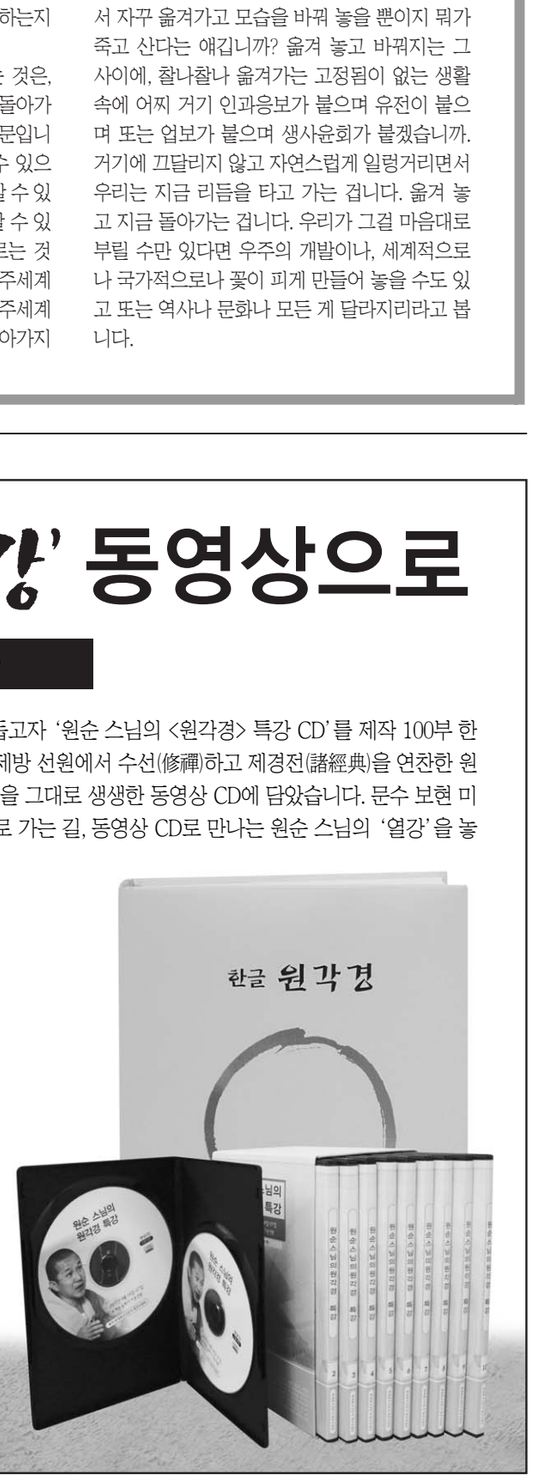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설날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신흥종교가 되어버린 '영어'

몇 해 전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살을 빼야 한다"는 '다이어트' 열풍이 몰아칠 때 언론에서는 '종교가 되어버린 다이어트'라는 표현까지 써서 그 분위기를 잘 보여준 적이 있다.

요즈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며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나라에서 최대 신도를 가진 종교는 영어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새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어 교육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철학 빈곤, 영어 사대주의 등으로 돌리고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런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일제 강점에서 해방되어 북위 38도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하여 모든 것을 오로지 하던 시절, 영어 몇 마디만 할 줄 알면 높은 관료도 될 수 있고 일본인이 남기고 떠난 이른바 적산(敵産)을 공짜로 차지하여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 미군들에게 '예(yes)'와 '아니오(no)'를 제대로 쓰지 못해 순박하기 짝이 없는 시골 농민이 '빨갱이'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기까지 했으니, 그 시절에도 이미 '영어'는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쥔 전지전능한 신(神)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이런 '영어'의 종교화는 지난 1997년 말 이른바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래 더욱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괜찮은 회사라고 알려졌던 대기업과 국내 은행들이 줄줄이 외국인 자본가들에게 팔려나가면서, 그동안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 착실하게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일찌감치 미국 물을 먹고 오거나 해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은 오로지 그 한 가지 재주 때문에, 승승장구 출세의 길을 달려가게 된 것이다.

은행에 다니는 가까운 친구가 나와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그 놈의 영어 때문에…"라며 자조 섞인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내가 바로 "이 사람아, 그래서 상국에 다녀왔어야지. 옛날에 당나라 · 명나라에 다녀와야 학자나 학승으로 자리 잡고, 고위 관료나 정치가로 출세할 수 있었듯이 요즈음 세상은 미국 물을 먹고 와야 출세한단 말일세"라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스운 말을 해준 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웃어넘길 일인가.

우리 모두 중 · 고등학교에서부터 영어에 쏟아 부은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도 왜 우리 국민들은 영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몇 해 전 몽골 여행 중 만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많지 않은 영어 단어를 써서 자기 의사를 정확하고 자신 있게 전달할 줄 알았다. 아마 몽골에서 영어 교육과 공부에 쏟는 노력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이 분명할 터인데 말이다. 이건 분명 우리의 외국어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이처럼 온 나라가 영어 때문에 시끄럽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설사 떠들거리더라도 그 안에서 교양인의 품격을 느끼게 되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조심을 하며 예우를 하고 자신의 발언 속도를 늦추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불어오는 '영어 열풍'과 '영어의 종교화'는 그런 교양인의 기본 자질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다른 외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를 통해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접하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국 사람들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겠다'는 천박함에서 출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는 스스로에 대한 모멸(侮蔑)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말과 글,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은 없이 앵무새처럼 영어를 말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답답하다.

마지막 질문, 왜 온 국민이 모두 영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혹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골고루 나누는 평등 세상을 꿈꾸어서인가? 미국의 쉰 몇 번째 주로 편입되기를 기대하는 것인가? '영어=미국=기독교'라는 등식을 위해서인가?

불자의 눈

동국대 '로스쿨 탈락' 남은 일은?

"동국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선정에 탈락된 것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며 유감스럽다. 차후라도 선정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

조계종립 동국대가 로스쿨 예비선정 대학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진 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오영교 총장에게 내린 지시다. 지관 스님은 동국대가 로스쿨 선정 예비명단에서 탈락된 것을 조계종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오영교 총장은 "만해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마련은 물론 교원확보 등 학교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했던 상태였다. 예비인가 선정 배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에서 교무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로스쿨 선정에서 배재된 동국대의 분위기가 '초상집'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국대는 지난해 소위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로스쿨 대학으로 선정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15개 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16번째에 이름을 올리는 '애석한 탈락'의 주인공이 되었다. 종교사학의 자존심이나 형평성을 두고 볼 때도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속단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중요할 수도 있다. 새로운 여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불복을 위한 불복이 아니라 보다 정당한 당위성을 통해 100년 사학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전통사찰 불사 여건 좋아졌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건축물 증 · 개축 등 불사에 제한을 받아 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전통사찰의 공익성과 종교행위의 자유를 침해당해 온 사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오랜 숙원의 해소가 아닐 수 없다. 또 사찰의 연면적 산출 기준을 건축물대장이 아닌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GB관리대장)'으로 삼게 됐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이제 전통사찰은 불편을 겪게 했던 법조항이 개정된 만큼, 보다 가치 있는 불사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은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상례지만, 보다 멀리 내다보고 보다 내실 있는 불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통사찰은 그 존립 자체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불사의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과 꼭 필요한 불사를 높은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해당 사찰이 불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찰은 불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불사를 추진해야 하고 종단은 심의 기구를 철저히 가동하여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불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 버리면 천만가지가 다 쉬게 된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⑳ 내가 없다면 苦도 없다

체면 때문에

"갈까 말까" 박씨는 무척 망설여졌다. 저녁에 고교동창들 모임이 있었다. 문제는 자신의 형편이었다. 박씨는 몇 개월 전 갑자기 회사에서 퇴출되었다. 그 후 취직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 동창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하나. 남들이 말하는 백수라는 것. 그럼 뭐라고 그럴까. 아무래도 우습게보겠지. 가기가 싫었다. 그러나 사실 동창들에게 직장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야 할 처지였다. 갈등하다가 그래, 가고 보자하고 결정했다.

그런데 막상 친구들을 보자 자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야, 잘 지냈냐. 요즘 어때?" 하자 "응, 그렇지 뭐" 하고 대답했다.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느라고 바빴다. 박씨는 회사 얘기가 나오면 대충 얼버무렸다. 도저히 창피해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당황스런 일이 일어났다. 한 친구가 "오늘은 00가 한 턱 내지" 하고 자신을 지정하는 것 아닌가. 약 7~8명인 이 모임은 전통적으로 한 사람이 저녁식사 값을 계산하곤 하였다. 돌아가며 내는 것이다. 예전 같다면 "그래, 좋아. 오늘은 내가 내지!"하며 호기 있게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대신 머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최소 8만원은 나오겠네. 어이구! 지난 몇 달간 아내한테 용돈을 타 쓰는 처지다. 하루에 만 원 이상 쓸 형편이 아니었다. 8만원이면 일주일도 더 넘는 용돈인데.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지.

'자기'가 있으면 괴로워

박씨는 이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나 오늘 밥값 낼 형편이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실직했다고 말했으면 쉬웠을 것이다. 두 시간도 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바른 대로 말한다면 자신이 너무 초라할 것 같았다. 후회가 되었다. 그냥 얘기할 걸….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끝까지 속이기로 했다. 그래, 8만원 쓰지 뭐. 이제 친구들 얘기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 체면에 이게 뭔가 싶었다. 사십 다되는 나이에 강제 퇴출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었다. 울고 싶어졌다. '내 꼴이 이게 뭔가.' 거짓말이나 해야 되고, 마음이 한참동안 들끓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더라. 그래, 나는 지금 내 생각만 하고 있어. 내 체면만 생각하니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두려운 거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그 중 하나일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해야 하나. 오직 체면 때문이다. 나라고 항상 잘나가라는 법 있나? 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내가 없다면 체면이 어디 있나. 박씨의 마음은 점차 편안해졌다. 드디어 말할 용기가 났다.

나 하나를 버린다면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난 몇 달 간 실직했고 지금 돈 쓸 처지가 아니라고. 박씨가 마음속으로 '부처님, 난 몰라요. 제가 없다면서요' 하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0.1초 차이로 친구 00가 먼저 큰소리로 말하는 것 아닌가. "야. 박00. 오늘은 양보해라. 오늘은 내가 낸다!" 귀가 번쩍 띄었다. 그 친구는 내일 좋은 일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반가우면서도 태연한 척 "그래, 그럼 난 다음에 내지 뭐"하고 대답했다. 어, 이게 어찌 된 거지. 상황이 저절로 바뀌어버렸다. 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상 고백하려는 순간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나라는 체면을 버리기로 하자 오히려 곧바로 해결된 것이었다. 박씨가 안심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다시 그의 마음에 힘차게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 "나 하나를 버린다면 천만가지가 다 잠을 자고 쉬게 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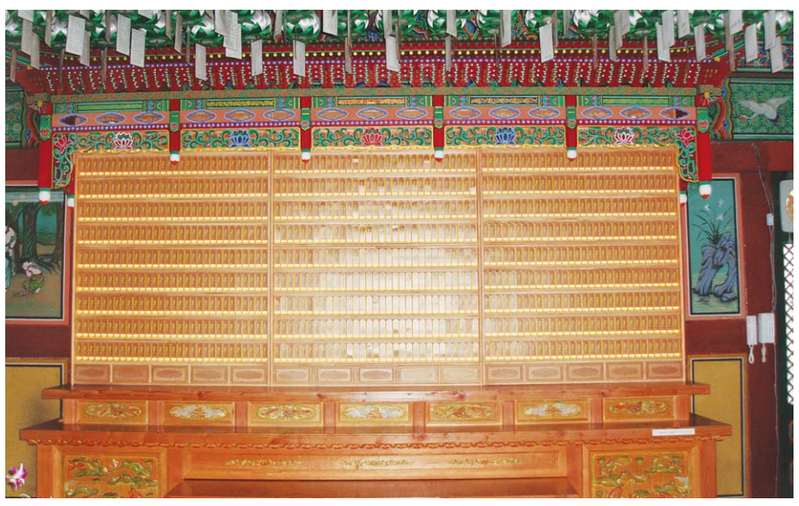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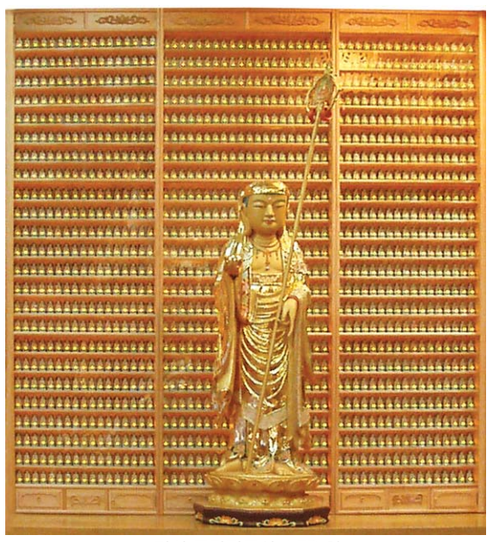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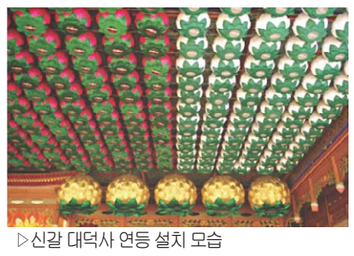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 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수 있다.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

목 · 기관지

도라지 진액으로 …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추운겨울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격 130,000원



내용량: 110g×3병

제조
(주)고려한방제약
구입문의 **1566-1940**

농 협 1285-02-011378 이현실(고려한방)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고급형]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